

박사학위논문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

김 용 분

한 양 대 학 교 대 학 원

2005년 2월 일

박사학위논문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

지도교수 이 정 섭

이 논문을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2월 일

한 양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김 용 분

이 논문을 김용분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05. 2.

심사위원장 ⑩

심사위원 ⑩

심사위원 ⑩

심사위원 ⑩

심사위원 ⑩

한양대학교대학원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그림 목차	iii
부록 목차	iv
국문 초록	V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문제	3

II. 문헌 고찰

1. 연구의 철학적 배경	4
2. 자살로 인한 사별의 이해	6
1) 자살로 인한 사별의 특징 및 애도과정	6
2) 자살로 인한 사별의 문제와 영향요인	8
3)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반응과 적응	10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13
2. 연구자 훈련과정	14
3. 자료수집	15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15

2) 연구 참여자 접근	16
3) 면담과정	16
4. 자료 분석	17
5. 연구의 엄정성	19

IV.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1
2. 개방코딩	22
3. 축코딩	88
1)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88
2) 과정분석	95
4. 선택코딩	103
1) 분석적 이야기	103
2) 핵심범주 : ‘승화되기’	105
3)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	106
4) 유형분석	107
5. ‘승화되기’의 상황경로	116
6.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 경험의 상황모형	118

V. 논 의

1.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범주 및 개념에 관한 논의	124
2. 자살로 인한 사별간호	135
3. 간호학적 의의	144

VI. 결론 및 제언	146
-------------------	-----

참고 문헌	150
부 록	159
Abstract	161
감사의 글	

표 목 차

<표 IV-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IV-2>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 경험에 관한 범주화	23
<표 IV-3> 인과적 상황의 속성과 차원	90
<표 IV-4> 현상의 속성과 차원	91
<표 IV-5> 맥락의 속성과 차원	92
<표 IV-6> 중재상황의 속성과 차원	93
<표 IV-7>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94
<표 IV-8> 결과의 속성과 차원	94

그림 목차

<그림 IV-1>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89
<그림 IV-2> ‘승화되기’ 과정의 유형1(일몰형)	109
<그림 IV-3> ‘승화되기’ 과정의 유형2(일출형)	111
<그림 IV-4> ‘승화되기’ 과정의 유형3(중천형)	113
<그림 IV-5> ‘승화되기’ 과정의 유형4(정오형)	116

<그림 IV-6> ‘승화되기’ 과정의 상황경로	117
<그림 IV-7>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 경험의 상황모형	119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159
<부록 2> 면담 질문	160

국 문 초 록

사별이란 인생에서 보편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족에게 매우 심한 고통을 초래하게 하고 슬픔과 고독뿐만 아니라 분노와 죄책감등 정신적 괴로움을 안겨 줄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가족 내의 역할 구조 및 가족 내·외 관계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여타 유형의 사별과는 달리 자살로 인한 사별은 가족체계에 있어 심각한 위기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IMF를 기점으로 자살 증가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에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 즉, 기관 및 전문 인력이 거의 없으며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경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별 과정을 거치는지를 심층 파악·분석하여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 간호의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고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으로서 모두 10명이 최종 분석 대상자였다. 이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자의로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과정에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하였고 비교하기와 질문하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과정을 통하여 코딩화하였다.

근거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117개념, 30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경험은 ‘승화되기’ 과정이었고 이러한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실·충격시기 - 극복시기 - 성숙시기 - 나눔시기 라는 일련의 하위과정을 거쳐 전략을 수행하였다.

2.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 패러다임 모형

인과적 상황은 ‘자살·죽음 부정하기’, ‘자살원인탐구’이었고 중심현상은 ‘고통을 가슴에 묻기’였다. 맥락은 ‘자살·죽음 수용하기’, ‘죄의식’이었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상황은 ‘자살에 대한 편견’, ‘지원정도’, ‘고인과의 관계’, ‘사별기간’으로 나타났다. 자살로 인해 사별 가족들이 수행한 전략들은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로 나타났다. 전략수행 결과로는 ‘자기가치 터득되기’,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 ‘소망을 찾아가기’, ‘사랑을 실현하기’로 나타났다.

3. ‘승화되기’라는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일몰형’, ‘일출형’, ‘중천형’, ‘정오형’으로 나타났다. ‘일몰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을 절대적인 죄로 보기에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며 그러면서 죄의식이 매우 커서 전략 수행이 소극적이므로 ‘승화되기’가 매우 느린 경우이다. ‘일출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을 의미부여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게 된다. 하지만 죄의식이 크고 강하기에 전략 수행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면이 나타나 ‘승화되기’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중천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에 대한 의미부여가 부정적이어서 자살·죽음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죄의식이 약하기에 전략 수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므로 ‘승화되기’가 비교적 빠르게 되는 경우이다. ‘정오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

식이 약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을 의미부여하여 긍정적으로 자살·죽음을 수용하고 죄의식이 비교적 약하기에 전략 수행이 잘 되어 ‘승화되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경우이다.

4.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은 ‘승화되기’ 과정으로 자신과 가족의 자살 후 유증을 발견하고 변화하고 성숙되어 고통이 승화되는 삶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자살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충격을 받아 혼란스럽고 복잡한 자살 사별과 맞닥뜨리게 되며 자살 오명의 사회적 편견과 자기 자신의 자살 오명화로 깊은 늪에 빠지게 되어 자신 또한 죽고 싶은 심정의 고통 속에 있게 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하고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아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승화되기 과정을 거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승화되기’과정에서 지지체계의 도움은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인 지원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는 사별 가족에게 매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부모의 자살 사별을 경험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은 절실하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해나가고 제2의 자살 시행을 생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간호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국 실정에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애도 경험을 이해하였다는데 있고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을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지식체를 정립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별 관리를 하는 곳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고 자살로 인

한 사별 가족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여타 유형의 사별과는 다른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의 복합적인 사별 양상을 파악·분석하여 대상자들의 심적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 간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별’은 여의었거나 무엇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가족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초래하고 특별한 것으로서 남아있는 가족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준다(Rho, An, Han, & Kim, 1994). 또한 슬픔, 고독감뿐만 아니라 분노와 죄책감 등 정신적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야기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가족 내의 역할 구조와 가족 내부 및 외부와의 관계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Lee, 1995). 사별의 경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상실에 대한 반응인 슬픔으로 만일 일반적인 슬픔의 단계를 벗어난다면 이는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둘째는 상실로 인한 외로움이고 셋째는 어떤 종류의 죽음과 관련된 사회적 오명으로 수치감을 들 수 있다.

사별 중에서도 자살로 인한 사별은 그렇지 않은 사별에 비해서 보다 복합적인 양상과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보여 가족 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살로 인한 사별은 다른 유형의 죽음 후 겪는 슬픔과는 다르며 그러한 슬픔은 더 힘들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Clark & Goldney, 1995; Hauser, 1987; Knieper, 1999; Range, 1998; Sprang & McNeil, 1995; Worden, 1991). 구체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별의 특징은 슬픔반응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냈는데, 첫째, ‘왜 자살하였는가?’라는 죽음의 의미를 둘러싼 의문들 때문에 더욱더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Grad & Zavasnik, 1996; Silverman, Range, & Overholser, 1995; Smith, Range, & Ulmer, 1992; van der Wal, 1990). 둘째, ‘왜 내가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로 다른 사별자보다도 죄책감, 비난, 책임 등

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Cleiren, 1993; Knovarsky, 1989; McNiel, Hatcher, Reubin, 1988; Miles & Demi, 1992; Reed & Greenwald, 1991; Silverman et al., 1995). 이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이 자살 행위를 예측,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보다 더 심하게 자책함을 의미한다. 자책한다. 셋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는가!’ 즉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거부당했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며 동시에 자살자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Barrett & Scott, 1990; Reed, 1998; Reed & Greenwald, 1991; Silverman et al., 1995; van der Wald, 1990).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별은 다른 유형의 사별자보다 강도 높고 많은 문제가 있는 슬픔을 겪게 된다.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에게 특이한 것은 자살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자기 자신의 자살 오명화이다. 즉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보다 고통을 받고 호감을 덜 주며 비난을 받고 보다 많은 수치감을 느끼므로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Callhoun & Allen, 1991). 또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노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사망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함을 볼 수 있다(Bailley et al., 1999; McNiel et al., 1988). 결과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 자신에 의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러한 요인이 사회적인 지지과정을 저해하게 되는 것 같다(Vandon, 1993). 더불어 자살로 인한 사별은 가족 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침으로 전반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가족의 자살로 인해 남아있는 사별 가족 구성원들의 자살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McIntosh(1987)는 부모의 자살 후 자녀가 자살한 가족들에게서 공통적일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자살의 진실을 은폐한 경우인 의사소통의 왜곡, 죄의식, 자살자와의 동일시로 보았다. 즉 자살을 둘러싼 깊은 가족 비밀은 많은 정

서적인 문제들에 관한 가족내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유발시켜 나중에 또 다른 충격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가족을 취약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Walsh & McGoldrick, 1991).

그러므로 자살로 인한 사별은 여타 유형의 사별과는 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자살로 인한 사별은 가족들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자살로 인한 사별의 독특성과 복합적인 양상으로 가족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게 되고 그 상처는 일정 사별기간을 거친 후 돌아오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과는 달리 평생 그들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된다. 즉 가슴에 상처를 묻고 고통 속에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이런 가족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파악, 분석하여 적절한 사별간호를 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까지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국외에서는 주로 80년대 중반쯤부터 시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구체적인 경험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체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별 과정이 진행되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실체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연구 문제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별 과정을 거치는가?’ 이다.

II. 문헌고찰

1. 연구의 철학적 배경

방법으로서의 근거이론은 Barney Anselm Strauss에 의해 개발되어졌고 미국의 Dewey의 실용주의와 형태주의, Dawin의 진화론, 독일의 Max의 변증법적 관념론을 토대로 Mead가 완성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이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Glaser & Struss, 1967).

이러한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은 인간 생활과 사회 경험 양자의 철학이자 인간 생활을 연구하는 독특한 접근이며, 상징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방법론 연구는 Glaser 와 Struss에 의해 'The Discovery of the Grounded Theory'로 발전되었다. 한편, Mead는 20세기 초 미국 심리학과 사회학을 지배하던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자아 개념과 의식 개념에서 탈피하여 자아의 발생을 실천적인 사회경험, 의식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고 Blumer(1969)는 자아 개념이 행동과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생성하는 것이라고 보아 진행되고 있는 상호작용 또한 상황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자아 개념을 측정하려는 양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자아개념이 가지고 있는 생성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파악해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1969년 Blumer에 의해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확립되어졌는데, 그에 의하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다음의 3가지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 인간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행위 한다. 여기서 사물이란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인간 혹은 기관, 이상, 타인의 행위 혹은 이러한 것들의 복합체일 수도 있다. 즉, 인간이 상호작용 하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 둘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이는 사물 그 자체가 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의미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님을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의미는 인간의 해석과정(interpretative process)을 통하여 다루어진다. 즉 의미는 수정되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함을 나타내며 이는 인간을 어떤 자극에 대하여 무조건 반사하는 소극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를 유지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매우 적극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은 상징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에 커다란 강조점을 둔다. 인간과 인간이 창조하는 세계의 본질은 인간의 상징능력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징 창조와 사용의 능력으로 인해 사회조직의 유형이 창조되며, 유지, 변동된다. 더불어 인간들은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 상징을 이용하며 상징을 통해 상대의 의사를 읽고 서로서로의 반응을 예상하며 적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들은 커다란 체제보다는 행동하는 개개인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하게 되고 분석의 방향이 개인에서부터 사회 집단과 조직으로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교섭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은 인간사회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을 향해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므로 이 같은 사회적 교섭이 주로 상징적 수준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 상대방의 지시를 해석하는 이원론적 과정을 포괄하는 방대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활동을 서로 조화시키며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최영희 편저, 1993). 더욱이 상징적 상호작용은 이른바 ‘뿌리가 되는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미지들은 인간 집단이나 인간, 인간 행동의 상호 연관 등 본질을 묘사하며 연구와 분석의 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그 철학적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은 인간의 행위와 상호 행위 과정 혹은 의미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방법으로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경험 과정을 탐색하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2. 자살로 인한 사별의 이해

문헌에 나타나 있는 자살로 인한 사별에 관한 내용을 특징, 애도과정, 문제와 영향요인, 반응, 적응 등으로 살펴보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자살로 인한 사별의 특징 및 애도과정

첫째,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죽음의 의미를 둘러싼 의문들 때문에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다(Grad & Zavasknik, 1996; Silverman, Range, & Overholser, 1995; Smith, Range, & Ulmer, 1992; van der Wal, 1990). 또한 이들은 고인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애쓴다. 둘째, 여타 유형의 사별보다 죄책감, 비난, 책임을 더 많이 느낀다. 즉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고인을 잘 못 보살폈거나 방기하여 자살이 일어났다고 느끼기도 하며 자살 행위를 예측, 예방하지 못하는데 대해 자책한다(Cleiren, 1993; Knovarsky, 1989; McNiel, Hatcher, Reubin, 1988; Miles & Demi, 1992; Reed & Greenwald, 1991; Silverman et al., 1995). 셋째,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부당했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며 동시에 자살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Barrett & Scott, 1990; Reed, 1998; Reed & Greenwald, 1991; Silverman et al., 1995; van der Wald, 1990). 반면, Cleiren과 Diekstra(1995) 그리고 McIntosh(1993)와 van der Wal(1990)은 자살로 인한 사별이 다른 유형의 사별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살 후 겪는 슬픔은 다른 상

실을 경험한 슬픔과는 매우 다른 경험으로 지각되고(Alexander, 1991; Bolton, 1983; Wertheimer, 1991) 그러한 슬픔은 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을 갖는다(Clark & Goldney, 1995; Hauser, 1987 ;Knieper, 1999; Range, 1998; Sprang & McNeil, 1995; Worden, 1991).

임상적 관찰과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자살로 인한 사별은 특별하게 스트레스 받은 사별을 경험하는 것이고(Moore & Freeman, 1995) 복잡한 사별 경험으로 그것은 자살의 이유와 죽음에 대한 비난, 낙인으로 인한 것이며 감정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라 할 수 있다(Dunne, 1987). 자살로 인한 사별은 가족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고립화 시키고 사회적 연결망 구성에도 실패하게 하며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비난하게 한다(Moore & Freeman, 1995). 또한 슬픔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Stroebe et al. 1993). 그 중에서도 성인 자살 사별자들은 애도 과정 중에 어린 자녀들의 상실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므로 그들에게 자살 사별과정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무력감, 죄의식을 떨쳐 버리게 되었다(Murphy, 1995). 하지만 이들은 어린 자녀들을 돕는데 있어서 자살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을 제공하고 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데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갖는다(Demi & Homell, 1991).

또 다른 연구에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곤경, 갈등 및 응집력과 같은 변수에서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Nelson & Frents, 1996)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보다 복잡한 사별을 경험하였으며 사별자 자신들이 자살에 노출되었다(Sante' Bien-etre Canada, 1987). 이러한 자살은 보다 취약성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Littrell, 1998). 이렇게 자살로 인한 사별은 몇 가지 면에서 독특한 경험(McIntosh, 1987)이고 다른 유형의 사별자와는 다른 경험으로, 광범위하게 당황, 거절, 어떤 것에 대한 처벌로 인식하며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보다 심리학적 장애를 가지게 되고 수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자살로 인한 사별의 특징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애도 과정을 정리하면,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죽음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놀라움 속에서 복합적인 사별경험을 하게 된다(Wroblski, 1985). 즉 사별 가족들은 자살에 관하여 아는 것, 충격, 믿지 못함, 분노를 느꼈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도 대부분 한동안 울부짖었고 타 유형의 사별에 비해서 3배의 상실로 슬퍼했으며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고 지속적인 분노, 자살 생각(Horowitz, 1986) 등을 가졌다. 또한 초기 충격에 이어 오랜 시간 동안 자살의 이유를 찾는데 몰두했고 자살 사건은 낙인이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분개하면서도 동시에 심한 죄의식을 가졌으며 이러한 죄의식은 결국 수치감과 연결되어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손길에도 방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망구성에 걸림돌이 되어 더욱 힘겨운 애도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2) 자살로 인한 사별의 문제와 영향요인

자살로 인한 사별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내 의사소통유형, 갈등 해결, 응집력 및 친밀도, 세대간의 관계, 가족 발전과제(McNiel et al., 1988)등으로 이런 것들은 자살이 다른 유형의 사별보다 훨씬 힘들게 됨을 말해준다. 특히 자살을 둘러싼 가족 비밀은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에 관한 가족내 의사소통에 부작용을 끼쳐 이후에 또 다른 충격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취약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Jordan외(1993)는 상실, 특히 자살과 같은 충격적인 사망이 가족발달과정, 의사소통유형, 자녀 세대로의 가족관 전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강조했고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일반 가족에 비해 일탈된 가족 내 상호작용 형태와 애착관계의 붕괴를 보여주며(Brent, 1995; McIntosh, 1987; Mosciki, 1995; Samy, 1995) 탈기능적인 가족

환경이 자살자의 조기 정신사회적 발달 장애 요인들과 자살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Adam, 1990). Nelson과 Frants(1996)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곤경, 갈등 및 응집력과 같은 변수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Doun과 Morrisu-Vidners(1988)는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떨어진 경우가 가까워진 경우보다 많음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Brent와 Morriss(1996)의 연구에서는 형제, 부모가 자살한지 6개월 후에도 형제, 자매,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높음을 발견했고 1년 후에도 어머니의 우울증이 계속 높았으며 특히 12개월과 37개월 후에도 형제·자매의 슬픔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McIntosh(1987)는 부모 자살 후 자녀가 자살한 가족에게서 공통되는 세 가지 영역을 강조하였는데, 정보/의사소통왜곡(자살의 진실된 상황의 은폐), 죄의식, 자살자와의 동일시였다.

자살 사별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살과 다른 상황으로 사망한 경우를 비교할 때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이 보다 더 위험했고(McNiel, 1988) Kaprio등(1987)은 1개월 기간 동안 남편의 자살로 인해서 배우자가 자살한 2case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Shafii(1988)는 12-19세의 자살자의 가족, 친구, 선생님들을 인터뷰한 결과 ‘자살에 대한 노출 경험’ 혹은 친척, 친구들의 자살 행동은 취약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밝혔다. 이처럼 자살로 인한 사별은 사별자의 자살 행동과 실행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Blumental, 1990).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살로 인한 사별은 인간관계의 상실과 애착관계의 파괴를 일으켜 또 다른 자살 위험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고(Heikkinen et al., 1993) 조실부모의 경우는 나중의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Brown, 1998). 또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유전적 요인들은 자살, 우울증, 양극적 정신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며(Kety, 1990) 특정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변수와 가족 체계 변수들 역시 가계적 유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ent et al., 199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살로 인한 사별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경험의 사별이다. 특히 충격적인 사망이 가족발달과정, 의사소통유형, 자녀 세대로의 가족관 전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이 문제시되고 특별히 가족을 둘러싼 자살의 비밀스러움이 가족 내의 정서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쳐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살로 인한 사별의 문제는 이전의 가족 내의 탈 기능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의 장애, 애착관계등과 관련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자살로 인한 사별 후에는 사별자의 자살 행동과 실행의 위험이 초래되는 독특한 경우로, 이러한 위험성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변수, 가족 체계의 변수들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의 사별후의 문제와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사별자의 자살 실행 위험에 주목하여야 하겠다.

3)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반응 및 적응

사회적 반응을 보면,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은 여타 유형의 사별자들보다 더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다. 첫째,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보다 고통을 받고 호감을 덜 주며 보다 비난받고 수치감을 느낀다(Calhoun & Allen, 1991). 즉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반적 오명이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에게 문제시됨을 알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은 결국 사별자들을 돕고 싶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고(Calhoun, Selby & Abernathy, 1996) 이런 태도들은 사별자들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Range, 1998). 둘째, 사별자 자신들이 갖는 스스로의 낙인이다. 이것은 자살 오명화(Durn & Morrisu-Vidners, 1988)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고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를 모른다고 했으며(Van Dongen, 1993)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살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으로 괴로워했고(Bailley, Kral, & Dunham, 1999)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데에 심리적 부담감이 컸다고 했다(Range & Calhoun, 1990). Wager와 Calhoun(1991)은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이 충격으로부터 보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며(Farberow et al, 1992) 자신들의 상황을 지지자들에게 고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Wager & Calhoun, 1992). Wegner 와 Lane(1995)은 자살과 바이러스 질환으로 사망한 부모들의 아이들에게서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은 자살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했다. 또 Rudestam과 Imbroll(1983)은 자살, 사고사, 질병 연구에서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의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보다 어렵고 가족들의 경우에도 감정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자기 자신의 자살 오명화로 인해서 사회적 지지가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에게 커다란 역할을 함(Lehman, Elard & Wortman, 1986)에도 불구하고 지지받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고 했다. 즉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당황해하고 어색해하게 되고 지지자들은 이런 행동들 때문에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을 접촉하는 것이 매우 힘들며 현재, 사회적 규범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Calhoun, Abermathy, & Selby, 1986). 결국,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은 타인과 자신에 의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런 요인이 사별자들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Van Dongen, 1993).

적응과정을 보면, Pennebaker와 O'heeron(1984)은 자살 후 1~2년이 경과한 20명의 부인들과 사고사의 경우에서, 죽음 이후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그들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반면 신체적 건강, 대처전략, 죽음에 관한 논의에서는 반응률에 관한 차이가 없었으며 죽음에 관한 느낌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Shafii(1988)는 자살 후 5년이 경과해서 적응정도는 반은 좋게 반은 보다 나쁘게 나타났다고 했고, McNeil(1988)의 연구에서 죽음 후 4~20개월 후의 13명의 자살로 인한 사별자와 사고사인 경우에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기능, 죽음 전과 후의 지지적 연결망에 관하여 보면, 죽음 전과 후의 기능 차이, 삶의 스트레스 반응 경험정도, 심리학적 증상에 차이가 없었고 차이를 보인 것은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이 보다 감정적으로 멀어졌고 가족들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모두 죄의식과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Demi(1984)의 연구에서는, 죽음 직후와 1~2년 후를 비교한 결과 중요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다 죄의식, 분개함, 사회적 고립을 보였다. 자살 전 남편의 반 이상은 자살 시도가 있었고 그들의 40%의 아내들과는 이미 분리 상태를 보였고 남편이 죽기 전에 감정적 애착이 위축되었으며 사회적 삶과 정체성이 분리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살로 인한 사별은 주변에서의 부정적인 시선과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낙인이라는 자살의 오명화로 인한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음을 볼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비밀로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더욱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죽음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표현을 하는데 방해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함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고 이런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그들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도움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여 사회적지지망에 실패를 가져오게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런 상황이 악순환 되어 사별자들을

소외, 고립시키게 되므로 사별자들은 더욱 힘든 사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의 복합적인 사별 경험을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의 부정적 시선과 사별자 자신의 자살오명을 불식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과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의 관리 방안 모색이 절실함이 요구된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근거이론이란 실제에 근거한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으로, 질적 자료로부터 그들의 관계에 관한 명제와 범주를 개발시키기 위해 가장 고도로 발달되고 명백히 성문화된 방법으로 다른 질적 연구방법과는 또 다른 철학적 배경을 지니는데 현상의 의미, 과정에 초점을 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인간 경험의 본질 현상에 있어서의 능동적 역할 변화와 과정, 조건, 의미, 행위의 상호관계를 중시한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근거이론은 실제자료로부터 이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선행연구들 간의 일치점이 적고 기존의 이론이나 model이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할 때 실제 자료에서 근거된 실제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어진다(Strauss & Corbin, 1998). 특히 근거이론 연구 방법의 자료 분석은 다른 질적 연구 예를 들어 문화기술 연구 방법이나 현상학적 연구 방법 등과는 다르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 연구 방법의 자료 분석 역시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상 기술과정을 포함하지만 근거 이론 방법은 오히려 자료의 해석에 치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연구자는 보다 높은 단계의 추상화에 도달하

여 개념간의 포괄적 관계를 발견하며 자료를 주제에 따라 서론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분석의 초점은 실제 자료에 기반을 둔 이론의 개발에 있으며, 이 과정은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이론적 구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연구 방법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근거이론은 실제에서 이론을 발달시키는 과정으로 간호전문직과 같은 경험적 세계에 존재하는 학문에 특히 필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살로 인한 가족의 사별 경험 과정을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여 실제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자 훈련 과정

본 연구자는 연구의 방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박사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2학기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 및 이론개발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에도 참석하였다. 또한 이론적 민감성을 위하여 자살과 가족에 관련된 논문과 책을 탐독하였으며 T.V와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더불어 정신보건간호사 과정을 통해 정신병리를 학문적으로 습득하였으며 상담훈련과 인간관계 훈련을 통하여 의사소통기법을 익혔고 상담심리과정을 이수하였다. 면담 도중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모호한 면담 내용은 면담 당시 질문을 하여 확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자살로 인한 사별 경험을 가진 가족을 인터뷰하여 자살 개념 분석을 하였고 이론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한 편 작성해보기도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고 이론적 민감성을 위하여 자살 및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에 관련된 문헌을 탐독하고 자살 사별을 경험한 가족을 인터뷰하여 자살에 대한 개념분석을 하였다.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하여 범주들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10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심층면담은 2003년 6월 22일부터 2004년 8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살로 인한 사별 경험이 있는 가족들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족들이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 시작 시기부터 연구의 목적,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연구에 꼭 도움을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하지만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강제성도 없음을 설명했고 면담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거듭 강조했다. 동의서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수긍한 경우에 서명하도록 했다. 자료 수집 시 참여자들에게 “힘드시겠지만, 가족의 자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면담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했으며 필사 시에도 신분 노출이 될 만한 것은 익명으로 처리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도 익명으로 참여자들의 신분 노출을 보장했다.

2) 연구 참여자 접근

연구자는 자살자가족들이 자살 자체를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한다는 사실과 자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더더욱 그들을 아프게 한다는 생각에 매우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대상자들과 첫 만남을 가지기위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심한 노력을 하였다. 가족들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화를 할 때도 전화하는 시간, 요일 등 여러 가지 분위기를 다방면으로 고려했고 일단 약속이 잡히면 첫 만남에서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고 최대한 준비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실제 면담에 들어가기 전 참여자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장소 선택에 매우 신경을 썼으며 말투나 몸가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참여자들 모두 부담되지 않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친밀감을 만들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3) 면담과정

면담장소는 미리 전화로 참여자와 의논하여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장소로 정하였는데 참여자 H는 한적한 공원 벤치였고 참여자 J는 교회였으며 그 외의 참여자는 집이었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연구목적과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녹음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동의 하에 녹음을 했으며 비밀 보장을 거듭 강조하여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였다. 또한 면담 중에 원치 않으면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면담의 시작은 “힘드시겠지만, 가족의 자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면담이 진행되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거듭 보이기도

하였고 연구자 또한 같이 울면서 녹음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저마다 자기 심정을 솔직히 보여 주었고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진행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참여자 모두 정말 힘든 상황 및 고통을 잘 극복하고 있고 또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였고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 후에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1~2회 진행하였고, 1번 만날 시에는 면담 시간을 충분히 길게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자살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포괄적인 개방적 질문으로 시작하여 편안히,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였다. 분석이 진행되면서 면담 질문도 보다 구체화되었고 시간도 적게 걸렸다. 또한 1차면담이 끝나면 바로 분석을 하여 2차면담과 다른 참여자의 면담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였다. 면담 즉시 반복하여 녹음테이프를 청취하면서 참여자들이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였고 신분 노출이 될 만한 내용을 세심히 살펴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분석단계를 따랐고 이들이 제시한 전략들을 사용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비학술적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인터넷, 잡지, 신문, 라디오, TV에서 자살에 관련된 내용과 가족, 상담 등의 용어가 있는 것을 찾아 읽었다. 또한 복수 관점에서 사건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료에서 알게 된 현상들과 참여자들의 경험이 일치하는지를 물었다. 더불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비교하며 분석하였고 연구 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따랐다. 이론적 민감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살에 관련된 논문, 관련된 책자들을 근거자료들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자살로 인한 사별 경험을 가진 가족들과 계속 만남을 가져서 그들의 생각, 말투, 행동들을 유심히 살폈다. 분석절차는 기본적으로 비교하기와 질문하기로 하였고 분석 과정은 세 가지 부호화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메모하였다.

첫째, 개방적 코딩 과정에서는 대상자와 면담한 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였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하여 단락으로도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료에 나타난 사건/상호작용에 비슷한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고 범주들은 각각 속성과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축코딩 과정에서는 각각의 범주들을 인과적 상황, 현상, 맥락, 중재적 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틀에 맞춰 분석하여 범주간의 관련성을 보았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을 순서적으로 연결하는 과정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선택 코딩 과정에서는 중심현상과 관련하여 서술적 이야기를 전개하는 Story-line 전개를 해 보았고 핵심범주를 파악했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맥락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에 따라 가설적 상관관계를 정형화하였다. 또한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사이에서 반복되는 관계에 따른 유형을 확인하고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온 모든 결과를 통합하여 상황모형을 제시함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중재적 상황 변수의 영향을 받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기위해 노력하였고 그런 진술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로부터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어떻게 이론적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의 이론을 정립시킬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자문하며 분석절차를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코딩과정, 분석을 진행하면서 차후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이론에 적합한 이론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표본추출은 더 이상 새롭거나 관련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패러다임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의 범주를 개발할 때까지 그러면서 포화 상태를 이룰 때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가족 중 부모, 배우자, 형제, 자식의 입장으로 선택하여 각각의 경우를 따로 분석하여 비교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5. 연구의 엄정성

Guba & Lincoln은 질적 연구의 엄정성(rigor)을 검증하는 요인으로 신빙성(credibility) 또는 진실성(truth value), 적합성(fitness) 또는 적용성(applicabilit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또는 일관성(consistency), 확증성(confirmability) 또는 중립성(neutrality)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거이론에서의 연구 평가기준으로 Struss & Corbin(1990)은 연구 과정의 평가, 연구 결과의 경험적 근거 평가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엄밀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1) 신빙성(credibility) 또는 진실성(truth value)

신빙성(credibility) 또는 진실성(truth value)은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즉 연구자가 인간의 현상이나 경험을 대상자가 알고 느낀 대로 발견 했는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살로 인한 가족의 사별 경험에 대하여 편견을 배제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솔직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로 인한 반응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면담 내용에 임의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지역사회에서 참여자를 직접 찾아 방문하였고 면담시에도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까지 거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말하면서 참여자들이 아파하고 통곡을 하였기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지만 참여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가 나타나면서 참여자 2명을 다시 방문하여 결과와 자신의 경험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대체로 결과에 동의하였다.

2) 적합성(fitness) 또는 적용성(applicability)

적합성(fitness) 또는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결과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와 연구자가 얼마나 자연스런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했는가를 말하며 독자들이 연구 결과를 읽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가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서 참여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살로 인한 가족의 경험이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의 입장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따로 분석한 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가 미리 범주를 강요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으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범주를 연속적으로 자료에 다시 맞추어서 기존 범주와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3) 감사가능성(auditability) 또는 일관성(consistency)

감사가능성(auditability) 또는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발자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을 때 확립된다. 즉 연구의 전개 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논리적 결정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이론

분석과정을 거침으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집에서부터 자료 분석의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 절차를 따랐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자료 수집 과정과 절차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분석 과정에서는 근거이론 연구 방법으로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협의하고 수정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다른 연구자가 비슷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본 연구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확증성(confirmability) 또는 중립성(neutr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 또는 중립성(neutrability)은 연구자와 대상자 그리고 자료와의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얻을 수 있으며 진실성, 적용성, 감사가능성이 확립되어질 때 획득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이해한 상황을 바로 질문하여 답변을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밀성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됨으로써 확증성도 획득되었다고 본다.

IV.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10명으로 이 중 두 명은 고인에 앞서 자살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10명 중 남성은 1명, 여성은 9명이었고 연령대는 20대 2명, 30대 3명, 40대 2명, 50대 1명, 60대 2명이었다. 직업은 회사원 3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성직자 1명, 일용직 1명, 보험설계사 1명, 대학생 1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7명이었고 2명은 천주교, 1명은 무교이었다. 교육정도는 대학원 1명, 대학교재학 2명, 전문대졸 1명, 고졸 4명, 중졸 2명이었다. 결혼상태는 2명은 미혼이었고 나머지 8명은 기혼이었다. 고인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인 경우 2명, 배우자인 경우 1명, 형제인 경우 4명, 자녀인 경우는 3명이었다. 자살사별 기간은 4개월에서 20년이었다(표IV-1).

표IV-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나이	직업	종교	교육정도	결혼 유무	고인과의 관계	사별 기간
A	여	43	보험설계사	기독교	전문대졸	기혼	동생	16년
B	여	27	간호조무사	기독교	고 졸	미혼	딸	15년
C	여	68	일 용 직	기독교	중 졸	기혼	엄마	20년
D	여	60	회 사 원	기독교	중 졸	기혼	엄마	6년
E	여	41	회 사 원	무 교	고 졸	기혼	동생	4년
F	여	35	간호조무사	기독교	고 졸	기혼	동생	5년
G	여	37	간 호 사	기독교	대학원졸	기혼	동생	6년
H	남	52	회 사 원	성 당	고 졸	사별	배우자	8년
I	여	21	학 생	성 당	대학교재학	미혼	딸	7년
J	여	33	성 직 자	기독교	대학교재학	기혼	딸	4개월

2. 개방코딩

개방적 코딩 과정에서는 대상자와 면담한 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였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하여 단락으로도 분석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료에 나타난 사건/상호작용에 비슷한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고 범주들은 각각 속성과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117개의 개념과 30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상위 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표 IV-2).

표Ⅳ-2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에 관한 범주화

개 념	하위범주	범 주	패러다임
자살이 믿기지 않음, 죽음을 수용하기 어려움	자살·죽음거부	자살·죽음 부정하기	인과적 상황
고인과 갈등 관계인 사람을 증오했, 고인을 용서 못함	책임전가	자살원인탐구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불화, 대화부족, 무관심	자살 원인 추정		
자살 충격, 자학하기, 자살 충격의 죄사슬에 쫓겨 묶임, 표현 못하는 아픔 끌어안고 살기,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막막함, 죽고 싶은 심정, 희망이 없음, 정신적인 문제 야기, 자살 생각을 가짐,	충격에 휩싸임	고통을 가슴에 묻기	중심현상
안타까움, 불쌍함, 애절함, 그리움, 빈자리, 서러움	슬픔		
자살에 관해 감춤, 사람을 피함, 우울, 피해 의식, 열등의식,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 쉽게 상처 받음, 방황함, 움츠러들음, 늘 슬픔이 존재함	자살여파		
수치심, 짐이 됨, 창피함, 집안의 치욕	수치스러움	죄의식	맥락
내 탓, 과소평가, 원망스러움	분노		
고인의 선택 수용하기, 순응하기, 자살 심정을 이해하게 됨, 죽을 운명	자살 받아들이기	자살·죽음 수용하기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에 대한 편견, 자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자살에 대한 편견	중재상황
차원이 다른 죽음, 지옥에 떨어짐, 죄를 짓는 일	자살 오명		
4개월, 4~6년, 7~8년, 15~20년	사별 경과 시간	사별기간	
부모입장, 배우자입장, 형제입장, 자녀입장	각각의 입장	고인과의 관계	
가족의 도움받기, 주변인의 도움받기, 신앙의 도움받기	지원체계의 도움	지원정도	
가족의 분열, 자살 사별자의 부정적 특성, 제도적 장치 미흡	지원체계의 결여		
경제적으로 쪼들림, 경제적으로 넉넉함	경제적 여건		

개 념	하위범주	범 주	패러다임
술로 잊기, 참아내기, 잠시 떠나기, 생각하지 않기, 회피하기, 한 가지 일에 열중하기	추스르기	인내하기	전략
회사 생활에 충실하기, 일로 해결하기	일하기		
희망적인 생각하기, 즐거움 찾기, 바쁘게 살 기, 자기 개발하기, 대리만족하기	활력소 갖기	희망 갖기	
적극적이기, 열심히 살기, 성실하기, 현실적이기, 책임감 갖기, 역할 다하기	현실 충실	현재에 충실하기	
아픔 나누기, 표현하기, 친구 만들기	마음열기	함께하기	
도와 달라고 하기, 도움주고받기	사랑 주고받기		
기도하기, 성경읽기, 교회에 나가기,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찬송가 부르기, 내세에 대한 기대	신앙생활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	
자살한 가족보다 나를 더 생각하기, 가족의 자살을 초월해서 살기, 나의 미래 준비	자기 찾기	자기가치	결과
자신감 증진, 성격이 원만해짐, 대인관계가 좋아짐	자기 성장	터득되기	
애처로운 우리가족, 자살로 인한 상처, 기일 증후군	가족의 자살 후유증	가족의 소중함	
서로 아픔을 수용하게 됨, 남은 가족에게 최 선을 다함	가족 포용	인지되기	
삶의 의미를 알게 됨, 자살할 생각 절대 안 하기, 삶이 변화됨	의미 있는 삶 살기	소망을 찾아가기	
어려움을 통해 행복을 알게 됨, 인간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짐, 겸손해짐	성숙한 삶		
어려움을 같이함, 타인의 아픔을 헤아림, 도 움을 주고 싶음, 진정한 사랑을 베풀게 됨	사랑 나누기	사랑을 실현하기	

1) 자살 · 죽음 부정하기

참여자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자살했을 때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 너무도 뜻밖의 죽음이기에 그런 죽음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한 충격과 당황스러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토록 힘들었을까?’ 등의 죽음의 상황과 원인에 대한 추정을 머릿속에 되뇌이며 계속해서 목 놓아 울부짖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생겼을까?’, ‘무엇이 이렇게 되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고 사별자들 중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하는 생각을 하며 용서할 수 없었음을 더욱 강조하며 매우 고통스러움을 표현했다.

이러한 경험은 ‘자살이 믿기지 않음’, ‘죽음을 수용하기 어려움’으로 개념도 출하였고 ‘자살 · 죽음거부’라는 하위범주로 묶였으며 ‘자살 · 죽음 부정하기’로 범주화하였다.

♥ 자살이 믿기지 않음

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와 조카들만 앉아있고 오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살을 해서 영안실 냉동고에 있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았지요. 꿈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휴가를 내서 엄마를 찾아갔지요. 홍수가 심해서 물난리가 나고 수재민이 생기고 했던 시기라서 기차가 매몰되고,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가 상복을 만들고 침통한 표정으로 조카들은 아빠친구들이 주는 용돈을 받고 좋아서 하하 호호 웃고 있고 정말 믿기지 않았지요(참여자A).

황당 했구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했다. 어떻게 자식들에게 큰 짐을 지우고 갈 수 있을까.. 사형선고를 받으셨지만, 암이라는 것의 고통이 매우 컸

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지만, 믿기지도 않았지요(참여자J).

♥ 죽음을 수용하기 어려움

고모 그런데 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아빠 아프지 않았잖아. 피가 나야 돌아가시는 거잖아. 하며 묻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만 아프고 눈물만 나오고..나도 몰라 나도 몰라 왜 돌아가셨는지 나도 몰라.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조카들을 끌어안고 울다가 내가 기절을 했지요(참여자A).

2) 자살원인탐구

참여자들은 자살 충격의 반응으로 죽음에 대해 믿지 못하며 당황스러움을 갖는 반면 죽음에 대한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의문을 갖고 찾으려고 한다. 또한 그러면서도 죽음과 관련된 사람을 미워하기도 증오하기도 하기도 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고인을 원망하며 분노함을 갖기도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즉 책임을 전가시킴으로 심리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고인과 갈등 관계인 사람을 증오함', '고인을 용서 못함'으로 개념 도출하였고 '책임전가'라는 하위범주로 묶었으며 '자살원인탐구'로 범주화하였다.

♥ 고인과 갈등 관계인 사람을 증오함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형제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집안을 몰락시키다 시피하고 부모에게 홀대하고 병든 아버지, 며느리가 해 드리지 않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몸무게가 37kg이었었으니까.. 아이들은 아무 것도 모르

고 자라는 거지요(참여자A).

남편은 아들과는 따뜻하게 오순도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언제인가부터 술만 먹으면 소리를 지르곤 했어.. 이해할 만한 것이 속을 표현할,, 스트레스 해소할,, 뭔가가 없었으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싫어하는,, 뭔가 대화가 없는, 정말 아들과 남편은 맞지 않는 성격이었지(참여자D)..

♥ 고인을 용서 못함

자살하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자살 한 것이라서 아빠도 용서할 수 없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남은 식구들에게 상처주고 하나님에게도 죄 짓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해쳤으니까요. 잘못된 거야. 나는 싫어요. 우리들도 힘들게 했구요(참여자B).

아마도 아직도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하여튼 아직도 용서가 안돼요. 우리 집 안 어르신들은 오히려 내가 용서를 못한다며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나를 위로하는데... 나는 용서 못해요(참여자H).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왜 자살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원인을 추정하게 된다. 그러한 원인을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구성원 제 각기 삶에 지쳐서 혹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보기에 급급한 현실에 처해 있어서 서로 챙겨주거나 돌볼 수 없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살면서도 서로 간의 대화 부족, 무관심으로 인해 서로의 입장과 처지, 힘들어하는 부분을 알아주고 헤아리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살할 당시의 상황이 가족 모두에게 있어서 제각기 힘들었으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더욱 크게 갖기도 하며 울부짖음으로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불화', '대화부족', '무관심'으로 개념도출하였고 '자살원인추정'이라는 하위범주로 묶어서 '자살원인탐구'로 범주화하였다.

♥ 경제적 어려움

그 애는 학자 스타일로 늘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우리 집은 그 애를 뒷받침해 줄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항상 쪼들리는 살림이었으니까. 그 때 당시만 해도 우리 집 세 준 사람이 어려워 밥을 비워 달라고는 못하고 우리 뒷집 밥을 빌려 내가 밥을 날랐으니까(참여자D).

그런 문제를 해결 해 줄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빠가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 모든 부모에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힘들 때 견딜 수 없을 때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형제에게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하라고..(참여자A)

♥ 가족의 불화

남들은 아버지가 아들과 다정다감하게 함께 얘기도 잘 한다고 하는데.. 무심한 남편.. 직장 다니지 않으면 정말 아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남편.. 울면서.. 지금도 가슴 아파.. 우리 집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 그런 환경에서는.. 결혼을 했었더라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뭐가 탈출구가 없었어(참여자D).

올케가 들락거리면서 오빠가 돌아가시기 1달 전에 이혼을 했다는 하는 거예요.

나는 강원도 정선에 6월 달에 결혼 살림을 갖추고 가게 되었고 추석 후에 결혼을 하려고 걱정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지요. 나에게 아버지 역할을 했던 오빠가 이혼을 했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참여자 A).

♥ 대화부족

아빠랑은 거의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섭기도 했고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시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일 있고나서 지금은 아빠랑 얘기 많이 하지요(참여자I).

오빠와 그 때 대화를 좀 나누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먼 곳에서 생활 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가정으로서의 책임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남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자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참여자A)

남편은 아들과는 따뜻하게 오순도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언제인가부터 술만 먹으면 소리를 지르곤 했어.. 이해할 만한 것이 속을 표현할,, 스트레스 해소할,, 뭔가가 없었으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싫어하는,, 뭔가 대화가 없는, 정말 아들과 남편은 맞지 않는 성격이었지(참여자D),

♥ 무관심

가족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그냥 그냥 무심히 살았지요.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더라구요. 사실 내가 막내여서 그런 생각을 할 것도 없을 텐데요. 사실 나에게도 20대부터 30대인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던 나의 삶,, 가족이지만 나 살기에 급급한 악순환의 상황이었죠(참여자F).

3) 고통을 가슴에 묻기

참여자들은 자살 소식을 접했을 때 모두 놀라고 당황스러워했으며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때의 표현은 “굉장한 충격이었지요”, “심적 고통이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지요”, “쇠사슬로 묶인 듯한 느낌이었지요” 등등이었다. 또한 그러한 충격이 있는 후 죽음에 의한 단절로 오는 두려움과 자살 충격에 따른 후유증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픔은 다른 사별과는 달리 복합적이고 혼란스러운 죽음에서 오는 자살로 인한 사별의 독특한 양상인 것이다.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정상적인 회복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오랜 시간 동안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살의 충격에 따르는 반응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자살을 막을 수 없었다는 자책감을 더욱 크게 갖게 되어서 자신을 무능력하게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막막하게 느끼며 죽고 싶은 심정으로 표현하고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희망 없고 기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살 생각을 가짐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고인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 상처를 안고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살 충격’, ‘자학하기’, ‘자살 충격에 쫄쫄 묶이기’, ‘표현 못하는 아픔 끌어안고 살기’,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막막함’, ‘죽고 싶은 심정’, ‘희망이 없음’, ‘정신적인 문제 야기’, ‘자살생각을 가짐’으로 개념도

출하였고 ‘충격에 휩싸임’라는 하위범주로 묶어 ‘고통을 가슴에 묻기’로 범주화 하였다.

♥ 자살 충격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나와 오빠랑은 성격이 잘 맞지 않았고 생각도 틀렸지만,, 나 잘되라고 오빠에게 매도 많이 맞았어요(참여자F).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뜻밖의 사고 소식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딸을 잘 지켜보고 있는데,, 애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연습장을 보게 되었는데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지요. 내가 볼까봐 지우개로 지우긴 했는데,, 자국이 있으니까 나도 나지만,, 아들, 딸이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요(참여자H).

고시원에서 병원 다니며, 대학원 여름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나는 IMF로 병원이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작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언니에게 전화가 온 것이죠. 오빠가 자살을 했다고.. 고시원 방에서 거의 미친 듯이 통곡하며 울었어요(참여자G).

♥ 자학하기

고통의 멍에를 벗어나려고,,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자학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아버지의 옆을 지키고 있었어야 하는데,, 전날에 아버지와 대화 유언이 되었다니..(참여자J)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고 하면 참 안됐다고 표현하는 정도이지만 나는 정말로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죽음을 기피하고 그러는 그런 습성을 가진다고나 할

까요. 아무튼 힘든 내 모습을 보게 돼요.(참여자B)

♥ 자살 충격에 공공 묵이기

아주 이따 만한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구.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오는 오빠의 충격적인 죽음, 그것이 나를 쇠사슬로 공공 묵은 거지요. 거미줄로 나를 감았지만 하루 이틀 한줄 두 줄로 감았지만 많은 세월 동안 그것으로 상심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그걸수록 온 몸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참여자A).

♥ 표현 못하는 아픔 끌어안고 살기

그 때는 가슴이 불안하고 앰블런스 소리만 들어도,,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애쓰는 거지요. 아마 이런 상처는 죽을 때 까지도 치유되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잊어버리려는 맘 때문에 덜 한 것이지요(참여자E).

자살한 사람도 불쌍하고 애통할 일이지만 거기에 남아 있는 부모, 형제, 자식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표현 못하고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참여자A).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고 아프다 못해 쓰려. 자식은 가슴을 뜯어가, 말도 못했지(참여자C).

마음 한 곳에 묻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힘들었을 때마다 불쑥 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야 하는데...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들도...(참여자G)

♥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자식 키우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봐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잖아요... 지금도 누가 자살했다면 가슴이 쿵쾅거려요. 지금도...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E).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 왜냐하면 그 고통스런 모습이 계속 생각날까봐서, 정말 무서웠고 정을 떨려고 그랬는지.. 그 끔찍한 상황이 너무 싫어서,(참여자D)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의 공포인 것 같아요. 심한 스트레스, 특이한 행동, 침을 뱉거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참여자B).

♥ 막막함

앞이 캄캄하고 누구에게 의지할 데도 없구,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지. 손주 세 끼들을 돌 보아야 하는데, 캄캄하고 살길이 막막하고 같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지. 하나님을 원망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참여자C).

매일 밤 맥주를 사들고 들어가서 텔레비전 보면서 자꾸 일어나구 했어요. 왜냐하면 맨 정신이 싫어서요. 고통스런 기분을 없애구 싫어서요. 너무너무 막막해서요. 죽지는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술을 먹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고 살기는 막막하구.. 그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B)

♥ 죽고 싶은 심정

나는 그냥 무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였어요. 나

도 힘들어서 죽고 싶었거든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사이코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도 자살이지만 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죠(참여자B).

살맛이 나지 않았지. 우리 아들, 친구들을 보면.. 딸들은 필요 없지. 딸들은 시집가버리니까... 살기 싫었지. 막내딸만 아니었으면... 막내딸을 보살피지 않으면 아들처럼 될까봐서..(참여자D)

♥ 희망이 없음

일하고 들어오면 힘이 없지. 재미 없구, 며느리가 있어, 손주가 있어, 아들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따르는, 반기는 아이들이 있어... 직장 사람들 중에 아들 둘이 있는 이는 희망이 있는 것 같더라구(참여자D).

♥ 정신적인 문제 야기

자살을 많이 생각하다보니 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사이코 같은 느낌. 남들은 무심코 넘어가는데 나는 혼자서 고민에 빠져서 캄캄한 데서 혼자서 있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참여자B).

♥ 자살 생각을 가짐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는다고 하면 아마 오빠와 같은 방법으로 죽을 소지가 많겠죠(참여자E).

아마도 자살은 전염병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빠도 그렇게 죽었으니.. 하면서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참여자B).

참여자들은 자살자의 빈자리를 느껴 공허감을 갖게 되고 늘 슬픔이 가슴에 존재하며 쓸쓸함, 안타까움, 서러움에 복받쳐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또한 그리움이 가슴에 솟구칠 때에는 혼자서 소리 내어 울부짖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자신의 고통을 절규했다. 특히 내적 슬픔은 사별기간이 초기일수록 그리고 친밀도가 높을수록 컸으며 어머니인 경우에는 기일 증후군을 앓을 정도로 기일이 가까이 오면 신체적, 심리적인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슬픔은 주로 사망한 시기의 계절, 죽은 시기와 비슷한 환경이 될 때 더욱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다. 참여자들은 고인이 자식인 경우, 부모인 경우, 형제인 경우, 배우자인 경우 모두 빈자리를 느껴 공허감을 가졌는데 특히 고인이 부모인 경우와 배우자인 경우는 그들의 역할이 자식인 경우와 형제인 경우에 비해 보다 중요한 자리에 있기에 역할 상실로 인한 슬픔이 더욱 컸다. 한편 고인이 자식인 경우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안쓰러움과 후회함, 애절함은 그 무엇보다 슬픔을 가중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죽은 자식이 비중이 컸을 때, 자살한 아이의 친구들이 인사할 때,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을 때,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집에 부부만 남게 되었을 때 더욱 슬픔이 컸고 고통스러워했다.

이러한 경험은 ‘안타까움’, ‘불쌍함’, ‘애절함’, ‘그리움’, ‘빈자리’, ‘후회함’, ‘쓸쓸함’, ‘서러움’의 개념으로 도출하였고 ‘슬픔’으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고통을 가슴에 묻기’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안타까움

나는 성경책을 보다가 졸았구, 아들은 약을 먹은 거지. 그 순간을 넘겼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죽게 되었던 거지. 또 약을 먹었으면 빨리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는데 응급조치한다고 소금물을 먹이고 했던 거지...
(참여자C)

그 때 내가 좀더 돌봤어야 했는데.. 병원에서 2교대 하느라 나도 너무 힘들어서.. 집에 자주 들르지 못한 것이.. 엄마가 나에게 좀 더 자세히 오빠의 상태를 말해주었더라면.. (참여자G)

♥ 불쌍함

예전에 배 타러 갔을 때도 힘들게 그 곳에서 나왔더라구. 나는 여기서 살기 싫어요. 군수라도 해 먹고 죽을 거라구. 1달을 겨우 줄라서 나오게 되었다는데... 돈 한 톨주지 못하고 고생고생 하다가, 너무 불쌍하고 불쌍해서...(참여자D)

어렸을 때 우리 집 형편은 더 없이 어려웠어요. 그 때 오빠가 모아둔 돈으로 밀가루를 사서 칼국수로 밥을 대신했던 기억, 언니, 오빠는 거의 새 옷 없이 남의 것을 얻어서 입었어요. 어려서부터 고생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간 것이지요. 죽음으로...(참여자G)

♥ 애절함

지금도 그 뒷모습이 선하지. 힘없이 고시원으로 가는 마지막 모습. 조금 돈이라도 쥐어주지 못하고 보낸 것이...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시병을 얻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너무 힘들어하던 아들의 모습...(참여자D)

♥ 그리움

그것은 세월도 못 말려요. 기도하고 울어요. 오빠에 대한 추억이 생각이 날 때면... 오빠가 잘 해 주었던 일, 못해 주었던 일, 오빠가 반듯한 결혼 생활을 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오빠가 보고 싶어요. 그걸 때마다 다짐을 하지요. 오빠가 비빔밥, 상추쌈을 좋아 했는데... 오빠가 생각나서 그것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참여자A).

♥ 빈자리

오빠가 죽고 나니까 모든 친정 일에 대한 부담이 나에게 오는 것은 사실이었지요. 오빠가 있었을 때는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책임감 같은 것... 나는 빨리 긍정적으로 잘 이겨낸 거지요(참여자E).

오빠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그런 생각... 뭔가 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특별하게 한 일은 없지만, 그래서 혼자 살려고 했지요.(참여자F)

♥ 서러움

집안 일, 반찬 등등 하지 못하고 시달리게 되는데 며칠 가는 거예요. 5월은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스케줄이 많아요. 그냥 뭘지 모르게 쓸쓸하고 서럽고 서운하고 내가 죄인인 것 같은 죄책감에 나를 자학하고 있어요(참여자A).

참여자들은 자살 충격의 반응으로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단절감은 결국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끊어버리거나 대인 관계를 기피함으로써 표현하게 된다. 대인기피증이 있게 되면서 혼자서 쓸쓸하고 우울한 감정을 더욱 느끼게 되어 대부분 우울증상이 나타나는데 성인이 된 자식을 잃은 부모는 보다 심한 고통을 표현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자식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자신들이 남에게 죄인의 자녀로서 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서 위축되었고 방황하는 삶을 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생활에서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를 야기하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감정표현을 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특히 사별 초기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인 생각, 열등의식 등을 가졌다. 또한 이들은 자살 사실을 감추고 숨기

기에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자살에 관해 감춤', '사람 피함', '우울', '열등의식', '쉽게 상처 받음',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 '방황함', '움츠러들음', '늘 슬픔이 존재함'으로 개념 도출하였고 '자살 여파'라는 하위범주로 묶었으며 '고통을 가슴에 묻기'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자살에 관해 감춤

엄마는 혼자되신 것만으로도 수치로 생각하셨는데,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라서, 사실 엄마는 아빠가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했거든요. 교회의 권사님이셨지만 거짓말 한 것이죠. 친한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러시죠. 많이 외로움 타시고 저에게 많이 기대시고 의지 하시죠(참여자J).

이 번 일이 있기까지 우리 식구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할 필요도 없었구요. 교회에서 오빠 장례 치러 줄 때 목사님은 아셨는지... 아무도 몰랐으면 하지요. 특히 시댁식구들은 계속 몰랐으면 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친정과 시댁이 가까이 있어서요(참여자G).

♥ 사람 피함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그래서 나 할일만 찾아서 하고 집에 와요. 정리정돈도 되지 않고 둥둥둥 떠있는 것 처럼요(참여자A).

오빠가 죽고 난 후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나의 여건은 엉망이었고 사람들 자체를 만나기가 싫었고 대면하기가 싫었으니까요(참여자F).

♥ 우울

교회, 사무실, 집만 번갈아 가면서, 공공 목욕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 하던 시절이 너무 억울해요. 나 행복해 질 거예요. 나 즐겁게 살 거예요(참여자A).

얼마 동안 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우울이 나를 짓눌렀지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생기지 않더라구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나를 추스르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정신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하면서요.(참여자G)

♥ 열등의식

무식하게 일하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모두 업보인 것 같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구요. 단란한 가정을 보면 시기, 질투도 나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은 꿈도 못 꾸니까요. 내가 못되지는 것 같아요(참여자B).

♥ 쉽게 상처받음

그래서 그런지 조카는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되면 아주 오래가지요. 우리 애들은 그랬냐며 쉽게 잊는 것 같은데,, 조카는 상처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름씩 혼자 가슴앓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담아두고 살면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것이지 하며 타이르기도 하지만요(참여자A).

하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예민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고 일단은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얼마 전에, 나는 굳이 내 입에서 오빠의 일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꼭 내 모습이기엔 얘기를 했지요(참여자E)..

♥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긍정적인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지는 모르지만 계속 머피의 법칙처럼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나를 이용했고요. 나는 당했고요(참여자B).

어려서는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일은 없는데.. 너무 마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인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그러면서도 항상 나를 북돋우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나 혼자..(참여자G).

♥ 방황함

아빠의 자살로 인해서 특히 사춘기 시절에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현재도 내가 돌아갈 곳은 없지요. 내가 만들어야지요. 그 때 집 나가서 팔에 칼을 대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막하고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참여자B).

그 해 6월 22일, 오빠가 자살한 날, 그리고 강가에 뿌려주던 날..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아픔.. 부모님은 같이 가지 않았어요. 특이한 것은 아주 예쁜 새가 지저귀며 한 참 동안이나 있다가 날아가더라구요. 웬지 오빠의 영혼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쁜 모습 많은 새 소리..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 그 때 이후로 대학원을 접을까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겨우 겨우 나갔지만, 뭐 즐거움이, 기쁨이 나지 않더라구요. 얼마 동안인지.. 정말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방황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참여자G).

♥ 움츠러들음

우리 엄마 아빠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뭐든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 것이 매우 힘들었죠. 더 움츠러들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커서는 강인해지지 못한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니까 주저앉게 되더라구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 나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는데 나를 불러다가 부모들이 추궁을 했고요. 선생님이 불러서 잡아 치는데 학생과에 불러서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하고 발로 밟고 인격을 무시한 것이지요. 그 때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그 뿐만 아니죠(참여자B).

♥ 늘 슬픔이 존재

일단은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이 있었지요.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슬픔이 가슴 속에 있어요(참여자F).

처음 사별한 시기와는 다르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한 쪽 구석에 있는 것이죠. 슬픔, 아픔..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구요. 기쁘게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항상 애쓰며 지속적으로 나를 추켜세우는 것이지요(참여자G)..

4) 죄의식

참여자들은 자살 충격의 반응으로 죄책감을 크게 가지게 된다. 이러한 죄책감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생각에 기인하며 또한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기에 오는 감정표현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족의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특히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 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자살 사건을 절대 비밀에 부치는 경향이 짙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주기를 바라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심하게 의식함으로써 오는 상처가 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살한 이유가 자신과 관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수치스러움, 창피함을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참여자들의 감정을 알 수 있었는데 억울함과 분함, 패씼함, 원망스러움 등이었다. 이것들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까하는 분노로 고인과 자신에게 억울하고 분함을 원망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수치심', '집안의 치욕', '물을까봐 겁남'으로 도출했고 '수치스러움'으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또한 '내 탓', '패씼함', '원망스러움'의 개념으로 도출하여 '분노'라는 하위범주로 묶어 통합하여 '죄의식'으로 범주화하였다.

♥ 수치심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오빠에게는 안 되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수치심을 갖게 한 것으로는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지요(참여자E).

조카들에게도 아빠의 죽음을 추도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제사도 지낼 입장이 아니니까. 30초라도 묵상하면서 아빠가 하나님 곁에서, 천국에서 사시기를, 그리

고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손가락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죠.(참여자A).

♥ 집안의 치욕

입관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1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얼굴을 감싸고 모두 못 보게 했지요. 그런데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옆방의 문제로, 우리는 계속 불안했던 것이죠. 우리 얼굴을 생각하는 것이죠. 멀리서만 보게 한 것이죠. 만지지 못하게 우리는 끝까지 숨기려고, 집안의 치욕이니까요. 다른 오빠들은 신문, 뉴스만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올까봐서, 교회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엄마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참여자J).

♥ 물을까봐 겁남

나도 모른다고 하지. 나도 모르지. 누가 말을 하면 싫지. 그리고 창피하지 아주. 물을 까봐 겁도 나구...(참여자C).

항상 아버지가 그림고 보고 싶기는 했지만... 알아보는 게 싫었던 것이지요. 창피했구요. 하긴 소문이 다 났겠지만, 누구의 딸,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참여자B).

♥ 내 탓

가장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갔다고 엄마에게 그러셨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을 많이 의지했지요. 살고 싶다고, 알면서도, 시댁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인데... 저는 참 무거워요. 지금도... 아버지는 기도원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더

군요.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오셨었는데.... 너무 무지했어요. 너무..(참여자J)..

어쨌든 결과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거시기... 처갓 집 식구와 우리 부모님에게 미안하죠. 내 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관리를 못한 것이니까(참여자H)..

♥ 괴씸함

아주 괴씸하죠. 그렇게 갈 때까지 아무런 얘기 없이 갔다는 것이 도저히 용서가 안돼요. 겪은 지가 7년이 되었는데도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 물론 당사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만.... 아직도 괴씸해요. 화장을 하게 되면 두 번 죽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용서하기가.... 솔직히 후회돼요. 괴씸해. 괴씸해(참여자H)..

♥ 원망스러움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울기만 했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죽었다는 이유도 모르고, 자살했다는 사실 자체가 원망스러웠어요. 매우 화가 났어요. 지금도, 엄마와 관련되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할 때... 엄마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없으니까요. 왜 내가 그런 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도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정말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은 자의적으로 가지 않았고 몇 년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원망스러움 때문에 싫기도 하지만... 가면 엄마가 그리죠. 솔직히 가면 싫어요. 아무래도 우울해지니까요.(참여자I).

무엇보다도 원망스러웠지요. 특히 사춘기 시절에 아주 힘들었고 그로 인해 방

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참여자B).

5) 자살 · 죽음 수용하기

참여자들 중 부모인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꿈을 키워주기에는 아주 빈곤한 삶, 열악한 환경이었기에 먹지도 못하고 속을 털어놓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고통과 절망, 빈곤이 없는 삶 속으로 간 것이 더 낫다고 표현하며 자식의 자살을 수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아들을 데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한다고도 하였다.

형제인 경우에는 최후의 선택으로 한 것이기에 물론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순응해야하겠고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형제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살아 있는 우리는 형제의 기대에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며 책임감을 부여했고 주변인도 이러한 죽음을 인정해주고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자녀인 경우에는 자살이 절대 긍정적일 수 없겠지만 부모의 자살이후 많은 삶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있었기에 그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며 자살을 수용하기도 했다. 반면,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자살을 하였기에 자신의 삶은 정말 희망 없고 비전이 없었으며 무심히 삶을 살았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도 열악해서 사는 것 자체가 고달팠다고 하며 기댈 언덕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자신의 삶을 비관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야 가족, 주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은 ‘고인의 선택 수용하기’, ‘순응하기’, ‘자살 심정을 이해하게 됨’, ‘죽을 운명’으로 개념 도출하여 ‘자살 받아들이기’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였

으며 '자살·죽음수용하기'로 범주화하였다.

♥ 고인의 선택 수용하기

자격지심에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거지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만큼은 빼고... 솔직히 내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했지요. 자꾸 좋은 생각,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지요. 잘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오빠의 선택이니까 받아들여야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밖에...(참여자F).

♥ 순용하기

어차피 되돌릴 수 없으니까.. 친구에게 힘든 점을 얘기하니까 풀리더라구요. 친구 관계를 잘 했어요. 또 저의 형편을 잘 아니까요. 바람직하게 잘 극복했어요. 길게 봐서 방향은 저에게 이득 될게 없으니까요(참여자I)..

하나님께 원망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죽하면 이웃 할머니가 당신은 예수 믿기 잘했다고 하며 칭찬을 하잖아. 왜 예수 믿으면 속쌍할 때 찬송가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며 힘을 얻는데 종교 없는 사람들은 군소리한다잖아(참여자C).

♥ 자살 심정을 이해하게 됨

나도 정말 힘들 때 세상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아예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마음 고생하면서 이해관계에 얽히면서 살아보겠다고 하기 보다는 끝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구요. 아마 오빠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너무 너무 힘들었겠구나(참여자A).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도.. 자기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면서... 경제적으로... 자기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그것을 인정하자고.. 다른 암도 안 정말 가망없는 식도암이 아닌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참여자J).

♥ 죽을 운명

옛날부터 그 애는 높은 곳은 위험하다고 했지요. 명이 짧다고 했어요.

명이 그런 것이지. 팔자가 죽을 팔자였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참여자D).

6) 자살에 대한 편견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이 갖는 감정은 매우 독특한데 그것은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자기 자신의 자살의 오명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위축되게 하고 사별 과정을 더욱 힘들게 하며 사회적지지망 구성에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자들은 자살을 다른 유형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고 죄를 짓는 일로 보며 자살로 죽었기에 나는 죄인의 자식이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자살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족, 친구, 이웃에게 수치감과 상처를 주는 일로 인식했다. 게다가 종교가 있는 경우 좋은 곳으로 갈 수 없고 지옥 불에 떨어져 영원히 가족과 만날 수 없으며 구제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식했다.

결국, 자살 오명이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스스로 갖는 자살 오명화로 인해 수치심을 갖게 되고 사별 가족들 간의 감정 표현에도 장애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은 간호 중재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험은 '고인의 자살에 대한 편견', '자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

넘 도출하였고 ‘사회적 낙인’으로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차원이 다른 죽음’, ‘지옥에 떨어짐’, ‘죄를 짓는 일’로 개념 도출하였고 ‘자살오명’이라는 하위 범주로 묶어서 ‘자살에 대한 편견’으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고인의 자살에 대한 편견

조카가 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물으면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물으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대답해라. 자살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거야. 그러나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빠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한 것과 조카에게 거짓말 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할 때 너무 괴로워요(참여자A).

♥ 자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사실 나도 자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았어요. 물론 어려서 말고 커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한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결혼했을 때 누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안된다고 다짐했지요.(참여자B).

그랬지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서 알까봐.. 하지만 남편이 이미 장례식까지 치러준 터라 그래도 조금은 안심도 되면서.. 병원에서도 알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내 앞길에 뭔가 장애는 되지 않을까하는 .. 하지만 알려지면 오히려 당당해야겠지요. 담대해야겠지요.(참여자G).

♥ 차원이 다른 죽음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사람이 있는데 나와 같은 경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병으로 아내를 잃게 된 것이지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경우지요. 왜냐

하면 나의 경우 자살이잖아요. 자살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하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참여자H).

입관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1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얼굴을 감싸고 모두 못 보게 했지요. 그런데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옆방의 문제로, 우리는 계속 불안했죠. 우리 얼굴을 생각하는 거죠. 멀리서만 보게 한 것이죠. 만지지 못하게, 우리는 끝까지 숨기려고 집안의 치욕이니까요. 다른 오빠들은 신문, 뉴스만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올까봐서..(참여자J).

♥ 지옥에 떨어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지요. 분명 마귀가 씌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탓으로 돌려요(참여자J)..

정말 지옥 불에 떨어 질까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 교회에 잠시 나가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는 않죠. 그랬으면 아마 자살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빠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한 우리 오빠 영혼을 부디 천국에 있게 해 달라고..(참여자G).

♥ 죄짓는 일

잘못한 거예요. 나는 싫어요. 우리들도 힘들게 했구요. 남은 식구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구요. 남은 사람들에게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지요. 어른들이 내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이 나에게 무척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요. 뛰쳐나가고 싶고, 엄마, 아빠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참여자B).

7) 사별기간

참여자들의 사별기간은 4개월에서 20년으로, 가장 힘들었던 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사별기간을 나누어 보면 4개월, 4~6년, 7~8년, 15~20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별한지 4개월인 경우는 현재, 지금이 힘들다고 했고 4~6년인 경우는 대략 3~4년 정도, 7~8년인 경우는 1~2년 정도, 15~20년인 경우는 5년 정도가 되어 가장 힘들다는 경험을 하였다고 했다. 그러므로 자살 사별과 다른 종류의 사별을 비교하면, 여타 유형의 사별기간은 1.5년 정도면 극도의 아픔을 딛고 정상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 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살로 인한 사별인 경우에는 좀더 오래 걸리게 되며 복잡한 죽음의 양상으로 양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극도의 아픔은 사라지나 상처 자체는 지울 수 없기에 지속적인 사별 간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험은 ‘4개월’, ‘4~6년’, ‘7~8년’, ‘15~20년’의 개념으로 도출하였고 ‘사별 경과 시간’으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사별기간’으로 범주화하였다.

♥ 4개월

저는 장례식장에 어느 누구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 애의 아빠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전에 한 것이 생각나서요. 영적으로 부른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겨우 4개월 밖에 안 되었어요. 위안을 받고 싶어서 ##만 오라고 한 것이지요. 그 애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게 되었구나하면서, 그 말 하는 순간 창피함도 있었지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참여자J).

♥ 4~6년

3년 정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죽은 지 8개월쯤 지나서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내 생활에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시댁식구가 알게 될까봐 염려도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뭔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병원 생활에다가, 공부를 하는 터라 그나마 순간 순간 드는 생각을 저버릴 수 있었지요(참여자G).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무척 힘들었지.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안쓰럽고 불쌍하고.. 4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참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니까....(참여자D)

♥ 7~8년

대략 1~2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후에는 처갓집 식구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죠. 그러나 지금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 돌봐야 하니까, 그냥 묻고 사는 것이지요(참여자H).

2년 정도 무척 힘들었어요. 사실 이곳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방향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참여자I).

♥ 15년~20년

1, 2년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지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임신하고 애 키우느라. 5년쯤 지나서 아픈 줄을 알게 되었지요. 여름 방학 때에 조카들이 오게 되었는데, 세 명의 아이들이 짤 옷을 입고서, 남이 버린 옷을 빨아서 입고서 왔지요. 여름옷이 그렇게 싼대도... 겨울 방학 때에도 오게 되었는데 파카 잠바 없이 짤 스웨터를 입고서 벌벌 떨며 온 것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저렸는지 몰

라요. 아이들을 보면서...(참여자A)

저는 아빠의 죽음을 목격했기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약을 먹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그래서인지 자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너무 없이 사느라 그냥그냥 무심히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자 아빠의 자살이 더욱 깊이 생각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싫어졌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한 5년 정도 되어서 인 것 같아요(참여자B).

8) 고인과의 관계

참여자들은 고인과의 관계에 있어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부모의 경우이다. 자식을 잃음으로 해서 더없이 힘겨워함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죄의식이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있어서 자살 수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나머지 가족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강해졌고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배우자의 경우이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죄의식이 아주 컸는데 이는 자기의 탓으로 아내가 사망한 경우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었고 반면 고인을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자살 수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남은 자녀가 있기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으로 자신을 추스르지만 자신의 삶은 뒤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형제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부모의 경우에 비해서 죄의식이 있지만 비교적 약한 경우여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진행이 빠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입장에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보다 빨리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자녀의 입장이다. 부모의 자살을 원망하는 정도가 더 없이 커

서 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불쌍함'으로, 배우자는 '괘씸함'으로, 형제는 '미안함'으로, 자녀는 '원망함'으로 표현하였지만 결국은 이러한 감정들은 모두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어 '고통을 가슴에 묻기'라는 중심현상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입장', '배우자입장', '형제입장', '자녀입장'의 개념으로 도출하였고 '각각의 입장'으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고인과의 관계'로 범주화하였다.

♥ 부모입장

아마 교육공무원만 계속 하고 있었어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정의감과 정직한 우리 아들은 선생들의 비리 속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그 곳을 그만두고 고시 공부한다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 그냥 굶고 살았어... 사실 내가 장사를 하며 살림을 도왔지만, 아들을 밀어줄 형편은 못되었으니까... 오랜 동안 우리 아들은 고생만 하고... 그래도 좋지 않은 직장을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꿈도 컸던 아이인데.. 그 때는 너무 못살았어... 밀어줬으면 대학도 가고 클 수 있는 우리 아들... 지금도 그 뒷모습이 선하지. 힘없이 고시원으로 가는 마지막 모습... 조금 돈이라도 쥐어주지 못한 것이..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참여자D)

♥ 배우자입장

아주 괘씸하죠. 그렇게 갈 때까지 아무런 얘기 없이 갔다는 것이 용서가 안돼요. 내 아내 무덤이 ##에 있는데.. 그 때 어르신들이 선산에 묻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우겨서 선산에 묻게 되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주고난 후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니까요. 사정을 몰랐던 것이죠. 괘씸한 생각

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 물론 당사자는 오죽 했으면 그랬겠느냐만.. 아직도 괴씸해요. 화장을 하게 되면 두 번 죽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용서가 용서하기가... 결과적으로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참여자H)

♥ 형제입장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오빠는 내가 대학에 가려고 공부할 때, 간호대학에 다닐 때, 자기 공부하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고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비를 대 주었는데, 나는 오빠가 힘들 때 그 입장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속상해요. 나의 욕심만 채우려다 보니까. 정말 미안해요. 나에게 좀 시간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참여자G)

부모님 다음에 오빠잖아요. 정말 신경을 쓰고 살았어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나 봐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동생이 되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큰 딸이 알게 되었는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언급도 못하게 했지요. 아이도 쉽게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될까봐서요(참여자E).

♥ 자녀입장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뭐든지 해결해야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매우 힘들었죠. 더 움츠려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커서는 강인해 지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너무 힘이 드니까 주저앉게 되는 거죠...(참여자B)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죠.... 요즈음 운동을 하는데,

엄마와 딸이 같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엄마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직까지 도요... 엄마의 얘기를 동생과 할 때는 솔직히 자살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가 없더라구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정말 열 받았어요. 그런 일 아니었으면..(참여자I)

9) 지원정도

참여자들의 진술 중에서, 참여자 F의 경우, 자신은 형제의 자살과 더불어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헤매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부모님과 친구의 도움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참여자 I의 경우, 부모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서 원망을 무척 많이 하게 되었는데 친한 친구에게 이런 속을 털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 H의 경우, 아내가 자살했을 때 많은 죄책감과 동시에 원망함도 갖게 되었는데 주변인들이 자살하게 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도와주고 인정해 주었다고 했다. 참여자 B의 경우는 자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형제들간에는 가끔씩 함께 이야기 하며 아픔을 나누기도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기에 아니다 싶으면 그만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참여자 A의 경우,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자에게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삶의 힘이 된다고도 했다. 참여자F의 경우, 사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캄캄해서 매일 술 먹으면서 잠이 들곤 했으며 술을 먹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만 같아서 살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형제의 도움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지금이 삶의 변화시기라고 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의 도움받기’, ‘주변인의 도움받기’, ‘신앙의 도움받기’로 개념 도출하였고 ‘지원체계의 도움’으로 묶어 하위범주화 하였으며 ‘지원정도’로 범주화하였다.

♥ 가족의 도움받기

사실 가장 큰 도움은 엄마였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엄마는 꿈임없이 나를 돌봐주고 도와준 것이... 우리 엄마는 특별한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정이 많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지요. 오빠가 죽고 난 후에는 그런 어려움이 더 했고 나의 여건은 더 엉망이었는데.. 그 때 엄마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된 것이죠(참여자G)..

오빠가 첫째 조카를 맡아서 키우기로 하고 내가 둘째 조카를 데리고 오게 됐지. 머리에 이가 있는 조카를 저녁마다 약을 뿌려주고 아침마다 감겨주고 매일 조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지냈지요.(참여자A).

♥ 주변인의 도움 받기

어차피 되돌릴 수 없으니까, 친구에게 힘든 점을 얘기하니까 풀리더라구요. 친구 관계를 잘 했어요. 또 저의 형편을 잘 아니까요. 바람직하게 잘 극복했어요(참여자I)..

주위에 계신 분들이 나를 많이 생각해 줘요. 그리고 대견하게 봐 주는 것 같아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줌마들에게 내가 아내의 이를 하기에 역부족하니까... 답례를 하는 편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경 쓸 것 없다는 식으로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해요.(참여자H).

♥ 신앙의 도움받기

아이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말씀도 가르치고, 성경책이, 목사님 말씀이, 기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 때 그것을 넘어서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긴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빠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한계선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껴 버틸 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버틸 것 같아요.(참여자A).

아들들과 며느리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죠. 영적으로 다른 세계에 사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기대하는데 사실, 저는 시간을 주지 못하죠. 벌여 놓은 일이 많아서.. 구역장, 주일학교부장, 신학교에도 다녀야죠.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엄마도 승리해야 되지요. 힘들지만 내가 이겨내는 것처럼 엄마도 이겨내리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참여자J).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지체계의 확립과 사회적지지망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우리 문화 속에서 자살 오명이 전이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폐쇄시킴으로 사회적지지망 구성에 실패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책임전가 현상은 사별 초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가족 분열상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는 가족의 위기 상태를 만들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심정을 전혀 지지받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의 분열’, ‘자살 사별자의 부정적 특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개념 도출하여 ‘지원체계의 결여’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지원정

도'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가족의 분열

오빠들과 영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동생과 저만 뭉쳐 있는 것이죠. 장남인 큰 오빠만 중립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얘기도 들어주고 오빠들 얘기도 들어 주어야 하니까요. 오빠들은 우리들을 조롱해요. 서로 포옹을 해야 하는데... 여동생의 남편으로만, 전도사님이 아닌, 남편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분열이 있는 것이죠. 사실 만남은 꺼리고 기도만 해요. 우리 오빠들 깨우치도록...(참여자J).

♥ 자살 사별자의 부정적 특성

자살한 가족들은 피해의식이 많아서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도 위로를 못했어요(참여자B).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되면 어쩐지. 안되면.. 그래서 많이 노력해요. 뭐가 된다. 된다. 옛날 자신 만만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그렇지만, 우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요.(참여자G).

♥ 제도적 장치 미흡

이런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 공간이나 자살한 사람들끼리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상담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요. 자나나는 아이들에게 상담을... 자나나는 아이들은 죄인이라구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점을 .. 병은 소문내라구하는데. 아픈 것도 알려야 하는데.. 속 아픈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털어낼 수 있는 뭔가.. 그래야지 또 다른 자살이 없을 것 같아

요.(참여자B).

자살로 인하여 사별한 경우에 가족들은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것은 기존 생활환경이 넉넉한 경우에는 그나마 어려움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배가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는 참여자들 중에 특히 부모를 잃은 경우의 사별에서 두 가지 양상을 볼 수 있었다.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별을 이겨나가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추스르는데 전념하여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경제적으로 쪼들린 경우에는 사별 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오래 방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으며 극복하는 정도가 매우 느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경제적으로 쪼들림’, ‘경제적으로 넉넉함’으로 개념 도출하였고 ‘경제적 여건’으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지원정도’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경제적으로 쪼들림

나는 희망도 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빨리 돈 벌어서 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렸을 때 맨 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영양실조로 인한 것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나는 뭐 해서 잘 되어야 겠다기 보다는 빨리 커서 무조건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살았어요. 생각이 올바르게 못했던 것 같아요. 방황하는 중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1달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다루어야 하는데 나는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 컴퓨터 학원비를 마련해 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에 배우고 싶었지만 전

혀 그럴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아빠의 잘못으로 나에게 죄인의 업보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만 들고, 항상 그랬어요...(참여자B)

♥ 경제적으로 넉넉함

아빠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하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면 방황을 했을지도 몰라요. 좋은 여건 에서 있다보니까 그런 일은 있었지만 더욱 삶의 충실했던 것 같아요.(참여자I)

10) 인내하기

참여자들은 자살자가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모두 자살을 가슴에 묻고 평생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산다고 볼 수 있겠다. 이들은 자살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 자체를 잊으려고 하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을 놔버려서 자신을 추스르려고 노력한다고 했으며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바쁘게 생활하려고 했다. 가끔 생각날 때 울기도 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자신을 위로했으며 자살에 대해 회피하기, 술 마시기, 드라이브하기 등 잠시 떠나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쓰기도 했다. 결국 참여자들은 자살자를 가슴에 묻고 추스르며 일에 몰두하기, 잠시 일상에서 떠나기를 통해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극복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어 성숙한 삶을 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술로 잊기’, ‘잠시 떠나기’, ‘한 가지 일에 열중하기’, ‘참아내기’, ‘생각하지 않기’, ‘회피하기’로 개념 도출하였고 ‘추스르기’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또한 ‘회사 생활에 충실하기’, ‘일로 해결하기’의 개념은 ‘일하기’로 하

위 범주화하여 '인내하기'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술로 잊기

그 때는 술을 계속 마셨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어야 그나마 힘든 일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술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술을 먹어야 다음 날 가슴이 뵁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술을 먹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옛날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것과 오빠 생각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참여자F)..

여기 오기 전에 언니네 집에서, 식당에서 일했는데 서빙하면서 그 때는 미엘 밤 맥주를 사들고 들어가서 텔레비전 보면서 자꾸 일어나구 했어요.(참여자B).

♥ 잠시 떠나기

정말 여유 없이 살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도 갔다 오고 지리산도 갔었어요. 가서 자연 경관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았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참여자F).

가급적이면 아이들과 같이 드라이브하며 지내요. 남자 아이는 고3이라서 바쁘니까 딸 데리고 나가는데 우리 딸은 속은 좋아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한 번 야단맞으면 빠져서 며칠 간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가끔은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화나고 힘들 때 뉘라고 하지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겠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그게 어렵더군요. 그러고 나면 우리 딸은 꼭 종이에 아빠 미안해요(참여자H)..

♥ 한 가지 일에 열중하기

그 때 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아픔을 가진 친구였어요.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것과 오빠의 죽음을 잊으려구 했어요(참여자F)..

웬만하면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뭔가 다른 쪽으로 열중 하려고.. 다른 것도 그래서 찾아서 하려고 해요. 공부도 그래서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I).

♥ 참아내기

참아야지. 무조건. 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나면 살 길이 나오지. 막 나가면 길이 어둡지만, 성경 잡언서를 보면 슬기롭게 나가면 정중한 인사를 받게 되지. 꺾꺾 참아야 돼.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것을 다 느끼며 살아야 50년 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되는 거지(참여자C)..

고통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연해하면 안돼요.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이기에 잊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어요(참여자E)..

♥ 생각하지 않기

생각을 왜 해. 하지 말아야지. 아비 죽은 것은 불쌍하지만 생각은 안 해. 예배만 드려. 기도하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지(참여자C)..

내가 사는 생활 터에서 그런 일이 생기다보니,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지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었었는데, 무조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우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나의 생활 터니까요. 이미 알게 된 사람은 말구요. 그

런 사실을 꺼내지 않으니까, 꺼낼 일이 없으니까요. 5년쯤 된 것 같은데... 어느 해 몇 월인지... 등을 잊어버리려고 많이 애썼어요. 가족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참여자E)..

♥ 회피하기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도 사무실에서 오빠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하고 못들은 척해요.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참여자E).

친구들이 오빠에 관해서 말하면 오빠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화제 거리를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슬며시 얘기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해결했어요.(참여자G).

♥ 회사 생활에 충실하기

회사 생활에 더욱 충실히 해요. 왜냐하면 상사들은 내가 그런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좋지 않게 볼 테니까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죠. 조금만 책잡히는 일은 하지 않죠.(참여자H)

♥ 일로 해결하기

내가 만일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울증에 빠졌거나 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지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을 하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E)..

일로 해결하는 거지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생각나니까요.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일하면서 얘기하면서 보내고 쉬는 날은 농사일 하면서 지내는 것이지요.(참여자D).

11) 희망 찾기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추스르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함으로 극기 했다. 또한 상처를 함께하고 경험을 나눔으로써 상부상조하는 자세를 가졌다. 게다가 현재 자신의 위치와 삶을 재정립하게 하기 위해 현실에 충실했고 이런 삶을 계속하기 위해 항상 희망적인 생각과 바르게살기 위한 노력을 기했으며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삶은 결국 생각을 바꾼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바뀔수록 우울했던, 침울했던, 막막했던 절망적이었던 삶에서 희망적인 삶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삶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 넣는 작업이 필요하며 활력소를 갖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시간 활용을 잘하려고 했고 공부하기, 기도하기, 출근하기, 모임 갖기, 봉사하기 등으로 직업도 갖고 자기 개발도 하며 더욱 삶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꼈으며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활력소를 가지려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희망적인 생각하기’, ‘즐거움 찾기’, ‘바쁘게 살기’, ‘자기 개발하기’, ‘대리만족하기’로 개념 도출하였고 ‘활력소 갖기’로 묶었으며 ‘희망하기’로 범주화하였다.

♥ 희망적인 생각하기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변하고 행동이 바뀌니까 생활이 바뀌고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행복하지요. 지금은 그래서 영어도 배우러 다니고 기도도 하러 다니고 노래도 배우러 다니고 출근도 하고 엄마들 모임도 갖고 봉사 하러도 가고 너무나 재미나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 집만 번갈아가면서, 공공 묶여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울고 의기소침해 하고 그러던 시절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들도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365일, 그런데 왜 나는 질질

짜고 사는 거야 나는 싫어 행복해지고 싶어, 어 no, no, 나 행복해질 거야, 즐겁게 살 거야...(참여자A).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뭔가 지속적으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우울할 때마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지요.(참여자F).

♥ 즐거움 찾기

재미있게 살고 싶어진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사는지를 본거지요.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친구도 많고 풍부한 지식도 많은 거예요. 소소한 모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것도 보러 다니고 뭐 키우는 곳에도 가고 녹차 밭에도 드라이브로 가고 섬진강에도 재첩 맛있게 한다더라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가고 몇 집에서 차로 가족끼리 다녀오기도 하고 시댁에서 뭔가 가져오면 이거 먹어봐 하며 주기도 하고 하며 살다보니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활력소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참여자A).

♥ 바쁘게 살기

일에 집중하고 정신없이 지내면서. 바쁘게 지내니까 아들 생각이 수시로 나다가도 금방금방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지(참여자D).

환란을 겪었지. 말도 못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럴 때 기도하지. 주여 굽어 살피옵소서. 그리고 아주 바빴으니까. 아이들 거뒀 먹이고 취로 사업 나가구(참여자D)..

저는 아주 피곤할 정도로 살았어요. 뭔가 시간이 비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고 가슴이 저려와서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쉴 틈을 갖지 않았구요. 시간이 나면 대중 도서관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면서요(참여자G).

♥ 자기개발하기

나의 20대는 방황의 시기였으며 정말 아픔이 많았던, 상처가 많았던, 그리고 후회스런, 그런 시기였음을 생각하게 되어서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예도, 그림도 배우고 운전면허도 따서 자동차도 끌고 다니게 되었고 수영도 배우고 그러다보니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지요(참여자E).

이제 여기서 퇴직하게 되면 서예 학원을 다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글씨를 못 써서 정말 싫었거든요. 솔직히 붓대 잡는 것도 모르지요(참여자D).

♥ 대리만족하기

사위 셋을 아들로 생각하고 살면 되지... 요즈음 막내 사위를 남편이 좋아하니까, 2주일에 한 번 들러 밥 먹고, 씩씩하게 하니까, 그 재미에 살지(참여자D).
저는 오빠가 사시를 준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기에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학자가 되어 오빠가 소망했던 것을 이루어 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참여자G).

12) 현재에 충실하기

참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이것은 고인의 죽

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은 심정과 그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보답할 길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잘 꾸려나가야겠다는 의지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힘겹고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워 열심히 살다보면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남은 돌볼 가족이 있을 때 의무감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성실히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각자에게 위안이 되고 지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충실히 살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적극적이기’, ‘열심히 살기’, ‘성실하기’, ‘현실적이기’, ‘책임감 갖기’, ‘역할 다하기’로 개념 도출하였고 ‘현실 충실’로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현재에 충실하기’로 범주화하였다.

♥ 적극적이기

그 사람들은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맨 날 명랑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고 즐겁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며 화내지 않고 말해도 나 다 알아들어요 하고 내가 제압을 하며 살지요.

선교를 하자고 마음을 먹은 거지요. 해외 선교도 좋고 국내 선교도 좋지만 내 조카들에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거기엔 목표를 두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구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배움에 목표를 두고 사니까 내 실력을 더욱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신학도 하게 되고 유아 교육도 하게 되고 세미나도 있다면 찾아다니게 되고 영어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삶의 힘이 되어 준 것 같아요(참여자A).

♥ 열심히 살기

우리 모두 한 번씩은 죽으니까, 좀더 빨리 갔을 뿐으로... 오빠가 말 한대로 굶고 짭게, 좋은 방법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이미 었질러진 물이잖아요. 오빠도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지요.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요. 그게 보답하는 길이지요(참여자E).

보다 더 열심히 내 일을 잘하려고 했죠.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 원만하게 하려고 생각했죠. 나름대로,, 첫째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더 잘 하려고...(참여자I).

♥ 성실하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학원 동생들을 보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 사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해요. 특히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참여자B).

간호조무사인 이 일은 회사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회사는 조금 몸이 아프거나 하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바질 수 있지만..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바로 신세를 지는 일이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하니까.. 성실함을 가지게 되었지요. 조금씩 조금씩 변했지요(참여자E).

♥ 현실적이기

그런 일은 있었지만 더욱 삶에 충신했던 것 같아요... 바람직하게 잘 극복했어요. 길게 봐서 방향은 저에게 이득 될게 없으니까요. 현실에 충실 하는 것이 필요하죠.(참여자I).

진정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이에요. 그러나 원래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죠.(참여자E).

♥ 책임감 갖기

너희 아빠가 고모 가방도 들어주고 무등도 태워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신발도 빨아주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하는 길이... 내가 내 아이, 내 조카를 의무감으로 하면 내가 지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참여자A).

결혼을 일찍 하고 독립된 생활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의 삶과는 .. 오빠를 생각하는 것과 친정을 생각하는 것은 같은데.. 오빠가 잘되어야 친정이 잘 되는 것인데.. 오빠가 가버린 자리를 이제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지켜야겠지요. 부모님은 오죽하시겠어요.(참여자E).

♥ 역할 다하기

첫째는 아이들이 중요하잖아요. 엄마 없는 설움, 엄마의 역할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죠. 또한 아껴 줄려고 노력 많이 하죠. 하지만 아들은 별 문제 없는데 딸아이에 대한 문제는 좀 힘들어서 나와 친한 친구의 아내에게 많이 의존하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끔적이면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는 편이죠. 최대한 반영해서..(참여자H)..

엄마가 그러는데 저는 남자 아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름도 남자들에게 쓰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데.. 이제 오빠가 없으니까 내가 아들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더욱 잘하려구요. 형제들보다도

부모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부모님 가슴이..(참여자G).

13) 함께 하기

참여자들은 상처 입은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선, 자신의 속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일을 경험한다. 그런 힘든 경험을 얘기하다보면 어느새 서로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러는 중에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풀리게 되고 나만 그러한 아픔을 가진 것이 아니구나 하며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고인에게 굉장한 섭섭함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즉 고인들은 대부분 혼자서 힘든 일을 처리하려 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왜 나에게, 우리에게,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표현을 못한 것이, 속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한 것이, 결국 그들로 자살을 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별가족들은 죄책감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함께하기’는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 이웃들을 만나 서로 웃고 대화하면서 아픔을 잊을 수 있기에 또한 좋은 방법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런 경험을 토대로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며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한다고 했다. 또한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제 2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아픔 나누기’, ‘표현하기’, ‘친구 만들기’로 개념 도출하여 ‘마

음 열기'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또한 '도와 달라고 하기', '도움 주고받기'로 개념 도출하여 '사랑 주고받기'로 하위 범주화하여 '함께하기'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아픔 나누기

우리 반에 권일이 엄마, 아빠가 빛을 많이 적서 그것 꺾느라 너무 힘이 들어 죽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도 죽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구요. 당신 아이들을 생각해봐라. 오빠가 자살했다고는 못하고 오빠의 자식들이 커 온 모습을 떠올리며... 권일이가 엄마 없이 크게 될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애가 받는 상처와 고통을 생각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권일이 엄마(중학교 밖에는 나오지 않음)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을 소개해 주며 내용을 얘기해 주며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말씀을 적어서 희망을 주었고 교사를 잘 하고 싶어 하기에 도움을 될 만한 자료를 주었지요. 집까지 바라다 주며 힘들 때마다 전화하라고 했더니 정말 고맙다고 하며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참여자 A).

♥ 표현하기

사실 엄마랑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요. 훨씬 편했지요. 아빠랑은 거의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섭기도 했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일 있고나서 지금은 아빠랑 얘기 많이 하는 것이지요. 더 친하게 된 것이지요. 좋아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대화하고 표현하니까 좋아요 (참여자I)..

자살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하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란 것은 서로 숨길 것이 없이 솔직해야 하는데, 아내도 나에게 많이 숨겼었어요. 나중에 알고 되었는데. 아내가 일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일 처리를 잘 못하여 숨기고 또 숨기고 했는데 그 일이 나중에 너무 커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내가 아쉬운 것은 얘기를 해서 같이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지요. 죽고 난 후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아주 많았었어요(참여자H)..

♥ 친구 만들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접근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친구 만들기에 전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친구 만들기, 다른 사람 찾기, 웃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 오게 되었지요. 그때는 내가 콩도 주고 무도 주고 파 뿌리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나에게 털실로 옷을 짜주기도 하고 화장실 앞에 쌀 깔개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요(참여자A)..

나는 친구들에게 그런 점을 얘기하고 풀었어요. 깊은 관계에 있는 친구들을 의지했죠. 아무래도 힘든데 절대자를 믿는 믿음이 없었으니까요(참여자I).

♥ 도와 달라고 하기

모든 부모에게 말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라도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부모, 형제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라고요(참여자A).

물론 오빠가 힘든 부분을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오빠에게 속쌍한 것은.. 그래도 나랑은 형제 중에서 가장 얘기가 잘 통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요. 죽기 전 오빠가 아파서 병원에도 내가 데려가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말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참여자G).

♥ 도움 주고받기

그들 부모가 정말 남편을 숨도 못 쉬게 했으니깐요. 어쩔 줄 되었는데도... 잘 되었죠. 내가 나이 들어서 결혼을 화려하게 할 것도 아니고, 정말 고아처럼, 안 된 사람과 만나서 서로 사랑 주고받으며 살려고 했었으니깐요.(참여자F).

특별한 방법이 없지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쏟고 그런 것이 우선 할일이지요(참여자E).

14) 절대자에게 나아가기

참여자들 중 자식을 잃은 부모인 경우에 자식의 죄는 어미에게 넘기고 자식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하늘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자식을 위해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는 자살을 했기에 천국에, 좋은 세상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봐 자살한지 시일이 오래 경과되었어도 지금까지 애타게 기도하는 마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식이 그리울 때, 보고 싶을 때, 혼자서 기도하며 울부짖는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수시로 애가 탈 때면 성경책을 보며 크게 소리 내어 읽기도 하고 ‘이 죄인을 용서 하옵소서’라는 찬송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고도 했다. 어떤 참여자는 매일 매일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어려움을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배의 삶 속에서 누

리는 축복을 가까운 친지, 이웃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로 사랑을 나누며 선교 활동을 한다고 했다. 더불어 신학에 몰두해서 삶의 힘을 공급받기도 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같았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를 적용하는 철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가족들조차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절대자를 찾게 되며 의지하게 된다는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했으며 특히 명절인 경우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절대자에게 빌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기도하기', '성경읽기', '교회에 나가기',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찬송가 부르기', '내세에 대한 기대'의 개념으로 도출하였고 '신앙생활하기'라는 하위범주로 묶었으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로 범주화하였다.

♥ 기도하기

매일 조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지냈지요. 그 기도는 어찌 보면 나 자신에게 하는 그런 최면이기도 했지요. 하늘에 계신 오빠 내가 00절 키울 테니. 잘 보아 주세요. 오빠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보답할 거예요 하며 기도로 버틴 것 같아요(참여자A).

새벽예배에 한 1년 정도 나갔는데.. 오빠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한없이 울며불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정말 통곡을 하면서.. 나도 나지만, 아직도 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이 힘들 때..(참여자G).

♥ 성경읽기

힘들면 성경책 펴놓고 찢찢찢 읽으면서, 그러구 살았지. 성경 잠언서를 보면 슬기롭게 나가면 정중한 인사를 받게 되지. 꼭꼭 참아야 돼.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다 겪는 거지. 그것을 다 느끼며 살아야 50년 후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되는 거지.(참여자C).

일을 하면서도 성경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읽지. 그래서 벌써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읽다보니 구절구절이 상황에 맞게 떠오르게 되지. 그러면서 위안을 받는 거지. 특히 옴의 시련을 보면서.(참여자D)..

♥ 교회에 나가기

어느 날 술로 해결하는 중에 추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술로 해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참여자F)..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지금껏 극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교회에 갈 여유가 생기지 않네요(참여자E)..

♥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아이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말씀도 가르치고, 성경책이, 목사님 말씀이, 기도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 때 그것을 넘어서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빠와 같은 사람은 인간의 한계선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껴 버틸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버틴 것 같아요(참여자A).

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모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가서 힘들다고 하

며 울지. 어디에 가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 지금 몸이 무거워 힘들어서
인상을 쓰지. 나 그늘 진 것 없지(참여자C)..

♥ 찬송가 부르기

우리 딸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울하고 속상하면 나는 찬송가를 불러...
이 죄인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이 곡을 가장 좋아하지. 그렇게 부르면 마음이
풀어져. 하나님 믿으면서...(참여자D).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덥에서 내려오던 중에 차안에서.. 어쩌면
그리 담담하던지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더군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루
에도 수십 번 생각이 나지요. 상황 상황마다.. 그걸 때 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요. (참여자J).

♥ 내세에 대한 기대

자살을 잘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오빠 입장에서는 최후의 선택
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음 세상에서는 오빠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며 꿈
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지요. 고통이 없는 곳으로요. 그렇
게 생각해요(참여자E)..

아비 죽은 것은 불쌍하지만.. 예배만 드려. 기도하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
어야지. 잘 되도록 기도하구 예배만 드리지요(참여자C).

15) 자기 가치 터득되기

참여자들 중 가족의 자살 사별 전에 참여자 자신이 자살 기도 경험을 가진

경우에, 특히 가족의 자살을 경험으로 정말 유가족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존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고하며 자신을 알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동안 간과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의 모난 부분이 오히려 제거되어 원만해졌으며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 속에 있던 자신에게 자신감이 증진되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방황한 20대의 삶을 청산하고 적극적 사고와 열성으로 현재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전념하는 자세로 바뀌었음을 고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차분히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만의 그릇과 색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족의 자살을 초월하기도 하였다. 또한 힘들 때면 자기 최면을 걸어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뀌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살한 가족보다 나를 더 생각하기’, ‘가족의 자살을 초월해서 살기’, ‘나의 미래 준비’로 개념 도출하여 ‘자기 찾기’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또한 ‘자신감 증진’, ‘성격이 원만해짐’, ‘대인관계가 좋아짐’으로 개념 도출하여 ‘자기 성장’으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자기 가치 터득되기’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자살한 가족보다 나를 더 생각하기

오빠는 오빠, 나는 나라는 즉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오빠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슬픔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야 되는 거지요(참여자F).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살려면 지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굳이(참여자E).

♥ 가족의 자살을 초월해서 살기

오빠처럼 자기 자신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해 동생은 저렇게 잘 하는데 나는 이처럼 못났구나 하며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기보다는 나 자신의 그릇이 있고 나만의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활한다는 것이지요.(참여자A).

참으로 힘들지요. 왜냐하면 오빠의 자살로 항상 마음 한 구석이 웅어리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슬픈 감정이 가라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겨내야지요. 나의 삶, 가족의 삶이 있잖아요. 이겨 내는 정도가 아니라 승화해서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도와야죠(참여자G).

♥ 나의 미래 준비

더 열심히 살고 앞으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서서히 준비를 해야죠. 지금 현재 빛부터 줘고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참여자E).

사실, 나는 이번 일로 해서 정말 힘겨웠어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보다 라고,,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참여자G).

♥ 자신감 증진

전에는 오히려 소극적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되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졌고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나할까요. 성적도 솔직히 바닥을 기던 것이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좋게 되었어요. 더 성격도 좋아졌어요. 어떻게든 해 보려는 생각으로..(참여자I)

♥ 대인관계가 좋아짐

나는 원래 선물 받고 그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베풀게도 되었으니까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지요. 나도 도움을 받게 되고 도와주고, 그래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요. 내 남편도 오히려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지요.(참여자F).

♥ 성격이 원만해짐

명랑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고 즐겁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도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화 내지 않고 말해도 나 다 알아들어요 라고 말한다(참여자A).

16)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으나 각자 자기 생활에만 급급해 있다가 가족의 자살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정리를 하게 된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되짚어보게 된다. 그런 경우에 고인의 빈자리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어 빈자리를 채워 나가려는 마음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계기를 통해 특히 가족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고 가족의 테두리 밖에서 있던 구성원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가족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애처롭게 느껴짐을 고백하기도 했다. 특히 명절인 경우에 가족들의 슬픔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는 입장에서 부모님이 매우 안쓰럽게 느껴짐을 고백하기도 했다. 따라서 남은 자식들은 서로 부모에게 효도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하려고 애썼으며 이전의 가족의 모습에서 잘못되었던 부분, 모난 부분을 서로 알아서 보충하는 삶을 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부모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더욱 사랑과 관심을 주고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에 충실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재한 부모의 역할까지 하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회사 업무에도 더욱 충실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려고 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게 된 경우는 이런 일을 통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변함을 보고 부모와의 관계가 오히려 원만해지고 좋아졌다고도 한다.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 주는 큰 원천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가족 구성원끼리 더욱 응집되는 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애처로운 우리 가족’, ‘자살로 인한 상처’, ‘기일증후군’으로 개념 도출하여 ‘가족의 자살 후유증’으로 묶어 하위 범주화 하였다. 또한 ‘서로 아픔을 수용하게 됨’, ‘남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개념 도출하여 ‘가족 포용’으로 하위 범주화하여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애처로운 우리 가족

언니들과는 달리 나는 가족 밖에서 생활 했었는데 오빠의 죽음으로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오고 나니 정말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애처로운 우리

가족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후회스러웠어요. 옛날 오빠 면접 보러 갈 때 넥타이 매 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부모님의 안쓰러움이 더욱 느껴졌지요(참여자F).

친정집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가 살던 방을 보면서.. 마지막 오빠가 책상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몸이 아픈데도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지.. 잠시 쉬어도 되는데.. 신발을 신은 채.. 가슴이 미워지죠. 그런 모습을... 아마, 부모님은 더욱 느낄 거예요. 언니도, 아마 나처럼 친정집에 가는 것이 힘들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지요.(참여자G).

♥ 자살로 인한 상처

그 여파가 남편에게 가요. 남편은 말을 안 하는데 남편이 내 눈치를 보고 남편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고, 아이한테도 가지요. 여파가, 정서적으로, 아차 싶었지요. 나쁜 성격이, 모가 나는 거지요. 나타나는 거예요. 애가 너무 날카롭고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 잔인하고 아픈 표현을 툭툭하더라구요. 내 탓이지요. 내가 받은 오빠의 자살로 인한 상처 때문에,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하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그렇게 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아이와 남편에게 했던 것이지요.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오는 것이지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알게 되었지요(참여자A).

♥ 기일중후군

비 오는 날이면 더 슬픈 거예요. 왜 억수같이 비가 오던 날에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태양, 부서지는 파도, 등등 우리는 그런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요. 조카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화장을 해서 찾아갈 산소도 없으니까, 조카들은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엄마는 아들 기일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

터 시달려요. 며느리들이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증후군을 앓는 것처럼... 엄마는 아들 기일 증후군을 앓는 것이지요. 오빠의 기일이 되면 엄마는 가슴앓이를 한다는 것, 명절이 다가와도, 생일이 다가와도, 기일을 기억하지 못하겠나, 명절에 돌아가신 사람들 생각하는데 생각나지 않겠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겠나.. 잊어 버릴만하면 생각나는 거지요(참여자E).

♥ 서로 아픔을 수용하게 됨

남편은 그냥 생각은 나지만 참고 있는 거지.. 생각나면 밖에 나가서 풀이라도 뽑으면서 사는 거지.. 왜 생각이 나지 않겠어.. 일을 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처음에는 남편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 남편도 불쌍하지.(참여자D)

♥ 남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함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내가 아들 고등학교 마치면 더 이상 돌볼 것이 거의 없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잘 감싸고 챙겨 주고 싶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더 데리고 있을 상황도 아니니까요.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거의 객지 생활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잘 뒷바라지만 하면 되니까요. 딸 아들 모두 사회생활하게 되니까요(참여자H).

부모에게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예구, 하면서 담배 한 가치 물고 육중한 몸을 아파트 난간에 걸치고 삐금삐금 피면서 잊어버리는 거지요. 둘째 오빠도 그런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3교대를 하면서 몸이 피곤한대도 불구하고 2시간을 차를 몰고서 와서 새벽에 또 그 먼데로 출근을 하는 거지요. 뇌출혈로 왼 손을 잘 못쓰는데도 운전을 하고 엄마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데..(참여자A).

17) 소망을 찾아가기

참여자들은 가족의 자살을 계기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세로 바뀌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삶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기적이고 나 밖에 모르던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타인의 아픔까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던 사람이 대인 관계가 원만해지고 적극적이지 못하던 사람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자 했으며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실히 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내함과 성숙함으로 고통을 잘 승화시켰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자살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더불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짐으로 삶을 반성하고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졌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의식이 새롭고 분명해져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삶의 의미를 알게 됨’, ‘자살 생각 절대 안하기’, ‘삶이 변화함’으로 개념 도출하였고 ‘의미 있는 삶 살기’로 묶어 하위범주화 하였다. 또한 ‘어려움을 통해 행복을 알게 됨’, ‘인간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짐’, ‘점손해짐’, 으로 개념 도출하였고 ‘성숙한 삶’으로 묶어 하위 범주화 하였으며 ‘소망을 찾아가기’로 통합하여 범주화하였다.

♥ 삶의 의미를 알게 됨

전에는 그런 허황된 삶, 꾸미는데 돈 투자하고 비싼 옷만 입고했는데, 오빠가 죽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많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요(참여자F).

나 살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의 삶이 있어야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요. 왜 경제적으로 없어도,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삶, 삶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한 의미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인가도 생각하게 되었구요(참여자G).

♥ 삶이 변화됨

저의 삶의 변화는 너무나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방황의 시간을 접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교회생활에 충실히 보내고 있고 남은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형제간에 분열은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냅니다. (참여자J).

전에는 오히려 소극적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되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졌고 자신감이 더 생겼다고나할까요. 성적도 솔직히 바닥을 기던 것이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좋게 되었어요. 더 성격도 좋아졌어요. 어떻게든 해보려는 생각으로...(참여자I).

지금인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요. 전에는 그랬어요.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풀었어요. 또 외로움을 만끽한다구나 할까요. 아무 것도 해결 되는 것은 없지만 답답한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풀어지니까요(참여자B).

♥ 자살생각 절대 안하기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빛부터 쫓고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자꾸 표현을 좋게 좋게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의 죽음으로 나는 이제 죽지 않을 거예요.(참여자F).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몸이 힘들어 부서져도... 다짐하고 각오하고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떼밀어도... 고3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면, 교회에서 공부하고 오면 울케가 혼내고 울케로 인해서 오빠에게도 엄청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때 죽고 싶었거든요....(참여자A)

♥ 어려움을 통해 행복을 알게 됨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니까. 참고 살면 나중에 복 받고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참여자D).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것을 다 느끼며 살아야 50년 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 되는 거지.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이. 행복, 행복, 호강, 호강,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은 아니지(참여자C).

♥ 인간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짐

오히려 오빠의 죽음으로 내가 정화된 느낌, 정말 몹쓸 사람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선하게 사람을 쳐다 보게 되는, 위로할 줄 알게 되는, 내 자신

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 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삶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참여자F).

♥ 겸손해짐

나는 그냥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뭔가 위에서 밑으로 바라다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시선을 바라보려고 했지요. 왜냐 하면 사람이 자신을 낮추려고 해도 정말 자신을 낮추기는 힘들어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았을 때 가장 바닥부터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으려고 한 것이지요(참여자F)..

18) 사랑을 실현하기

참여자중에서 자신이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과 도움을 준 부모님의 참 사랑과 친구의 도움들을 이제는 타인에게 주고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은 자살 미수에 그쳤지만 가족의 자살 충격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 진정한 삶을 살고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통스런 경험 후 삶의 기쁨을 맛보고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으며 그들과 어려움을 같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더불어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선을 베풀고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어려움을 같이함’, ‘타인의 아픔을 헤아림’, ‘도움을 주고 싶음’, ‘진정한 사랑을 베풀게 됨’으로 개념 도출하였고 ‘사랑나누기’로 묶어 하위 범주화하였으며 ‘사랑을 실현하기’로 범주화하였다.

♥ 어려움을 같이 나눔

나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대해 줄려고 해요. 진정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이에요. 원래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좋은 일 있을 때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고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지요.(참여자F).

오빠의 자살은 나에게 너무 힘겹지요. 무척 힘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나는 같은 입장이어서 그런지 쉽게 나의 가족의 자살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같은 입장이면 얘기할 수 있지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 싶어요. 간호사라는 직업도 아마 좌우할 것 같아요(참여자G).

♥ 타인의 아픔을 헤아림

남편은 엄마 때문에 친구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엄마의 이상한 면 때문에 친엄마를 새엄마로 생각할 정도로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더욱 내가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은... 나는 죽음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서 세상 웬만한 일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친구들 만나면 내가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들어주는 입장이 되었고 정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나 할까요.(참여자F).

♥ 도움을 주고 싶음

그 때 이후로 오빠와 같은 나이에 장가들지 않은 사람들, 특히 힘들어 보이면 어쩌나 마음이 아프든지... 남자가 초라해 보이는 것은 정말 좋지 않더군요. 가엾게 보이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참여자E).

도서실에 자주 오는 아저씨가 있어요. 정말 누가 보면 구토가 날 정도로 냄새가 나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한 번은 교회에 갔다 오면서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아저씨네 집을 찾게 되었어요. 정말 더럽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 교회 실로암에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형수가 있어서, 형수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형수는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할까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며 거절하더군요. 정말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요즈음 도서관 근처에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셨는지...(참여자G).

♥ 진정한 사랑을 베풀게 됨

선교하는 마음으로 조카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사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큰 조카에게 쌀, 참깨, 콩 등을 보내 주기도 하고요.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을 나눠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지요. 오빠가 나에게 준 사랑을...(참여자A).

친구 중에 자폐증 아들을 가진 친구, 엄마의 백혈병으로 힘겨워하는 친구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지요. 나도 하나씩 선을 베풀게 되었지요.(참여자F).

3. 축코딩

1)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축코딩(axial coding) 과정은 범주와 하위범주와의 관련성을 지어봄으로써 자료를 묶는 과정이며 패러다임모형(paradigm model)을 통해 범주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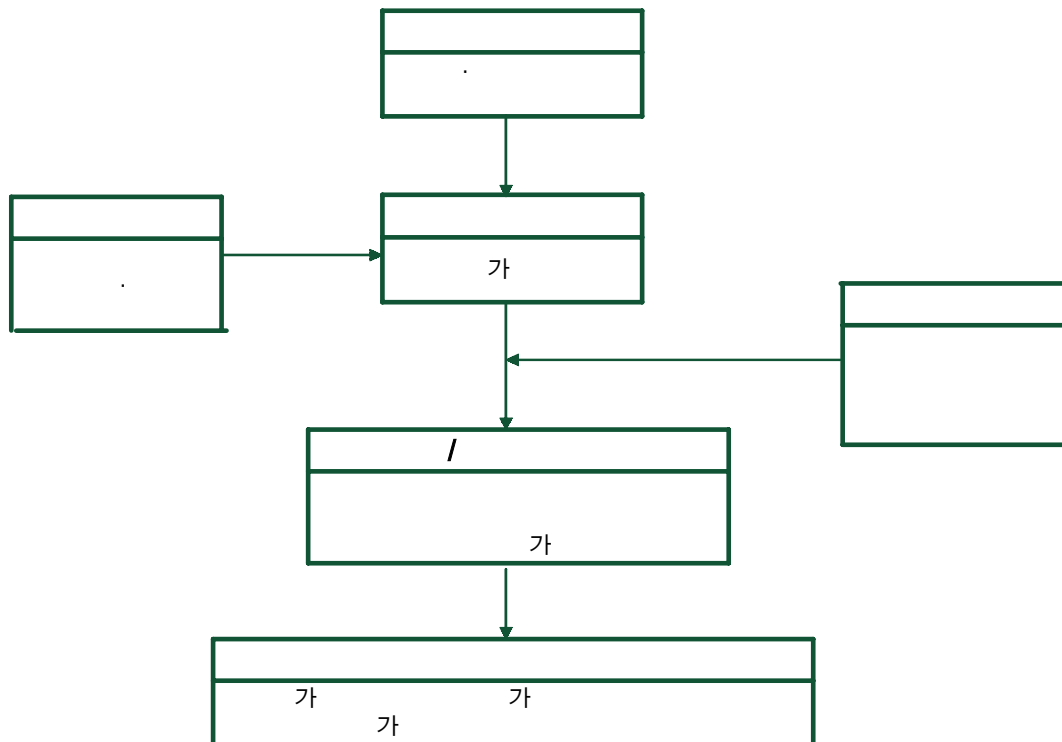


그림 IV-1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상황

인과적 상황(causal condition)은 현상을 일으키고 진행시키는 사례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 인과적 상황은 ‘자살·죽음 부정하기’와 ‘자살원인탐구’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살로 가족을 상실하게 된 현실을 부정하면서 믿기지 않은 현실을 수용해야만했고 그런 충격의 반응으로 오히려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자살원인탐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살 충격의 심적 고통을 ‘고통을 가슴에 묻기’로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므로

‘자살·죽음 부정하기’, ‘자살원인탐구’는 인과적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연구 결과 ‘자살·죽음부정하기’의 속성은 [강도]에 따라 [심함]과 [약함]으로 나타났고 ‘자살원인탐구’의 속성은 [정도]에 따라 [깊음]에서 [얕음]으로 나타났다.

표Ⅳ-3 인과적 상황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자살·죽음부정하기	강 도	심함 ... 약함
자살원인탐구	정 도	깊음 ... 얕음

(2) 현상

현상(phenomena)은 하나의 중심적 관념(idea), 사건(event), 일(happening)을 뜻하며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중심현상은 ‘고통을 가슴에 묻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으로 매우 심한 고통을 갖게 되었고 막막함과 절망감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 없음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또한 고통을 가슴에 묻어두고 지속적인 아픔과 상처에 시달리게 되며 항상 슬픔이 내면에 존재하게 되었다. 더불어 우울증, 피해의식, 열등의식, 죄의식 등과 같은 자살 후유증을 가지게 되며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결국, 참여자들은 이런 아픔을 ‘고통을 가슴에 묻기’로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중심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고통을 승화시켜나가는 전략으로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고통을 가슴에 묻기의 속성은 [강도]에 따라 [심함]에서 [약함]으

로 나타났다.

표 IV-4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고통을 가슴에 묻기	강 도	심함 ... 약함

(3) 맥락

맥락(context)은 현상에 반응하고 현상을 다루고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작용/상호작용 내에서 볼 수 있는 일련의 특별한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인 ‘고통을 가슴에 묻기’의 맥락은 ‘죄의식’, ‘자살·죽음수용하기’ 이었다. ‘죄의식’은 가족들이 자신을 자책하는 정도에 따라 심적 고통을 느끼는 점에 차이가 나타나고 전략을 수행하는 면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는 전략 수행을 잘못하고 극복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으며 방황하고 무심한 삶을 살게 되었다. 반면 ‘죄의식’을 덜 가지는 경우의 참여자들은 삶의 전환점으로 계기를 삼아 보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생각과 목표를 갖고 삶에 충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의식’의 속성은 [강도]에 따라 [심함]에서 [약함]으로 나타났다.

‘자살·죽음수용하기’는 자살로 인한 죽음을 긍정적으로 의미부여 하여 수용하는 경우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따라서 죄의식과 관련되어 고통이 승화되는 진행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살·죽음수용하기’의 속성은 [반응]으로 [긍정]에서 [부정]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표IV-5 맥락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자살·죽음수용하기	반 응	긍정 ... 부정
죄의식	강 도	심함 ... 약함

(4) 중재상황

중재상황(intervening condition)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적 상황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중재 상황은 ‘자살에 대한 편견’, ‘지원정도’, ‘사별기간’, ‘고인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편견’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에 대한 편견’, ‘자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차원이 다른 죽음’, ‘지옥에 떨어짐’, ‘죄를 짓는 일’로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편견’의 속성은 의식하는 [강도]로 [심함]에서 [약함]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지원정도’는 ‘지원체계의 도움’, ‘지원체계의 결여’, ‘경제적 여건’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주변인, 절대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 오명화가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에게 부정적인 특성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여 지원정도가 결여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 넉넉한 경우는 방황이나 좌절을 하지 않았고 쪼들린 경우는 고통을 벗어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도’의 속성은 [유형]으로 [다양함]에서 [제한적임]으로 나타났고, ‘지원정도’는 [많음]에서 [적음]으로 나타났으며 [연속성]은 [지속적임]과 [일시적임]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사별기간’은 자살 사별에서 특징적이었는데 사별 시간이 오래 될수록 고통의 극치는 낮아졌으나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기간의 속

성은 [시간]으로 [길음]에서 [짧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고인과의 관계’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의 경우로 특징적으로 부모, 배우자인 경우에는 심적인 부담도가 매우 컸고 자녀인 경우에는 심적·경제적인 부담도가 모두 컸으며 형제인 경우에는 심적·경제적 부담도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고인과의 관계’의 속성은 [부담도]로 [많음]에서 [적음]으로 나타났다.

표Ⅳ-6 중재상황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자살에 대한 편견	강 도	심함 약함
	유 형	다양함 제한적임
지원정도	연 속 성	지속적임 일시적임
	지지정도	많음 적음
사별기간	시 간	길음 짧음
고인과의 관계	부 담 도	많음..... 적음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y)은 현상을 다루고 수행하고 반응하도록 고안된 전략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고통을 가슴에 묻기’라는 중심 현상을 다루기 위한 전략으로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의 속성은 [유형]으로 [적극적임]에서 [소극적임]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유형에 따라 전략 수행이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

표 IV-7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인내하기	유 형	적극적임 ... 소극적임
희망 갖기	유 형	적극적임 ... 소극적임
현재에 충실하기	유 형	적극적임 ... 소극적임
함께하기	유 형	적극적임 ... 소극적임
절대자의 도움받기	유 형	적극적임 ... 소극적임

(6) 결과

결과는 현상을 다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수행함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항상 예측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들은 ‘고통을 가슴에 묻기’라는 고통 현상 속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한 결과 ‘자기가치 터득되기’,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 ‘소망을 찾아가기’, ‘사랑을 실현하기’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 ‘자기가치 터득되기’와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의 속성은 [정도]로 [کم]에서 [작음]으로 나타났고 ‘소망을 찾아가기’의 속성은 [정도]로 [강함]에서 [약함]으로 나타났으며 ‘사랑을 실현하기’의 속성은 [정도]로 [많음]에서 [적음]으로 나타났다.

표 IV-8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 주	속 성	차 원
자기가치 터득되기	정 도	کم 작음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	정 도	کم 작음
소망을 찾아가기	정 도	강함 ... 약함
사랑을 실현하기	정 도	많음 ... 적음

2) 과정분석

과정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재적 상황 변수의 영향을 받아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경험이 역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실·충격시기', '극복시기', '성숙시기', '나눔시기'의 하위 과정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각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과정에 오래 머물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였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1) 상실·충격시기

이 시기는 자살로 가족을 상실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은 죽음을 부정-수용하고 자살원인을 탐구하며 죄책감을 갖는 시기이다.

가족들은 자살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당황스러워하며 자살을 믿지 못하므로 현실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죽음의 부정은 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버림 받았다는 것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겠다.

황당했구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했다. 어떻게 자식들에게 큰 짐을 지우고 갈 수 있을까. 사형선고를 받으셨지만, 암이라는 것의 고통이 매우 컸고 힘들었다는 것을 알지만, 믿기지도 않았지요.(참여자J).

그런데 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아빠 아프지 않았잖아. 피가 나야 돌아가시는 거잖아. 하며 묻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만 아프고 눈물만 나오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왜 돌아가셨는지 나도 몰라.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조카들을 끓여놓고 울다가 내가 기절을 했지요.(참여자 A).

또한 사별가족들은 충격의 반응으로 고인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 자신의 심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남편은 아들과는 따뜻하게 오순도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언제인가부터 술만 먹으면 소리를 지르곤 했어. 이해할 만한 것이 속을 표현할, 스트레스 해소할, 뭔가가 없었으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싫어하는, 뭔가 대화가 없는, 정말 아들과 남편은 맞지 않는 성격이었지. (참여자D).

자살하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자살 한 것이라서 아빠도 용서할 수 없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남은 식구들에게 상처주고 하나님에게도 죄 짓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해쳤으니까요. 잘못된 거야. 나는 싫어요. 우리들도 힘들게 했구요(참여자B).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사별가족들의 반응은 왜 그런 일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자살의 동기와 궁극적인 원인을 탐구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자살의 원인을 따져가며 생각할 때 그 때의 상황이 조금 달랐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지속적인 아쉬움은 결국 ‘내가, 우리가, 왜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했나?’로 꼬리를 물어 무능력감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많이 받고 갔다고 엄마에게 그러셨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을 많이 의지했지요. 살고 싶다고, 알면서도, 시댁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인데... 저는 참 무거워요. 지금도, 아버지는 기도원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오셨었는데...(참여자J)

내가 그 때 결혼하지 않고 3년만 오빠 힘들 때 돌봤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오빠가 자살을 하게끔 일조를 한 사람인가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울케가 들락날락 했을 때 결단을 내리도록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참여자A)

한편으로 가족들은 고인으로 인한 수치감, 창피함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가족들의 내면의 세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위축되고 좌절하게 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지속적인 이러한 감정은 가족들의 삶에 있어서 열등의식, 피해의식, 모난 성격, 우울, 대인기피증 등을 갖게 하여 삶의 비전과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된다.

나는 희망도 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해서 잘 되어야겠다고 하기 보다는 빨리 커서 무조건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살았어요. 생각이 올바르게 못했던 것 같아요(참여자B).

특히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거나 아는 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며 가족들끼리도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라 생각되어 매우 조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이 자살 사실을 잊기를 바라고 모르는 척하기를 바라며 지우기를 바란다.

철없는 아줌마들 많아요. 궁금하겠지요. 어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인사하고 동생은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고 물어 네 어디 어디 살아요 하며 전화번호를 써 주었는데 오늘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하니 궁금할 수밖에... 하지만 대답해주는 나는 만신창이가 되는 수밖에... 정신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차라리 내가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 하듯이 울부짖을지언정. 주변 사람들이 오빠의 자살을 물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남편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크게 느껴질 수가 없고 위대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정말 감사해요. 기억에 떠올리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괜히 싫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오빠 기일이 언제지요 라고 묻지 않아요. 더구나 엄마에게는...(참여자A)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반응은 항상 내면에 슬픔이 존재하게 되고 작은 상처라도 쉽게 떨칠 수 없어 예민하게 반응하며 누구를 막론하고 죄책감을 많이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조카는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되면 아주 오래가지요. 우리 애들은 그랬냐며 쉽게 잊는 것 같은데, 조카는 상처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름씩 혼자 가슴앓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담아두고 살면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것이지 하며 타이르기도 하지만요(참여자A).

하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예민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고 일단은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얼마 전에, 나는 굳이 내 입에서 오빠의 일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꼭 내 모습이기예, 얘기를 했지요(참여자E).

일단은 오빠의 죽음으로 슬픔이 있었지요.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하고요. 항상 슬픔이 가슴 속에 있어요(참여자F).

참여자들이 가장 힘들어 한 기간을 보면 4개월, 1~2년 정도, 3~4년 정도, 5년 정도 등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서 고통의 극치는 낮아졌으나 영원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응어리져있음으로 표현을 하였다.

사실은 지금도 생각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지요. 그 때는 가슴이 불안하고 엠블런스 소리만 들어도,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애쓰는 거지요. 정말 오래가는구나 생각하지요. 아마 이런 상처는 죽을 때 까지도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요.(참여자E).

참여자들은 자살 사건으로 가족을 상실함으로 충격을 받고 반응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거부, 부정하면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한 현실에서 자살자는 어차피 세상에 없고 자신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2) 극복시기

이 시기는 고인으로 인한 충격의 반응을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함으로 자신을 이겨나가는 시기이다.

자살의 충격으로 자신과 가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해야 할지에 직면하게 된다. 막막함과 절망감으로 먼저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가족의 위기에 좌절감과 실패를 갖게 되지만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과 가

죽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족들은 자살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 자체를 잊으려고 했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연연해하지 않았다. 또한 얽매이지 않고 죽음을 놔 버려서 자신을 빨리 추스렸으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함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다. 또한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집중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다 빨리 이 시기를 잘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힘겹고 지칠 때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며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 취미 활동도 즐겼다. 또한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자살자의 명복을 기도했고 내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며 순간순간 밀려오는 절망감을 없애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또한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통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었다.

(3) 성숙시기

이 시기는 극복 과정을 거쳐 삶이 성숙되고 이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기이다. 참여자들은 극복시기를 거쳐 심리적으로 안정되었고 자살한 가족의 죽음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 충실히 하고 목표를 세워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쉽게 상처 받고 좌절하고 주눅 들었으며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력소를 갖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추스르고 자기 체면으로 자신을 격려했으며 일에 몰두했다. 또한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 절대자에게 의지함으로 삶의 힘을 공급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

은 이러한 경험으로 절대 삶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이는 고인들이 바라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에 확신을 가짐으로써 생겨난 것이었다. 따라서 자살자가 하지 못한 일, 하고 싶어 했던 일까지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삶까지 살아야 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자살은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가족의 자살 후유증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가족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을 생각하게 되는 여유를 가졌고 자살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만회하는 삶을 경험했고 삶을 정화시키는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더욱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할 때마다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지요. 우울할 때마다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오빠는 오빠, 나는 나라는 즉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빠만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슬픔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나를 잡아야 되는 거지요.

전에는 그런 허황된 삶, 꾸미는데 돈 투자하고 비싼 옷만 입고했는데, 오빠가 죽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많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더군요.(참여자F).

성공해서 집안을 돌보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아직까지 결혼은... 아직 필요성도 못 느끼니까요. 제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은 것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기에, 그나마, 그래서 성공해서 풍족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가족이 잘 살았으면 해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으면 해요.(참여자I).

(4) 나눔시기

이 시기는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을 갖고자 하는 시기이다. 참여자들은 자살로 인한 충격과 상실의 심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하고 유지, 관리함으로 삶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여 삶의 목표가 세워지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별자들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하고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정말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준 부모, 친구, 친지, 이웃을 떠올리며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활력소를 공급 받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삶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그 내면에는 절대 자살로 인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때 이후로 오빠와 같은 나이에 장가들지 않은 사람들, 특히 힘들어 보이면 어쩌나 마음이 아프든지... 남자가 초라해 보이는 것은 정말 좋지 않더군요. 가

엽게 보이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참여자E).

나는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좋은 일 있을 때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고요. 뭔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지요. 친구 중에 자폐증 아들을 가진 친구, 엄마의 백혈병으로 힘겨워하는 친구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지요. 나도 하나씩 선을 베풀게 되었지요.(참여자F).

선교하는 마음으로 조카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사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큰 조카에게 쌀, 참깨, 콩 등을 보내 주기도 하고요.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을 나눠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지요. 오빠가 나에게 준 사랑을...(참여자A)

4.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본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핵심범주를 전개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1) 분석적 이야기

참여자들은 자살 충격의 반응으로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한 충격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파급 효과가 커서 삶 전체를 좌절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게 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 또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생겼나?’ 하는 생각에 몰두하여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수치심, 원망함,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를 단절하게 되어 우울해지게 되고 피해의식, 열등의식 등을 갖게 된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살자 가족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주변 자살자에 대한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생기는 것이며 자신이 스스로 도움을 주지 못한 아쉬움과 자살 오명화에 따르는 죄의식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혹여 누군가가 고인에 대해서, 자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체하는 것,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가족을 주시하는 것 등에 대해서 강하게 싫어하고 거부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내며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과거와 연결시켜봄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계기를 갖게 되어 현실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현실을 수용하게 되는 데는 고인의 죽음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를 두게 된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현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과 자살자의 삶의 뉘를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현실을 직시하여 충실하게 되고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 지쳐 있던 삶 속에서 새롭게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 쇠사슬에 뭉켜 묶여 있던, 거미줄에 엉켜 있던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고 헤쳐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쉽지 않기에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므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지속적인 활력소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추스르고 채찍질한다. 유형에 따라서는 주눅 들고 위축되어 주저앉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참여자들은 이런 삶을 헤쳐 나오기 위해서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 형태의 전략을 수행하였다. 특히 종교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였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통해 절대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활력소를 공급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가족의 문제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만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진보된 삶을

살려고 애쓴다. 하지만 가족들은 자살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영원히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위해 끊임없이 관리하고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참여자들은 자살의 충격으로 많은 시간과 암울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지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삶이 성숙하게 된다. 더불어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같은 경우가 아닐지라도 상처를 가진 자들을 위로하며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결국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목표로 하게 되고 제2의 자살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강한 욕구를 보이게 된다. 즉 이들의 고통은 개인, 가족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친구, 친지,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어 극복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조집단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차원에서 특별시책과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핵심 범주 : 승화되기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의 경험에 관한 분석적 이야기에서 나온 핵심범주는 ‘승화되기’였다.

참여자들은 가족의 자살로 심한 충격의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삶 또한 접고 싶은 감정을 지니고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살을 수용하기까지 절망감, 원망함, 슬픔, 안타까움, 우울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러한 가족의 아픔과 상처는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되어 결국 고통을 잘 이겨내고 승화시키는 도리밖에 없게 된다. 반면 가족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돌아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보충하는 삶을 살며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또한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의미부여를 함으로 자살

을 수용하고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게 된다. 또한 같은 경험을 가진 자들과 아픔을 가진 자들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선을 베풀고자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삶을 소망하게 되어 기쁨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절망적인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고통이 승화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가족의 자살로 인한 충격과 상실의 절망감 속에서 고통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승화되기’의 과정이었다.

3)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

(1) 가설적 정형화

가설적 정형화는 핵심범주와 각 범주들 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정형화하는 과정으로 참여자들의 사별 경험에 관한 근거자료에서 도출된 핵심범주인 ‘승화되기’와 맥락인 ‘죄의식’과 ‘자살·죽음 수용하기’의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의 ‘승화되기’
- ②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의 ‘승화되기’
- ③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의 ‘승화되기’
- ④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의 ‘승화되기’

(2) 가설적 관계진술문

관계진술문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의 속성에 따른 핵심범

주와 인과적 상황, 중재적 상황,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진술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①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는 가족의 자살을 의미부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게 된다. 하지만 죄의식이 너무도 크고 강하기에 전략 수행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면이 나타나 ‘승화되기’가 지연될 것이다.

②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는 가족의 자살을 의미부여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죄의식이 비교적 약하기에 전략 수행이 잘 되어 ‘승화되기’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③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는 가족의 자살을 절대적인 죄로 보기에 자살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죄의식이 매우 크고 전략 수행이 소극적이므로 ‘승화되기’가 매우 느릴 것이다.

④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는 가족의 자살에 대한 의미부여가 부정적이어서 자살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죄의식이 약하기에 전략 수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므로 ‘승화되기’가 빠를 것이다.

4) 유형분석

이상에서 제시한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해보면서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한 결과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1) 일몰형

일몰상태란 대기의 온도가 점차 떨어져서 가스, 먼지 층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공중에 뜬 채로 정체 되어 빛의 산란 및 굴절현상이 커져서 태양이 어둡고

붉은 빛의 일그러진 타원형으로 보이게 되며, 결국에는 완전히 저서 암흑의 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인의식이 강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을 절대적인 죄로 보기에 자살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죄의식이 매우 크고 전략 수행이 소극적이므로 ‘승화되기’가 아주 느린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참여자(B, H)의 경험에서 도출되었다(그림 IV-2). 이 유형은 고인의 죽음을 절대적인 죄로 생각하여 죽음을 강하게 부정하기에 자살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자살 오명화가 심하여 죄의식이 매우 큰 경우이다. 또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로 강한 수치감을 가졌고 지원정도가 제한되었다. 이 유형의 공통점은 고인에 대한 원망감이 매우 커서 고인을 용서하지 못했다. 또한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의 전략수행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소극적이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첫째, 배우자인 경우로 부부간의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감과 결과적으로 자살을 했기에 그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죄책감이 매우 큰 경우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보아야 할 남은 가족이 있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은 뒤로하고 자식의 삶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부모가 자살한 경우로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갖기에 사는 것 자체가 힘겨웠으며 또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울타리가 없는 삶이기에 이들은 강한 원망함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갖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인 건강의 결핍을 더욱 느끼게 되고 결손가정이 되었으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성장해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정서적인

지원과 관심의 손길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고 또 다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삶의 변화 양상은 있지만 고통이 승화되는 진행이 매우 느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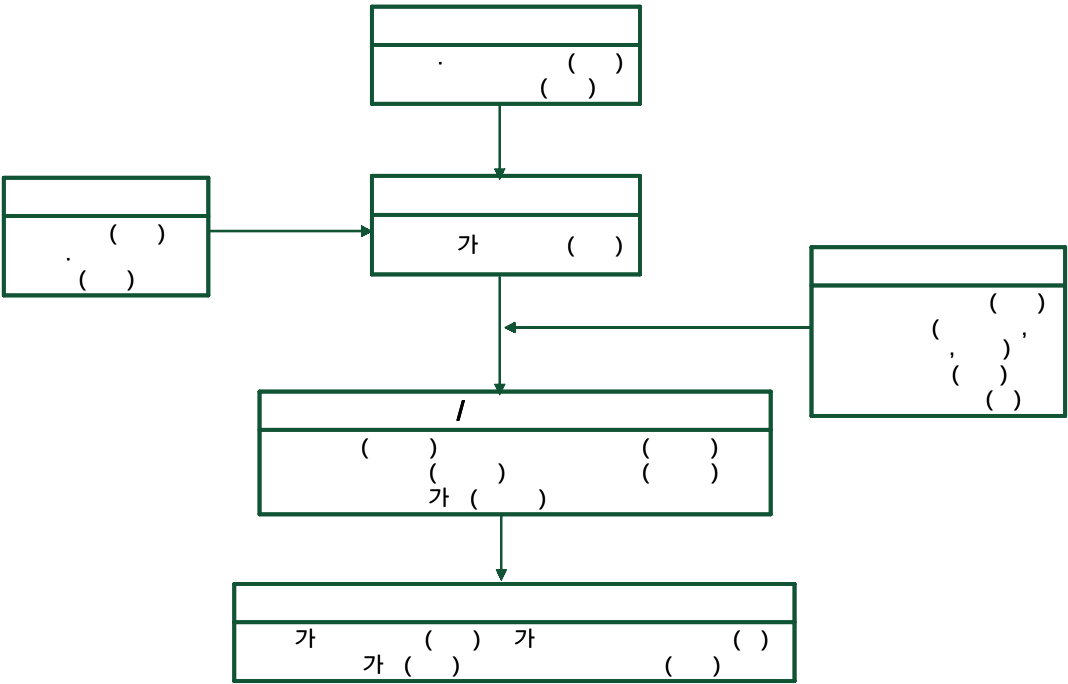


그림 IV-2 유형1(일몰형)

(2) 일출형

일출상태란 새벽녘에 대기의 온도가 최저로 떨어짐으로써 빛을 산란, 굴절시키는 매체인 공중에 정체되어 있던 가스, 먼지 층을 지표면에 최대한 가까이

하강시킴으로써 일몰시보다 등글고 밝은 선홍색의 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자살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에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게 된다. 하지만 죄의식이 크고 강하기에 전략 수행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면이 나타나 '승화되기'가 지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참여자(C,D,J)의 경험에서 도출되었다(그림 IV-3). 이 유형의 특징은 첫째, 자살로 자식을 잃은 경우, 부모는 자식을 잃음으로 해서 오는 충격과 고통을 이겨내는데 지금보다 나은 곳, 고통과 절망이 없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등으로 긍정적으로 자살을 의미부여하여 자살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자살로 부모를 잃은 경우, 자신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자신이 지금껏 방황하기 때문에 부모를 잃게 해서 자신을 돌아오게 하려는 절대자의 힘으로 의식하면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살을 수용하였다.

이 유형의 공통점은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며 절대자를 강하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증상을 아주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특징은 남은 자식들이 행여나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자살·죽음의 공포와 후유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경우는 더욱이 충격과 고통이 컸으며 그에 따른 죄책감이 커서 전략수행으로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면이 보다 컸다. 부모를 잃은 참여자의 경우는 성직자로서 절대자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더 빨리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별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에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사별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유형은 공통적으로 인내하기, 현재에 충실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의 전략 수행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며 자신을 이겨나갔지만 희망 갖기와 아픔을 함께하기의 전략수행은 아직도 소극적인 상

태였다.

이 유형은 경제적 활동이 수시로 생각나는 고인을 잊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일을 하였고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회 생활에 전념하고 신학에 몰두하여 자신의 고통을 승화하는 준비기에 있었다.

이 유형은 자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강하게 가지는 것과 더불어 자살 오명화가 큰 경우로 더욱 수치감을 느끼기에 죽음의 의미부여를 하여 긍정적으로 자살을 수용하려 하지만 빠른 시간에 변화를 보이지는 못한다.

이 유형은 종교적 지지체계를 활용할 때 보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전략수행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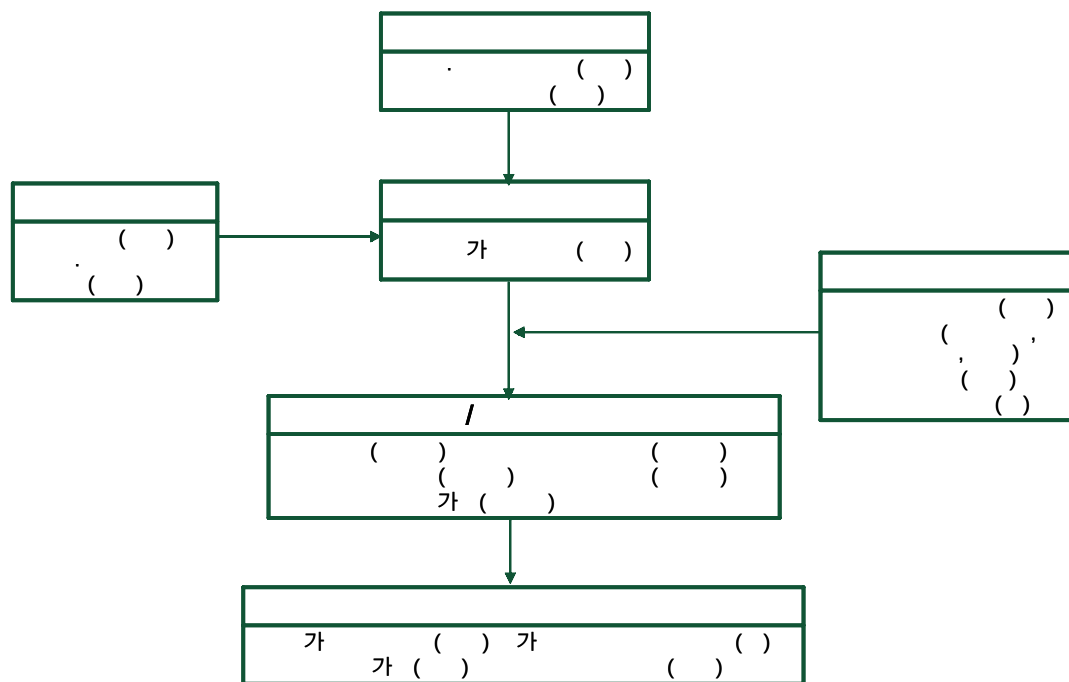


그림 IV-3 유형2(일출형)

(3) 중천형

중천상태란 일출후 해오름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가스, 먼지 층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져서 해의 진원도 및 밝기가 점점 가속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에 대한 의미부여가 부정적이어서 자살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죄의식이 약하기에 전략 수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므로 ‘승화되기’가 비교적 빠르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참여자 I의 경우이다(그림Ⅳ-4). 이 유형은 부모의 자살 원인이 자신과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이기에 비교적 죄의식이 약하여 전략 수행이 효율적이었다. 이 유형은 삶의 변화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변화 양상은 아주 다양하였다. 특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친한 친구에게 쉽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고통을 이겨나갔다.

이 유형은 경제적 여건이 넉넉한 경우로, 일차적인 생활고에 어려움이 없어서 부모의 자살로 방황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현실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유형은 부모의 자살 충격과 좌절의 고통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여 전념함으로 이겨나갔다. 따라서 공부에 집중함으로 성적이 바닥에서 상위까지 되었고 상처 입은 부분 때문에 오히려 성격을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하여 호탕한 성격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아빠와 거리감을 가지고 대화할 시간도 갖지 못했던 상태에서 오히려 시간을 갖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장녀로서 동생도 보다 잘 돌봐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유형은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 보다 빨리 고통이 승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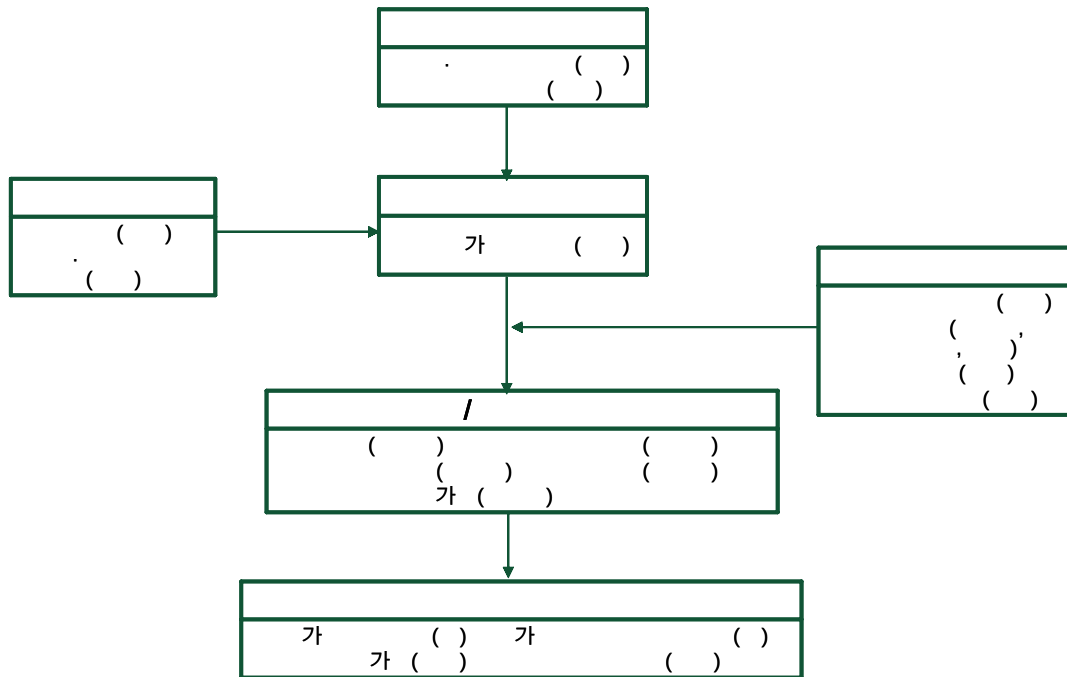


그림 IV-4 유형3(중천형)

(4) 정오형

정오상태란 해가 완전히 뜬 경우로 대기온도와 가스, 먼지 층의 운동성(팽창)이 최고조에 달함으로써 거의 진원이며 직접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밝은 해의 모습이 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자살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을 의미부여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죄의식이 비교적 약하기에 전략 수행이 잘 되어 ‘승화되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참여자 (A, E, F, G)의 경험에서 도출되었다(그림 IV-5). 공통점은 가족의 자살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면이 강하였고 죄의식은 비교적

약했다. 이것은 현재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덜 의식하려고 한 점과 자신을 탓하는 자책감을 덜 가지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유형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열망이 강하였기에 단순히 벗어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화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실천 정도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힘겨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는데 우선 자살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몰두하여 죽음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지속적으로 현실 생활에 활력소를 찾고자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해 나갔다.

이 유형은 주로 가족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제공해 주려는 입장이었고 자살자 가족이라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갔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날 때마다 주눅 드는 자신을 북돋우고 격려하며 고통을 승화해 나갔다.

이 유형은 공통적으로 자살자 가족이라는 충격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일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직업을 가졌으며 자기 직업에 더욱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보다 일에 매달리고 투자하여 직장에서 승승장구 하였다. 둘째, 신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갔다. 즉 생의 의미, 가치, 소망을 신앙하면서 다시금 찾게 되었고 고통을 승화시키는데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유형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가진 경우와 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컸으며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다. 이러한 욕구는 현재 자신의 삶의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현실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곳곳하게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

고 있으며 나아가 자조집단을 만들어 아픔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의 자살이 있기 전에 참여자 자신이 자살 기도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이라는 경험을 오히려 급반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 양상은 우선, 가족의 자살 충격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부족하고 간과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만회하며 정화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살던 삶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위치를 깨닫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더욱 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삶의 자세가 달라져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전념을 하고 열중함으로 삶의 힘을 공급받게 되었다. 또한 그 힘으로 더욱 현실에 충실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활력소를 갖고자 함으로 자기 개발을 하였다. 더불어 이런 경험으로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의를 했고 신앙생활에 전념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상처를 가진 자를 위로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어 선을 베풀고자 하였다. 또 다른 경우는, 고통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신학을 함으로 절대자에게 더욱 나아가게 되었으며 고인이 생각나고 힘겨울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 갔다. 배움에 목표를 두고 늦은 나이에 유아 교육, 독서학교 교사 자격증, 영어, 세미나 등을 찾아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였고 더불어 어렵고 상처 받은 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 유형은 가족의 자살 사별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치 터득되기,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 소망을 찾아가기, 사랑을 실현하기 정도가 큰 경우로 고통이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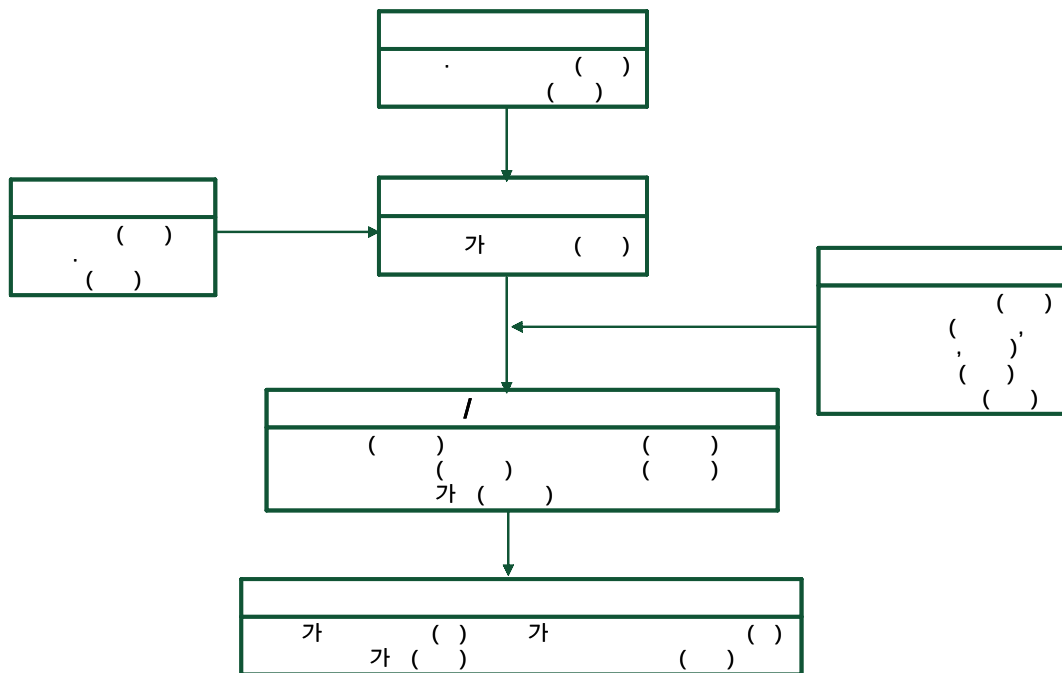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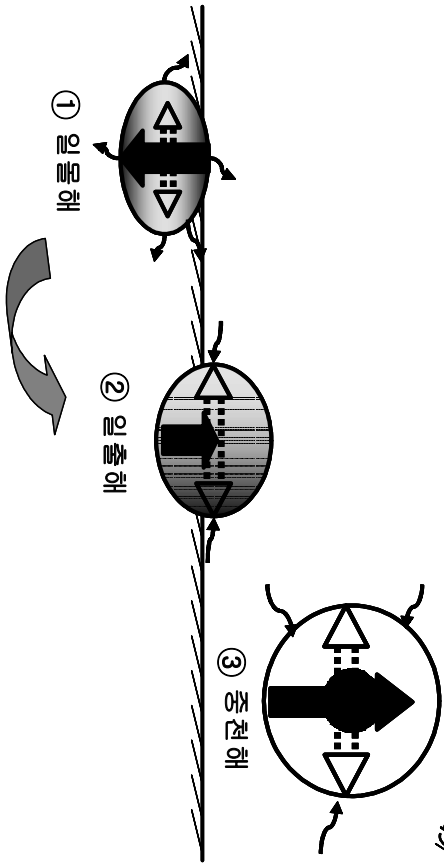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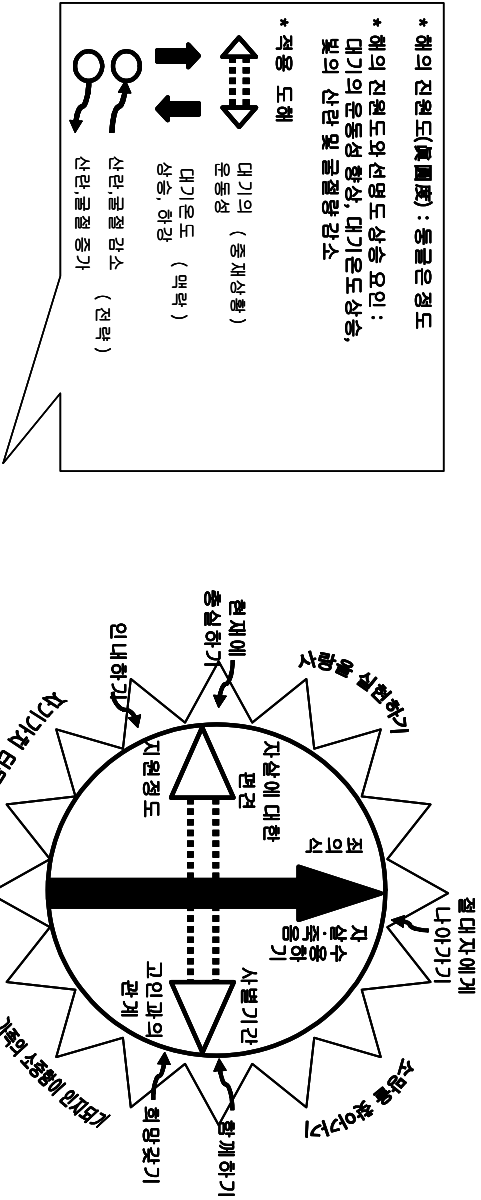
그림 IV-5 유형4(정오형)

5. '승화되기'의 상황경로

상황경로는 직접적으로 현상과 연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의 단계와 결과로서 일어나는 단계들을 통하여 작용/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한 사건, 우연한 일을 추적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추적은 연구의 매개 변수를 제공하도록 도와준다.

이 묘사는 주어진 현상이 어디에 놓여 있고 왜 일어나는지 전후 관계에 관한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승화되기'의 상황경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았다(그림 IV-6).



<그림Ⅳ-6> ‘승화되기’의 상황경로

해오름 현상은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데 이 때 지구의 자전은 해오름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이는 자살·죽음 부정하기와 자살 원인 탐구가 된다.

특히 해오름 시 해의 진원도와 선명도(중심현상)는 고통을 가슴에 묻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기층의 온도(맥락)의 상승과 하강에 좌우되는데 일출 진행시와 같이 온도가 상승하면 점차 진원에 가까워지고 선명하게 되며 일몰진행시와 같이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 점차 타원형이 되고 선명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죄의식의 강·약의 정도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긍정적·부정적인 경우에 따라서 고통이 승화되는 데에 있어서 진행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해의 진원도와 선명도가 상승되려면 빛의 산란과 굴절 정도를 감소시키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빛의 산란과 굴절 정도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가 된다.

더욱이 gas와 먼지 층으로 이루어진 대기층의 운동성(중재상황)이 활발해짐과 둔화된 해의 진원도와 선명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자살에 대한 편견, 사별기간, 고인과의 관계, 지원정도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전략을 촉진, 억제하는 중재상황으로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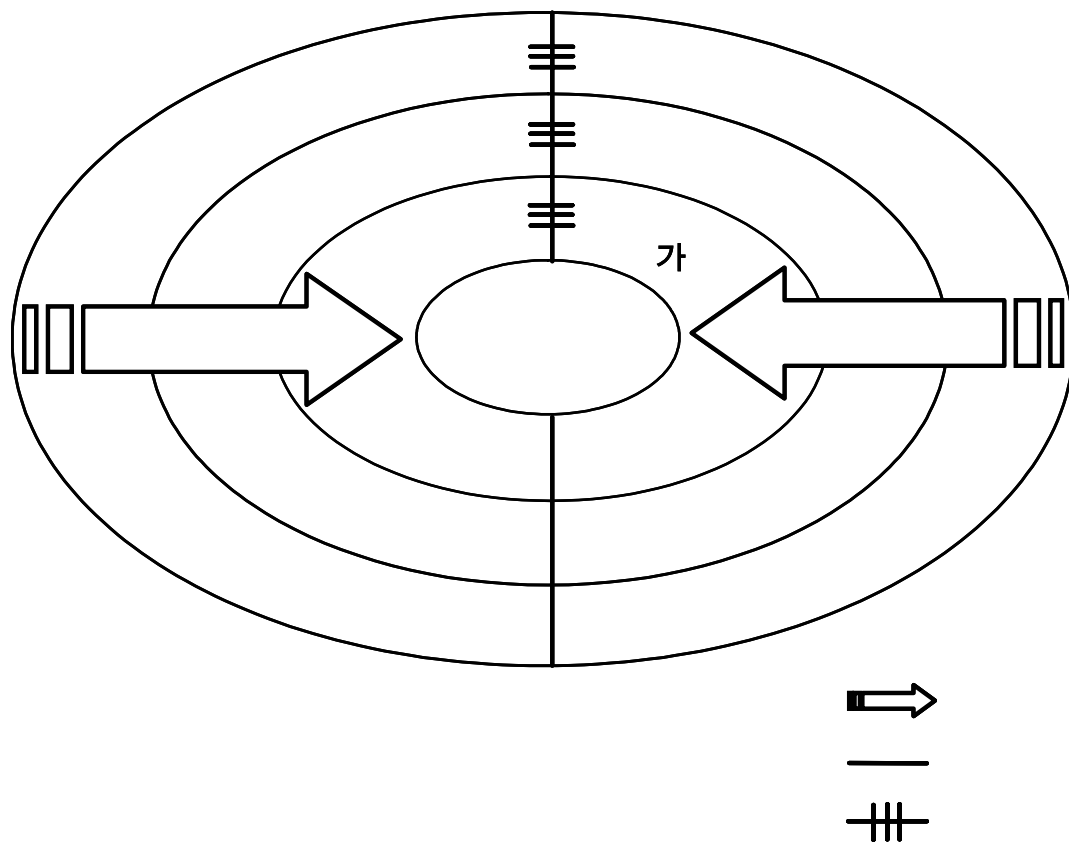
결국, 이러한 해의 진원도와 선명도는 위치와 밝기의 차이에 따라 일몰해, 일출해, 중천해, 정오해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자기가치 터득되기,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 소망을 찾아가기, 사랑을 실현하기의 정도 차이로 결과를 나타낸다.

6.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의 경험에 대한 상황모형

상황모형이라는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작용/상호작용 전략들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적, 거시적 조건들을 서로 연관지어 살펴보고 근거 자

료들의 범주들을 확장시키는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의 경험에 대한 상황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IV-7).



<그림 IV-7>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 경험에 대한 상황모형

1) 개인 / 가족

가장 미시적 수준인 개인의 작용 수준에서부터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예는 참여자 F의 경우로 가족의 자살 전에 자살 미수에 그친 경우이며 방황하고 절망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형제의 자살로 더욱 힘겨워할 때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경험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 된 도리를 행하였다. 또한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으며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부모의 지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I의 경우 엄마의 자살을 경험함으로써 아빠와 자녀들 간에 전에는 서로 대화가 적고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적었었는데 자살 사별을 경험한 이후부터 서로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고 위로가 되어 줄 수 있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D는 자녀가 자살한 경우로 남편과 고인의 갈등 속에서 항상 아쉬움만 갖고 있던 상태였는데 사별 초기에는 남편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는 원망도 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며 미움과 갈등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참여자 B의 경우는 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략 수행에 지연을 초래하게 되었던 경우이다. 아빠의 자살을 경험한 자녀들 사이에서 장녀가 자살 미수에 그쳤지만 차녀가 이를 보고 자살충격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매우 지연되었으며 삶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하는

데 이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고 가족 전체라는 보다 확대된 조건의 영향을 받아 촉진되거나 지연되었다.

2) 개인 / 주변인

개인의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은 자살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에 관련이 있었다. 참여자들이 갖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죄의식은 더 없이 고통을 극화시키는데 이러한 죄의식은 주변인이 사별자들을 보는 인식에 따라 가중됨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살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자살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게 되었고 자살 사실을 절대적으로 감추었으며 노출 시에 무시당함, 업신여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고 주변인들이 모른채하길 바랬다. 이러한 경험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형제의 자살을 경험한 경우에 그 자식에게 사람들이 부모님에 관해서 물으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라고 말해라 혹은 자살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니까 말이야 등으로 표현했고 참여자 J의 경우의 진술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많은 친척들이 오게 되었는데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하여서 고인의 입관식에 외상 받은 시신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며 자살 사실을 감추었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굉장히 비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혹은 가족에 대한 신상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자살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참여자들 스스로의 자살 오명화이지만 결국 주변인들의 자살 오명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결국 그들을 더욱 스스로 주눅 들게 만들고 사회생활에서도 위축되게 하여 여러 가지 전략 수행에 지연을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

죽들은 스스로 낙인찍지 않고 노출되었을 때에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반면 주변인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E의 경우는 형제의 죽음으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친구로부터 친정엄마 가정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정말 어느 가정이든지 치부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구나하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문제와 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었으며 자살의 죽음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I는 엄마가 자살한 경우로 누군가에게 자살 사별의 복잡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들 때 친구에게 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이것은 오래 사귄 친구는 자기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편하게 말할 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로 가족들끼리는 서로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참여자 H의 경우는 배우자가 자살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아내의 역할을 남편이 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딸에게 엄마와만 통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친한 친구의 아내에게 어려움을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 J의 경우는 부모가 자살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별 초기의 경우로 가장 자살로 인한 사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살 오명화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안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하여 고통이 승화되는 삶으로 진행하는데 주변인이 매우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개인 / 지역사회

미시적 수준인 개인의 작용/상호작용 전략들과 가장 거시적인 상황조건인

지역사회라는 사회적 수준과의 관련성은 자살과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에 대한 자살 오명의 부정적인 시선과 같은 사회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이 가족의 자살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든 점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상황적 조건은 자살의 오명에 관한 문제이다. 자살의 오명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수치스런 죽음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또한 그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살 오명이 전이가 되어서 자살 오명화가 일어난 점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런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와 자신의 자살 오명화로 인해서 가족의 자살을 회피하고 싶었고 스스로 자살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음으로 자살 사실을 숨기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 수행은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승화되기’ 과정은 주저앉음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살 사실을 숨김으로 해서 차후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서 자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더 없이 큰 수치감으로 작용해서 더욱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살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업신여김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위축되었고 죽을 때까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자살로 인한 사별을 잘 극복하여 승화되기의 수준인 경우에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가족의 자살을 얘기하기보다는 돌려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극복하여 승화한 참여자들은 같은 경험을 가진 자들을 도와주고픈 마음이 간절했으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살 사별로 부정적인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와 죄의식을 가진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꿈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그냥 오랜 세월을 방황하며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어 결국 ‘승화되기’ 과정이 매우 지연되었다. 반면 자살 사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전처럼 대해 주거나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더욱 삶의 힘을 공급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전략 수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승화되기’ 과정이 보다 빨리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V. 논 의

1.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범주 및 개념에 관한 논의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이 경험하는 중심 개념은 ‘고통을 가슴에 묻기’이다. 이런 심적 고통은 자살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오는 충격과 그로 인한 여파로 여기에는 사회에서 보는 시선과 본인 자신이 인지하게 되는 낙인이 주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자살 충격으로부터 굉장한 절망감을 느껴 힘겨운 삶에 직면하게 되지만 결국 심적 고통을 잘 이겨내어 변화 성숙하는 새로운 삶, 희망의 삶으로 살게 되는 ‘승화되기’의 과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심개념인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Cassell(1982)은 고통은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고통은 동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개인의 의미 또는 중요성, 개인적, 문화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고통은 지속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한 동통으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는 참기 힘든 경험이며(Cupples., & Kahn, 1992) 뜻밖의 죽음, 이혼, 파산과 같은 가족 문제와 관련된 고통은 깊은 상실감을 불러일으킨다. 환경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고통일 경우 좌절, 희망의 상실, 수치감과 굴욕감,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냉혹한 현대사회의 환경 또한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즉 고통은 그 원인이 어떠한지 개인자아와 정신력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Forsyth(1980)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느낌과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이 극심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Lazare(1992)는 자신이 희망 없고 무기력한 존재 경험을 할 때이고 Copp(1990)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할 때 올 수 있다고 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을 때 가장 최악의 절망감을 가져온다고 했으며 동통, 상해, 상실을 경험할 때 인간이 느끼는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라고 했다.

요약하면 고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의 심리, 사회, 영적 측면에 걸친 전인적인 안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추상개념으로 고통은 특히 자신과 의미 있는 관계를 지닌 중요 대상자의 상실(loss)을 경험할 때 오게 되는데 자살은 일반적인 죽음에 비해서 훨씬 그 사별과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죽음으로 고통이 가중된 현상임을 보게 된다.

근거자료에서의 고통의 표현은 자살 충격, 자학하기, 자살 충격의 죄사슬에 쫓겨 묶임, 표현 못하는 아픔 끌어안고 살기, 자살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막막함, 죽고 싶은 심정, 희망이 없음, 정신적인 문제 야기, 자살 생각을 가짐 등으로 절절하게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였고 그에 따른 여파로 자살에 관해 감춤, 사람을 피함, 우울, 피해의식, 열등의식, 원만하지 못한 대인 관계, 쉽게 상처 받음, 방황함, 움츠러들음, 늘 슬픔이 존재함 등을 호소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서 오는 반응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낙인이었다. 즉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다른 경우의 사별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보다 고통을 받고 호감을 덜 주며 보다 비난을 받고 보다 수치감을 느끼며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Calhoun & Allen, 1991).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지속적으로 연관되는 일반적 오명이 사별자의 가족들에게 전이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문화 속에서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에게도 반영되어 그들 자신이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사회적 편견과 스스

로 낙인찍음으로 오는 수치감으로 인해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의 자살에 대한 충격은 더욱 심각해지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살 사별은 선행연구의 이런 결과와 일치를 둔다. 즉 일반적인 사별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메시지를 가졌으며 자살 후 겪는 슬픔은 다른 상실을 경험한 슬픔과는 매우 다른 경험이고(Alexander, 1991) 더 힘들다는 것이다(Clark & Goldney, 1995; Hauser, 1987; Knieper, 1999; Range, 1998; Sprang & McNeil, 1995; Worden, 1991).

근거자료에서의 참여자들의 표현을 보면, 가슴이 저리다 못해 가슴을 뜯기는 고통, 이것은 어느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일, 죽음에 대해서 항상 거짓으로 말해야 하는 고통, 죽을 때까지 털어놓을 수 없고 비밀로 하고 싶은 고통, 남들이 영원히 모른체하고 몰랐으면 하는 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용서할 수 없는 일, 등으로 복잡한 사별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자살로 인한 사별의 특징을 요약하면, 슬픔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왜 자살 하였는가?’ 라는 죽음의 의미를 둘러싼 의문들 때문에 더욱더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Grad & Zavasnik, 1996; Silverman, Range, & Overholser, 1995; Smith, Range, & Ulmer, 1992; van der Wal, 1990). 둘째, ‘왜 내가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로 다른 사별자보다도 죄책감, 비난, 책임 등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Cleiren, 1993; Knovarsky, 1989; McNiel, Hatcher, Reubin, 1988; Miles & Demi, 1992; Reed & Greenwald, 1991; Silverman et al., 1995). 보다 자주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자살 행위를 예측,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 자책한다. 셋째,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었는가?’ 즉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거부당했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며 동시에 자살자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다(Barrett & Scott, 1990; Reed, 1998; Reed & Greenwald, 1991; Silverman et al., 1995; van der Wald, 1990).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다른 유형의 사별자보다 강도 높고 문제가 있는 슬픔을 겪게 된다.

이점은 본 연구의 근거자료와도 일치됨을 볼 수 있었다. 즉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왜 자살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점에 상당히 몰두하고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고인의 자살 동기와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자 하였다. ‘왜 내가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에는 대부분이 자책을 함으로 죄의식을 부추기는 상태에까지 몰고 감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식의 입장에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부모의 경우이다. 부모는 그들이 어쨌든 실패하였다는 인식을 하여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어색함을 느낀다. 이런 느낌은 매우 고통스럽고 상처를 주며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자아개념이 혼란스럽게 된다. 자살자의 부모들은 어렸을 때 그들 부모의 별거나 이혼 때문에 상실감을 느낀 적이 있으며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사고 사별자 부모들보다 이혼과 결혼생활 문제를 더 많이 겪어 그들의 자녀가 부모의 별거 및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자녀의 자살 전에 자녀와 보다 스트레스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였다.

근거자료에 의하면 참여자 D인 경우는 남편과 고인인 아들과의 갈등 관계를 안타까워했었다. 따라서 사망 초기에는 남편 때문에, 즉 남편이 아들을 도와주지 않고 서로 대화도 없고 성격도 맞지 않고 해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였기에 더욱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C인 경우는 장사를 해서 자식을 키운 경우인데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술에 만취해 있는 날이 많았으며 부인을 의심하는 의처증이 있어 아내를 구타하는 등 폭력에 노출 된 경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경우에 Qin외(2000)의 연구에서, 자녀가 정신질환을 갖거나 자

녀를 잃었을 때 부모의 자살 위험이 높아지며 이들 요인의 영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유사함을 보였다. 이는 근거자료에서 참여자 C, D의 경우로 둘 다 장남을 잃고 사별초기에 심한 절망감과 우울증으로 시달렸음을 알 수 있었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남은 자식들이 있어서 마지못해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둘째, 배우자의 경우이다. 배우자의 죽음은 사람이 경험하게 된 삶의 사건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여타 유형으로 사별된 사람들은 1.5년 정도면 대개 건강패턴이 돌아오는데(Farberow et. al., 1992), 사별된 배우자의 자살은 자연사에 비해 보다 신체적인 변화, 보다 높은 건강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사별자의 대처기전에 부담이 될 것이고 심리학적, 심리사회적 도전을 참아내야 할 것이다. 특징적 반응들은 우울, 심리·정신적 장애, 사회적 위축, 슬픔 등이다(Barrett & Scott, 1990). Thompson과 Range(1992)는 우울, 심리학적 장애, 사회적 지지의 부족, 슬픔은 사별과정인데 특별히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에게 나타난다고 했다. Demi(1984)는 배우자의 자살로 인해 남은 배우자들은 보다 죄의식과 분개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런 점은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배우자를 잃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해 보다 분노와 죄의식이 컸으며 꽤심하게 여겨서 고인을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자식을 돌보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에 현재의 삶은 충실하지만 자신의 삶과 미래를 개척하기보다는 자식에게만 관심을 가져 자신의 삶은 위축되었다.

셋째, 자녀의 경우이다. Lehman외(1986)의 연구는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대표적 표본을 통해 사망 후 3~12개월 사이에서 높은 심리적, 병적 상태를 발견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어머니의 사망이 아버지의 사망보다 더 충격적이었으며 부모를 사별한 자녀들은 광범위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했다. 참여자 I는 어머니를 잃은 경우였고 B, J는 아버지를

잃은 경우이었는데 어머니를 잃은 경우가 보다 혼란스럽고 충격적이며 당혹스러움을 표현했고 결과적으로 원망도 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죽음 후 몇 주 이내와 5~7년 후 두 번 시행했던 Lehman외(1986)의 연구에서 어린이들 전반에 걸친 기능의 사정, 학교수행, 심리학적 증상들과 치료들, 나머지 가족과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연구에서는 자살 전에 아이들의 집은 고도의 혼란스런 상태를 나타내었다. 즉 결혼 분리는 가족의 1/2에서 나타났고 부모의 1/3은 경찰과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의 1/3은 부모와 살지 않았으며 부모가 자살한 그 날에 아이들은 1/3은 행동문제, 지속적인 불안, 공격적인 행동, 위축된 징후를 보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아이들 1/2은 적절한, 1/2은 부적절한 기능을 나타냈는데 부적절한 경우는 결혼문제를 가진 부모, 경찰과 마찰을 일으킨 경우, 자살 전에 혼란스러운 인성을 가진 경우로 나타났다. 이런 점은 근거자료에서 참여자 B의 경우로, 사춘기 시절에 아빠의 자살로 심한 방황과 빈곤 속에서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집에서는 방황아로 살게 되었으며 삶에 의미를 갖지 못한 채 결혼 가정에서 사랑 결핍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참여자 I의 경우는 엄마가 자살하기 전에 부모가 자주 싸웠고 그럴 때마다 참여자는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한 없이 울었으며 더 이상 부모가 싸우지 않기를 기원했다고 고백했다.

넷째, 형제의 경우이다. Brent, Moritz, Bridge, Perper와 Canobio(1996)의 연구에서 자살 후 6개월 후에도 형제·자매와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높음을 발견하였고 1년 후에도 어머니의 우울증이 계속 높았으며 12개월과 37개월 후에는 형제자매, 특히 동생의 슬픔이 크다고 하였다. 이는 근거자료에서 참여자 A, E, G의 경우로 오빠를 잃은 여동생의 경우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활력을 갖기 위하여 이들은 꾸준히 인내하기, 희망

찾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 늘 존재하는 슬픔을 극복해 나갔다. 그러므로 자살로 인한 사별 후 애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Wobleski(1985)는 지속적인 놀라움과 혼란스런 죽음의 이미지로 죽음 그 자체는 '3배의 상실'로 사별자가 죽음으로 인해 찬미해왔던 사람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며 지속적인 교제 및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함 이라고 했으며 Horowitz(1986)는 고인으로 인해서 사별가족들이 자살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살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자살 사별 후 나타난 애도과정이 선행연구와 유사했다. 요약하면, 대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자살에 관하여 아는 것, 충격, 믿지 못함, 슬픔, 죄의식, 분노를 느꼈으며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별자들이 한동안 울부짖으며 슬퍼했고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분노, 자살 생각 등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충격의 반응으로 사별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왜 자살 했는가에 몰두해서 자살의 이유를 찾았고 자살의 오명화로 스스로를 낙인찍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더욱 복잡한 사별 경험을 하였다. 또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보다 분노하고 죄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다른 유형의 사별과 자살 사별에서의 차이점 중에 죽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보면, 다른 유형의 사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실 유형의 차이로 인한 애도 유형이 공통적인 경로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애도 경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사 사별자들과는 달라지며 그 결과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이 고통을 완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일부 불안 척도에서는 자살 후 30개월까지 높은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Koversky(1989)는 비록 초기에는 사고 사망자보다 자살 사별자의 슬픔 강도가 낮았지만 자살 사별자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근거자료에서 사별기간은 4개월에서 20년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장 힘든 기간이 4개월, 1~2년 정도, 3~4년 정도, 5정도 등으로 표현하며 아마 이런 아픔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으로 심적 고통을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시간이 다른 유형의 사별에 비해서 훨씬 많이 걸림을 알 수 있었고 자살의 후유증이 참으로 오래 가서 고통이 어느 정도 경감이 되기는 하였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상처로 남아있게 됨을 표현하였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30개월이 지나서는 불안, 우울,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짐을 나타내는 연구들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여타 유형의 사별과 자살 사별의 다른 점의 한 가지는 인정하는 부분에서의 견해의 차이이다. 일반 사별에서는 현실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자살이라는 죽음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여러 형태로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살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려 했다. 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을 수용하는 시간이 훨씬 지연되었고 극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지원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을 돕고 싶으나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며 (Calhoun, Selby & Abernathy, 1986) 이런 태도는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에게 전달되어 거부로 잘못 해석 될 수 있다(Range, 1998). 또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지 노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 즉 이 두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 하여 사별가족들에 대한 지지과정을 저해하게 된다(Van Dongen, 1993). 그러므로 사별가족들에 대한 지지는 사별자들의 인성과 그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 및 자신들의 태도에 달렸음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자살 사별의 복합적인 특징과 자살 오명화로 인해서 지지체계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편안하게 해 주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족들끼리도 서로 대처전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참여자들은 자살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거나 논하는 것, 아니 자살이란 용어를 들먹이는 것조차 싫어하고 거론하지 않으려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살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놓아 그 상처로 인해서 오래도록 아파하고 힘들어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이에 굽히지 않고 극복하여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고통이 승화되는 삶을 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런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각자 노력함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전략으로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를 수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살 충격과 좌절의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활력소를 불어 넣었으며 현실에 충실하면서 아픔을 함께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절대자에게 힘을 공급받게 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삶 즉 승화되기 과정을 거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은 고통을 가슴에 묻지만 이를 극복하여 보다 높은 차원인 승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특별히 종교가 없는 경우에도 마음속으로 절대자를 찾으며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화합하는 가정의 모습이다. 자녀의 죽음으로 아내는 고인과 갈등을 야기한 남편을 비난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남편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연민을 느끼며 안쓰러움과 애뜻함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를 잃은 자녀는 크게 애통해 했지만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싸우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되어 어쩔 다행스럽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자살 사건으로 부모도 자녀에게 보다 사랑을 주고 가까이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더욱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어 가정이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가정의 와해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경우로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더욱 붕괴되고 와해되어 형제들은 만나지도 않고 혹 만난다고 하여도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자살로 인한 사별을 경험한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변화는 곧 자신과 가족의 승화되기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이전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을 반추함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표현해야 할지에 신중을 기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살 사건을 통하여 삶의 의미, 인간관계, 영혼에 대한 생각 등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Decan, 1991). 이런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즉 자기 찾기와 성장, 가족의 소중함,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되어 인생의 목표와 소망이 생김을 볼 수 있었고 고난 후에 찾아오는 인생의 기쁨을 느끼고 참된 인생의 맛을 경험하여 부족함을 채우고 겸손해지며 마음이 넓어지는 등 성숙한 삶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살 사별 경험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같이하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짐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정말 살기 힘들어 자살 생각을 가졌던 경우도 점차 가족, 친지, 이웃의 도움으로 삶이 변화되는 계기를 갖게 되어 시간은 많이 지연되었지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살 사별의 고통 속에서 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교를 갖지 않은 경우에도 종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마음속으로 절대자에게 고인의 명복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열정을 가지고 신앙에 전념하여 자신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참여자중 사별기간이 가장 짧은 4개월인 경우는 무척 힘들고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절대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맡기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기에 고통을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Watson(1985)은 건강을 정신, 육체, 영혼의 통합과 조화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자살사별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된 것과는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자살로 인하여 가족을 사별한 환경과 가족을 잃은 참여자들은 열려진 개방체제로서 상호 교류를 하며 상황 안에서 의미를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하여 환경과 인간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는 건강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Parse, 1981). 즉 고통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환경과는 거리감을 두고 의미 있는 환경과 연결을 지으면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일상생활이나 그 동안 해 오던 일을 놔버리게 되고 자살을 왜 했을까, 무엇이 자살을 하게 하였을까.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전혀 도울 수 없었나 등을 생각하면서 자살의 원인을 탐구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며 의미를 찾아보며 삶의 본질을 반성함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삶에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삶을 위해 이용해야 할 에너지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과정은 Parse가 정의한 건강과 그 의미가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자살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참여자들은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고 의미를 구조화하여 현실을 만들어 가며 성장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관계나 선호도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과의 관계를 맺는다. 또한 변화 과정은 자살로 가족을 잃었다는 고통과 주위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 자살오명 상황에 매여 있기 쉬우나 자살·죽음 수용을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를 긍정적으로 함으로써 현실을 초월하여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힘을 부여하게 된다. 고통을 승화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함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되며 변

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Parse의 이론 중 의미, 율동성, 초월성의 원리에 해당된다(Parse).

참여자들은 자살 사건을 통하여 굉장한 충격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받게 되고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자신의 낙인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터놓을 수 없는 교란된 사별과정을 겪게 된다. 이것은 정상 사별과는 다른 아주 복잡하고 특이한 자살 사별의 애도 과정으로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참여자들은 처음에 절망감으로 본인도 죽고 싶은 심정과 막막함 속에 있지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한 결과 그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하여 결국은 승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승화 과정을 거침으로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계기를 갖게 되어 극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소수는 자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주눅 들고 방황하는 삶을 살기도 했으나 가족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간은 지체되었어도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 극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였으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어려움, 다른 상처를 가진 이를 돌보고자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실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자살로 인한 사별의 아픔은 매우 오래 가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2. 자살로 인한 사별간호

본 연구의 목적이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의 복잡하고 교란된 애도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정립하며 질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자는 이를 수행하고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자살 사별 간호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1) 자살로 인한 사별의 특징과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살로 인한 사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살 오명의 낙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다른 유형의 사별자보다 소외감과 오명을 느끼며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실제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고 Calhoun & Allen(1991)은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이 다른 경우보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호감을 덜 주며 보다 비난을 받고 보다 수치감을 느끼므로 보다 전문적인 정신 건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와 일치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살 했다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 놓을 수 없는 가족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타인들이 보는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의 자살에 대한 오명화로 전이되어서 대부분 수치심이 더함을 볼 수 있었다. 자살 오명의 수치심이 덜한 경우는 소수이었는데 이는 자살한 이유가 본인과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자살이 아닌 다른 사고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거짓 알리고 심지어는 친척들에게도 숨겨 다툼까지 일어나는 소동을 벌이는 등 자살 오명에 대한 우리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자살 오명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데 장애요소가 됨을 보게 되는데, 순수하게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을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Calhoun, Selby, & Abernathy, 1986)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사회적인 지지 노력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살 오명과 사회적인 지지는 맞물려 있는 관계임이 틀림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지지는 사별자들의 인성과 사별자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 및 사별자들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자살 사별의 후유증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나머지 가족의 자살 실행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사별 직후, 부모가 자녀를 잃은 경우의 연구에서, 사별자들은 1개월 동안 자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고하였고 참여자들 중의 한 가족에서 자살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도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이 자살에 노출되었음을 보고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가족 구성원의 자살을 경험하면 나중에 자살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Blumental, 1990; Diekstra & Garnefski, 1995; Mosciki, 1995). 그러므로 자살 사별은 사별자의 자살 행동과 실행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슬픈 경험이라고 본다(Blumental, 1990; Cleiren, 1993; Mosciki, 1995, Ness & Peefer, 1990; Roy, 1992). 즉 자살 사별은 사별자들에게 매우 커다란 상실로 부모, 배우자, 형제, 자식의 경우 모두 살고 싶지 않은 심정과 막막함을 느끼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여 자살자와 동일시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킴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별 직후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나 이들이 도움을 원하지 않는 특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 그들은 개인적인 대처 전략이나 가족내의 지지를 통해 나름대로 대처

를 잘 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도움을 주려는 상태에 사별자들은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상담가들과 의논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사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선호한다(Wager & Calhoun, 1992). 따라서 이런 점을 살피 자조집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 자살 사별을 잘 이겨내어 승화한 경우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별자들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별자들과 같이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굳이 자신의 형제, 부모가 자살을 하였다고 하기보다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이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Wager & Calhoun, 199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별 관리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Rho(1995)의 연구에서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26개가 사별가족관리를 하고, 모임은 22개 기관에 가정방문(20.5%), 전화상담(18.3%), 편지나 엽서 보내기(10.5%), 기타(6.1%)순이었고, 사별 가족 관리를 시작한지 2년 이하의 기관이 3개, 2~5년이 5개, 5~10년이 6개, 10년 이상이 5개로서 평균 5.7%이었다. 운영책임자는 호스피스 책임자가 직접 운영 10개, 사목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6개, 자원봉사자(19.2%), 호스피스간호사(15.4%), 사회사업가(3.8%)순이었고 장소로는 호스피스 기관내의 장소를 이용하는 기관이 12개(80.0%)로 대부분, 사별가족의 집 또는 외부 교회와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3개(20%)이었다. 이것은 자살 사별의 경우가 아닌 경우로 유교문화권에서 사별관리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하지만 자살로 인한 사별의 경우는 사별가족들이 어떠한 도움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가 막막한 경우이다.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자살과 자살 사별의 성격에 관해 도움이 되는 정신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자살의 이유, 동기, 책임을 묻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므로 이들이 자살에 관해 더욱더 많이 배우고 죽음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많은 구조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다. 즉 정신교육설명, 독서 자료, 정신건강전문가와 다른 생존자들과의 대화 등이 이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점은 Celine, Jessica, & Cynthia(2000)의 연구와 일치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관해 자녀와 다른 친척들과 의논하는 방법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 제공을 하는 것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5) 공공교육 캠페인을 벌여 자살 오명을 불식시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별자 가족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고인의 얘기를 서로 하지 않는 것이고 혹 좋은 얘기로 고인을 떠올렸어도 하다보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므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간주하였으며 간혹 무심코 얘기가 나오면 서로 눈치를 살펴 얘기를 중단하는 경우였다. 그러면서도 가족들끼리는 서로 쉽게 자살 사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였다. 하지만 친척, 지역사회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우리 문화 속에 자살 오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깊이 파악하여 대처해야겠다고 사료된다.

6) 신앙생활, 종교적 지지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에 의지하였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 원망, 분노 등이 떠오를 때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며 기도를 하고 애통해했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여 고통을 승화하였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변화를 갖고 성숙되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중단했던 경우는 다시 의지하며 매달리게 되었다. 반면 자살 사실이 알려지므로 지금껏 다니던 교회, 성당을 옮겨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편 종교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도 마음속으로 절대자를 부르며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었고 특별히 기일인 경우는 더욱더 기원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즉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며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보다 빨리 회복될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7) 슬픔, 죽음에 대한 공포, 심리적 반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Decan(1991)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슬픔을 성공적으로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자기표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Lee(1991)는 사별 간호의 핵심은 가족구성원이 충분히 슬퍼하고 자연스러운 애도과정을 거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했다. 이것은 자살 사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고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자살로 인한 사별의 독특성과 죽음과 관련된 복잡성을 이해함이 필요하다.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자살에 대한 충격으로 특히 사별 직후에는 자살에 대한 얘기가 방송 매체에서 나오거나 주위에서 듣게 되면 매우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이는 대부분이 자살을 숨기기에 그 사실이 노출이 된 것이 아

닌가 하는 두려움이 더욱 크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데 특히 고인이 자살을 할 때의 그 상황이 떠오르고 연상이 되기에 수면 장애가 초래되고 혹 꿈에라도 나타나 원망하며 애통해하는 모습 등으로 인함이다. 특히 자녀를 둔 경우의 부모님은 그 자식 또한 잃을까봐 매우 심한 공포심을 갖게 되고 혹 다른 자녀가 자살을 동일시할까봐 매우 힘들어한다.

8)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측면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자살 사별자 중에서 어머니인 경우에는 Lee(1991)의 연구에서처럼 몸의 여러 곳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살이 아닌 사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심리학적 질병을 진단 받거나 합병증의 병리적 현상으로 가는 경우가 드문데 자살로 인한 사별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우울증, 대인기피증, 죄책감, 울부짖음, 지속적인 분노함, 자살 생각 등으로 매우 힘들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점에 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9) 가족의 응집력을 증가하는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다.

응집력이란 삶을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Antonovosky, 1998)으로서 Antonovosky와 Sourani(1988)는 가족의 응집력은 위기 시에 가족생활에 대한 많은 이해와 인지된 통제력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응집력은 가족이 스트레스 사건을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가족의 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지하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성공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전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러한 응집력은 사별 가족에게 중요한 변수임을 Lee(1991)의 연구에서 제시했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이한 점은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대부분이 가족의 응집력이 약해진 경우여서 자살이 일어난다고 보기에 보다 힘든 사별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자살 사별로 인해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보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측면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소수의 참여자들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별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더욱 가족들의 응집력이 약해져 서로서로 만나지 않으며 대화가 없는 그래서 가족 전체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사별 직후나 사별 초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심리적 반응에 주의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교육프로그램 및 도구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우선 자살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게 공공 캠페인을 하여 우리 문화 속에 깃든 자살 오명을 불식해야한다. 또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부모가 자살한 경우의 아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자살 충격으로 인한 심적·정신적인 문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어 차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전문 정신건강요원을 배출하는 것도 급선무라 사료된다.

11)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의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우선, 사별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 역할 수행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대인 관계 문제, 배우자 상실감, 적응문제, 사별자 자신의 건강문제 등을 들 수 있다(Kim, 1990; Seong, 1996; Choi, 1996; Kang, 1997). 이에 비해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첫째, 애도과정에서는 자살이라는 충격, 믿지 못함, 슬픔, 죄의식, 분노를 느끼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많은 수가 슬픔, 행복하지 않음, 지속적인 분노, 자살 생각 등을 가졌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비극의 이유를 찾는데 몰두하였고 자살자 가족이라는 스스로의 낙인과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였다. 게다가 가족의 자살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식하여 서로 비밀스럽게 가슴에 묻고 상처를 갖고 있기에 보다 분노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수가 고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일반 사별과는 달리 복잡하고 교란된 양상을 보임으로써 고통을 겪는 상태이다.

둘째, 심리·사회적 적응 면에서 자살로 인한 사별자들은 스스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가족들과도 보다 감정적으로 멀어졌고 피하는 양상을 보였고 죄의식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오히려 가족 간에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양상을 갖기도 하였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의 울타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성장기에 매우 방황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 수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술로 잊기, 참아내기, 잠시 떠나기, 지워버리기, 생각하지 않기, 회피하기 등으로 자신을 추스르고, 회사 생활에 충실하기, 일로 해결하기 등 일로써 해결하며, 인내하기 전략을 수행하였고 희망적인 생각하기, 즐거움 찾기, 바쁘게 살

기, 자기 개발하기, 대리만족하기로 희망을 가졌으며 적극적이기, 열심히 살기, 성실하기, 현실적이기, 책임감 갖기, 역할 다하기로 현재에 충실하였다. 또한 아픔 나누기, 표현하기, 친구 만들기, 도와 달라고 하기, 도움주고받기 등으로 함께하기를 하였고 기도하기, 성경읽기, 교회에 나가기,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찬송가 부르기, 내세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신앙생활을 통해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일에 몰두하고 전념함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이 다른 사별과는 달리 독특한 죽음의 복합적인 양상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봄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새로운 목표와 목적으로 삶의 자세와 의미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자와 다른 사람의 상처를 헤아리게 될 줄 알게 되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어 고통으로부터 승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간호학적 의의

1) 간호실무측면

본 연구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여타 유형의 사별과는 다른,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의 복합적인 사별양상을 파악·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요원들로 하여금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과 이를 토대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과정을 거치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에게 지지 제공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특성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혹은 안하는 점을 알고 특히 사별직후 간호 중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슬픔을 어느 정도 극복하나 영원히 자살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전인간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의 경험에서 하위 과정들을 탐색함으로써 진행 양상에 따른 사별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자살 사별가족 간호의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간호 연구측면

본 연구는 자살 사별 간호의 애도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승화되기’ 과정이라는 실체이론개발로 사별관리를 하는 곳에서 사별자들에게 추후 연구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3) 간호 이론적 측면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서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4) 간호 교육적 측면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별 관리를 하는 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고 극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간호학 교과서에도 사별 사별간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실제이론 개발을 하고자 함이었고 간호 실무에서 자살 사별의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Strauss와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으로 사별한지 4개월에서 20년이 되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명의 대상자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비교하기와 질문하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이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과정을 통하여 코딩화하였다.

근거 자료들은 분석한 결과 117개의 개념, 30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1.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은 ‘승화되기’ 과정이었고 이러한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실·충격시기 - 극복시기 - 성숙시기 - 나눔시기 라는 일련의

하위과정을 거쳐 전략을 수행하였다.

2.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 패러다임 모형

인과적 상황은 ‘자살·죽음 부정하기’, ‘자살원인탐구’이었고 중심현상은 ‘고통을 가슴에 묻기’였다. 맥락은 ‘자살·죽음 수용하기’, ‘죄의식’이었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상황은 ‘자살에 대한 편견’, ‘지원정도’, ‘사별기간’, ‘고인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자살로 인한 가족들이 수행한 전략들은 ‘인내하기’, ‘희망 갖기’, ‘현재에 충실하기’, ‘함께하기’, ‘절대자에게 나아가기’로 나타났다. 전략수행 결과로는 ‘자기가치 터득되기’, ‘가족의 소중함 인지되기’, ‘소망을 찾아가기’, ‘사랑을 실현하기’로 나타났다.

3.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일몰형’, ‘일출형’, ‘중천형’, ‘정오형’으로 나타났다. ‘일몰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을 절대적인 죄로 보기에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그러면서 죄의식이 매우 커서 전략 수행이 소극적이므로 ‘승화되기’가 매우 느린 경우이다. ‘일출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강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을 의미부여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게 된다. 하지만 죄의식이 크고 강하기에 전략 수행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승화되기’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중천형’은 자살·죽음 수용하기가 부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에 대한 의미부여가 부정적이어서 자살·죽음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죄의식이 약하기에 전략 수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므로 ‘승화되기’가 비교적 빠르게 되는 경우이다. ‘정오형’은 자살수용하기가 긍정적이고 죄의식이 약한 경우로 가족의 자살을 의미부여하여 긍정적으로 자살·죽음을 수용하고 죄의식이 비교적 약하기에 전략 수행이 잘 되어 ‘승화되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경우이다.

본 연구 결과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은 ‘승화되기’ 과정으로 자신과 가족의 자살 후유증을 발견하고 변화하고 성숙되어 고통이 승화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은 자살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충격을 받아 혼란스럽고 복잡한 자살 사별과 맞닥뜨리게 되며 자살 오명의 사회적 편견과 자신의 자살 오명화로 깊은 늪에 빠지게 되어 자신 또한 죽고 싶은 심정의 고통 속에 있게 되지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하고 지지체계의 도움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승화되기 과정을 거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승화되기’과정에서 지지체계의 도움은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인 지원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는 사별 가족에게 매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부모의 자살 사별을 경험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은 절실하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해나가고 제2의 자살 시행을 생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자살로 인한 사별가족의 경험을 연구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배우자, 형제, 부모, 자녀입장에서 각각의 사별 경험을 더 많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비교하여 더욱 정련된 이론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체이론에 근거하여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간호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별 교육프로그램과 도구가 만들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대처전략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3. 신앙생활에 의지하여 고통을 승화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므로 영적측면을 고

려해 간호 중재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 사별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과 기관을 마련하는 것과 자조집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가족의 자살 오명을 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자료 수집할 때 대상자를 접촉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가 없어 많은 수의 참여자들을 확보할 수 없어서 연구의 어려움이 컸으므로 이러한 체계는 꼭 필요하다고 보며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들에게 정부의 실제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Adam, K. S. (1990). Environmental, psychosocial, and psychoanalytic aspects of suicidal behavior. In Blumentahl, S. J., & Kupfer, D. J. (Eds.), *Suicide over the life cycle: Risk factors,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uicidal patients* (pp. 39-9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lexander, V. (1991). *Words I never thought to speak: Stories in the wake of suicide*. New York: Lexington Books.
- Antonovsky, A. (1988). *Stress, Coping, and Health in Famili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Antonovsky, A., &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Bailley, S. E., Kral, M. J., & Dunham, K. (1999). Survivors of suicide do grieve differently: Empirical support for a common sense proposi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 256-271.
- Barrett, T. T., & Scott, T. B. (1990). Suicide bereavement and recovery patterns compared with non-suicide bereavement pattern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 1-15.
- Blumental, S. J. (1990). An overview and synopsis of risk factors,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uicidal patients over the life cycle. In Blumental, S. J., & Kupfer, D. J. (Eds.), *Suicide over the life cycle: Risk, factors,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uicidal patients* (pp. 685-73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Bolton, I. (1983). *My son... My son... : A guide to bealing after death, loss,*

- or suicide. Atlanta, GA: Bolton Press.
- Brent, D. A. (1995).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Mental and substance abuse disorders,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and life stress.
- Brent, D. A., Moritz, G., Bridge, I., Perper, J., & Canobbio, R. (1996). The empathy of adolescent suicide on siblings and parents: A longitudinal follow-up.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6, 253-259.
- Brown, G. W., Harris, A. T., Adler, Z., & Bridge, L. (1986).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16, 813-831.
- Blumer, H.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 perspectives and method*. Englewood cliff, NS : Prentice-Hall.
- Calhoun, L. G., & Allen, B. G. (1991). Social reactions to the survivor of a suicide in the family : A review of the literature. *Omega*, 32, 95-107.
- Calhoun, L. G., Selby, J. W., & Abernathy, G. B. (1986). The rules of bereavement : Are suicidal deaths differ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213-218.
- Cassell, E. J. (1982).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goal of medicin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6, 639-645.
- Celing, P., Jessica, R. E., Cynthia, R. P. (2000). Adults mourning suicide : self-reported concerns about bereavement, needs for assistance, and help-seeking behavior. *Death Studies*, 24, 1-19.
- Choi, H. J. (1996). A Effect that the stress due to the bereavement from one's spouse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her or his feeling of gloom.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s thesis.
- Clark, S., & Goldney, R. D. (1995). Grief reactions and recovery in a

- support group for people bereaved by suicide. *Crisis*, 16, 27-33.
- Cleiren, M. (1993). Bereavement and adapti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aftermath of death. Washington, DC: Hemisphere.
- Cleiren, M., & Diekstra, R. (1995). After the loss: Bereavement after suicide and other types of death. In Mishara, B. (Ed.), *The impact of suicide* (pp. 7-39). New York : Springer.
- Copp, L. A. (1990). The nature and prevention of suffering.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6(5), 247-249.
- Cupples, 1992),, & Kahn, D. L. (1986). The experience of suffering: conceptual clarification and the theoretical definition. *Journal of Advance Nursing*, 11, 623-631.
- Decan, A. (1991). *Philosophy of death*, Seoul : Issue of thinking life and death.
- Demi, A. S. (1984). Social adjustment of widows after a sudden death: Suicide and non-suicide survivors compared. *Death Educations*, 8, 91-111.
- Demi, A. S., & Homell, G. (1991). Hiding and healing: Resolving the suicide of a parent or sibling.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5, 350-356.
- Diekstra, R., & Garnefski, N. (1995). On the nature, magnitude, and causality of suicidal behavior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36-57.
- Dunne, E. J. (1987). Special needs of suicide survivors in therapy, in *Suicide and Its Aftermath: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the Survivors*, Edited by Dunne, E. J., McIntosh, J. L., & Dunne-Maxim, K. New York, Norton.

- Farberow, N., Gallagher-Thompson, D., Gilewski, M., & Thompson, L. (1992).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bereavement process of surviving spouses of suicide and natural death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2, 107-124.
- Forsyth, G. L. (1980). Analysis of the concept of empathy: Illustration of the approach. *Advances Nursing Science*, 2, 33-43.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 Alding.
- Grad, O., & Zavasnik, A. (1996).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bereavement after suicide and after traffic fatalities in Slovenia. *Omega*, 33, 243-251.
- Hauser, M. J. (1987). Special aspects of grief after a suicide. In Dunne, E. J. McIntosh, J. L., & Dunne-Maxim, K. (Eds.), *Suicide and its aftermath: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the survivors* (pp. 57-72). New York: Norton.
- Heikkinen, M., Aro, H., & Lonnqvist, J. (1993).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in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343-358.
- Horowitz, M. J. (1986). *Stress Response Syndromes*, 2nd ed. Northvale, N. J., & Jason Aronson, pp, 317-328.
- Jordan, J. R., Kraus, D. R., Ware, E. S. (1993). Observations on loss and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 425-440.
- Kang, I. (1997). Bereavement stress and adjustment experienced by middle-aged widow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s thesis.
- Kaprio, J., Koskenvuo, M., & Rita, H. (1987). Mortality after bereavement: a prospective study of 95,647 widowed person. *Am J Public Health*, 77,

283-287.

- Kim, S. Y. (1990). The Study of stress and adjustment process of widows' family.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 Kety, S. S.(1990). Genetic factors in suicide: family, twin, and adoption studies. In Blumentahl, S. J., & Kupfer, D. J. (Eds.), Suicide over the life cycle: Risk factors,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uicidal patients (pp. 127-14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Knieper, A. (1999). The suicide survivor's grief and recover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 353-364.
- Knovarsky, R. S. (1989). Loneliness and disturbed grief: A comparison of parents who lost a child to suicide of accidental death.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 86-96.
- Lazare, A. (1992). The suffering of shame and humiliation in illness. In Starck, P. L., & McGovern, J. P. (Eds.), *The hidden dimension of illness: Human suffering*(pp. 152-153). New York: Herder and Herder.
- Lee, J. S. (1991). The Experience of the family whose child has died of cancer.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s thesis.
- Lee, S. Y. (1995). The crisis of family. The Research Association of Korean Women society, Family and Korean Society. Seoul : Kyeongmoon Sa.
- Lehman, D., Ellard, J., & Wortman, C. (1986). Social support for the bereaved: Recipients' and providers' perspectives in what is helpfu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38-446.
- Littrell, J. (1998). Is the reexperience of painful emotion therapeutic? *Clinical Psychology Review*, 18, 72-102.
- McIntosh, J. L. (1987). Survivor family relationships: Literature review. In Dunne, E. J., McIntosh, J. L., & Dunne-Maxim, K. (Eds.), *Suicide and its*

- aftermath: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the survivors (pp. 77-84). New York: Norton.
- McIntosh, J. L. (1993). Control group studies of suicide survivors: A review and critiqu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3, 146-160.
- McNiel, D. A., Hatcher, C., & Reubin, R. (1988). Family consequences of suicide and accidental death: Consequences of suicide and accidental death: Consequences for widow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8, 137-148.
- McNiel, D. F. (1988). Family survivors of suicide and accidental death: consequences for widow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8, 137-148.
- Miles, M. S., & Demi, A. S. (1992). A comparison of guilt in bereaved parents whose children died by suicide, accident, or chronic disease. *Omega*, 24, 203-215.
- Moore, M. M., & Freeman, S. (1995). Counseling survivors of suicide. *The Journal for Specialists Group Work*, 20, 40-47.
- Moscicki, E. K. (1995). Epidemiology of suicidal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2-35.
- Murphy, G. E. (1995). 39Years of suicide research: A personal view.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450-457.
- Nelson, B. L., & Frents, T. T. (1996). Family interactions of suicide survivors and survivors of non-suicidal death. *Omega*, 33, 131-146.
- Ness, D. E., & Peeffer, C. R. (1990). Sequelae of bereavement resulting from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279-285.
- Parse, R. R. (1981). *Man-Living-Health A Theory of Nursing*, New York :

Wiley & Sons.

- Parse, R. R. (1992). Human Becoming : Parse's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1), 35-42.
- Pennebaker, J. W., & O'heeron, R. C. (1984). Confiding in others and illness rate among spouses of suicide and accidental-death victi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473-476.
- Qin, P., Mortensen, P. B., Agerbo, E., Westergard-Nielsen, N., & Erikson, T. (2000). Gender differences in risk factors for suicide in Denmark. *Br J Psychiatry*, 177, 546-550.
- Range, L. (1998). When a loss is suicide: Unique aspects of bereavement. In J. H. Harvey (Ed.), *Perspectives on loss: A source book*. Philadelphia: Brunner/Mazel.
- Reed, M. D. (1998). Predicting grief symptomatology among the suddenly bereaved.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 285-300.
- Reed, M. D., & Greenwald, J. Y. (1991). Survivor-victim status, attachment, and sudden death bereavemen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1, 385-401.
- Rho, Y. J. (1995). *The Korean Bereaved Family Management*.
- Rho, Y. J., Han, S. S., An, S. H., & Kim, C. G. (1994). *Hospice*. Seoul : Hyunmoon Sa.
- Roy, A. (1992). Genetics, biology, and suicide in the family. In Maris, R. W., Berman, A. L., Maltzberger, J. T., & Yufit, R. I. (Eds.),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uicide* (pp. 574-588). New York: Guilford Press.
- Rudestam, K. E., & Imbroli. (1983). Societal reactions to a child's death by suicide. *J Consult Clin Psychol*, 51, 461-462.

- Samy, M. H. (1995). Parental unresolved ambivalence and adolescent suicide: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In B. Mishara (Ed.), *The impact of suicide* (pp. 40-51). New York: Springer.
- Sante' Bien-etre Canada. (1987). *Le suicide au Canada. Rapport du groupe d'etude nationale sur le suicide au Canada*. Ottawa.
- Seong, K. S. (1996). *The Study of the fact finding survey of terminal patient's family for development of a hospice program*.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 Shafii, M. (1988). Comorbidity of mental disorders in the post-mortem diagnosis of completed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s Disorders*, 15, 227-233.
- Shafii, M., Carrigan, S., & Whittinghill, J. R. (1985). Psychological autopsy of completed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 J Psychiatry*, 142, 1061-1064.
- Silverman, E., Range, L., & Overholser, J. (1995). Bereavement from suicide as compared to other forms of bereavement. *Omega*, 30, 41-51.
- Silverman, P. R., & Worden, J. W. (1992). Children's reactions in the early months after the death of a parent. *Am J Orthopsychiatry*, 62, 93-104.
- Smith, P. C., Range, L. M., & Ulmer, A. (1992). Belief in afterlife as a buffer in suicidal and other bereavement. *Omega*, 24, 217-226.
- Sprang, G., & McNeil, J. (1995). *The many face of bereavement: The nature and treatment of natural, traumatic, and stigmatized grief*. New York: Brunner/Mazel.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 Deli : Sage Publications, Inc.

- Stroebe, M. S., Stroebe, W., & Hansson, R. O. (1993). Handbook of bereave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K. E., & Range, L. M. (1992). Bereavement following suicide and other deaths: Why support attempts fail. *Omega*, 26, 61-70.
- van der Wal, J. (1990). The aftermath of suicide: A review of empirical evidence. *Omega*, 20, 149-171.
- VanDongen, C. J. (1993). Social context of postsuicide bereavement. *Death Studies*, 17, 125-141.
- Wager, K. G., & Calhoun, L. G. (1992).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by suicide survivors and their social network. *Omega*, 24, 61-73.
- Walsh, F., & McGoldrick, M. (1991). *Living beyond loss: Death and the family*. New York: Norton.
- Watson, J. (1985).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Colorado, Little Brown Co.
- Wegner, D. M., & Lane, J. D. (1995). From secrecy to psychopathology. In Pennebaker, J. W.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25-4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rtheimer, A. (1991). *A special scar: The experiences of people bereaved by suicide*. London, England: Tavistock/Routledge.
- Worden, J. W. (1991).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2nd ed.). New York: Springer.
- Wroblewski, A. (1985). The suicide survivors grief group. *Omega*, 15: 173-183.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 자살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김용분(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과정생)

연락처 : Tel ; 061-799-6161, 017-612-5480

E-mail ; yb1773@postown.net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자 가족의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별 간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면담은 최소한 1회 이상 할 것이며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돕기 위하여 녹음할 것이고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을 때와 최종적인 보고서에도 익명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면담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비밀에 부치겠습니다.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같은 경험을 가진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 동의사항 >

-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고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연구의 면담에 응할 것과 녹음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습니다.
- 본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으며 특별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본 연구 질문에 성심껏 답변할 것이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으며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03년 월 일, 참여자 :

연구자 : 김 용 분

<부록 2>

면담 질문

1. “힘드시겠지만, 가족의 자살에 대하여 얘기해 주세요.”
2. 자살자 가족이 생긴 후 당신의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3. 가족의 자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4. 항상 가족의 자살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6.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BSTRACT

Bereavement Experiences of the Family due to Suicide of One of Their Family Members

Kim, Yong Boon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Jeong Seop, R.N., Ph.D.

Bereavement is a general and unavoidable event in everyone's life. The bereaved family members would suffer greatly from the death of their lovely member; they suffer from not only grief and loneliness but also anger, guilt and other mental troubles. Thus, they may be more vulnerable to physical and mental diseases, and their intra-family role-playing structure and extra-family relationships might be seriously threatened by the bereavement. In particular, unlike other types of bereavement, the bereavement due to suicide would bring about a serious crisis to the system of the bereaved family. In other words, such a family would be more stressed by the death, probably because they experience the death quite unexpectedly and all of a sudden. Lately in Korea, the rate of suicid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particularly since the IMF bailout program. Although more and more families suffer from their members' suicides, few organizations or professionals manage them, and moreover, few studies have researched into the bitter experiences of the bereaved family due to suicides. Thus,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and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the bereaved families due to

suicide of one of their members as well as their bereavement processes and thereby, exploring some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in them.

To this end, Strauss and Corbin's (1998) basic theory approach was applied, whil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A total of 10 bereaved families due to suicide were sampled finally. They were briefed on purpose and methods of this study and then, agreed to this study to participate in i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003 through August, 2004 to be analyzed as soon as collected, according to Strauss and Corbin's (1998) procedures. The primary tools of analysis were comparison and questioning, while the data were encoded by means of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117 concepts with 30 sub-categories and 18 categories could be deter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xperience of the suicide-bereaved families would be dictated by a process of 'sublimation', which may be divided over time into a series of periods: period of loss and shock, period of overcoming them, period of mental maturity and period of sharing, sequentially.

2. Suicide-bereaved families' experience paradigm model

The casual conditions are 'denial of suicide or death' and 'thinking about the causes of suicide', and the core phenomenon is 'burial of the pain in the heart'. The contexts are 'acknowledgement of suicide or death' and 'sense of guilt', and the intermediary conditions affecting their action/mutual interaction strategies are 'bias towards suicide', 'extent of support', 'relation of the deceased' and 'period of bereavement'. The suicide-bereaved families' strategies are 'perseverance', 'maintenance of a hope', 'being faithful to the present', 'sharing with others' and 'yielding to the Absolute Beings'. The results of such strategies are 'being

awakened of self-value', 'recognition of the family value', 'looking for a hope' and 'practicing of love'.

3.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levancies of 'subliming' centering around its core categories, it could be identified as 'sun-set type', 'sun-rise type', 'midair type' and 'noon type'. 'Sun-set type' will not admit suicide or death, being strongly guilty. This group sees the suicide as an absolute sin, so they are too negative to acknowledge suicide, and being so guilty, they are passive in their overcoming strategies. Thus, their 'subliming' process is very slow. The 'sun-rise type' acknowledges suicide or death positively, being much guilty of it. Since they attach some meaning to the suicide, admitting it positively, they tend to bear the real difficulties and persevere their pain well. However, since their sense of guilt is too intense and strong, they are more or less passive in their overcoming strategies, and therefore, their 'subliming' process is slow. 'The midair type' will not much admit suicide or death, being less guilty of it. They seldom attach any meaning to suicide, finding it hard to acknowledge the suicide or death, but as their sense of guilt is weak, they do not find it hard to implement their overcoming strategies, and so their 'subliming' process is relatively fast. 'The noon type' admits the suicide positively, being little guilty of it. They attach some meaning to their family member's suicide and accept it positively, so they find it easy to implement their overcoming strategies. Therefore, their 'subliming' process is vary fast.

4. the suicide-caused bereavement experiences of families can be defined as a 'subliming' process through which the bereaved family members will be aware of the after-effects of the suicide to be changed and matured to have their pain sublimed. In other words, the family members with one of them committing suicide will be shocked to hear about the news and then, be disturbed only to experience the bereavement. Moreover, they will face the social bias towards suicide and feel themselves defamed to fall into a deep mental quagmire. Some of

them may feel so painful that they may be impulsed to commit suicide, too. However, most of them will not yield to such a series of mental pains and troubles and instead, implement various overcoming strategies, and with the supporting system, they will undergo a 'subliming' process from the despair towards a hope.

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has reviewed the suicide-bereaved families' bitter experiences from a viewpoint of nursing theory, and that from a viewpoint of research into nursing, it has analyzed the suicide-bereaved families' experiences by means of the basic theory approach to establish a body of knowledge about the bereavement. In addition, from the viewpoint of nursing education, this study has provided,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for some data useful to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management of the bereavements with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ereaved families. Furthermore, from the viewpoint of nursing practices, this study surveyed and analyzed various complex and disturbing conditions facing the suicide-bereaved familie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psychological pain, and thereby, suggested the ways to apply the bereavement management model to the nursing services for the suicide-bereaved families.

감사의 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항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도와 도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논문 시작부터 끝까지 용기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시고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 이정섭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검토와 세심한 조언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논문을 이끌어 주신 전정자 교수님, 김분한 교수님, 유은광 교수님, 신경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늘 간호학과를 위하여 심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탁영란 학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과정 동안 간호학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게 해 주신 김주희 교수님, 임난영 교수님, 정문희 교수님, 안영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신 참여자 10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쁜 일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교수님들과 같이 공부하며 힘이 되어 준 동료들, 간호학과 사무실 직원, 조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양보건대학의 학장님이하 간호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공부하는 동안 기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은 시어머님, 큰 아주버님과 형님, 그 외 시댁 식구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신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형부와 언니, 조카들, 동생 부부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학업과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남편과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주지 못했지만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들 원종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